기존 동종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연금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4월 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맡은 바 작업에 힘쓰면
이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법구경〉

법회 안내

만덕사 (02)715-360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일반신도법회 매월 7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어린이법회 일 오후12시30분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5시

덕암사 (02)451-459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법안정사 (02)646-497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가족법회 첫째주 토 오후7시

미타사 (02)662-4736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미륵기도 매월 8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철야참선 매주 토 오후10시

청계사 포교원 (0343)95-6311
화엄산림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둘째, 넷째 일 오전10시
경전공부 매주 목 오전10시
꽃꽂이강좌 매주 금 오전10시
어린이법회 토 오후3시30분

평창 성원사 (0374)32-666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광주 선덕사 (062)263-4660
어린이법회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부법회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목 오후7시

자재암 포교당 (0351)865-514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5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요람서 무덤까지 "불교가 맡는다"

조계종 포교원 21세기 청사진 수립…전문성 눈길

신행 혁신 운동 전개…10개부문 1백과제 설정

21세기에는 불교병원에서 태어나 불교계가 운영하는 놀이방, 학생회, 신도회를 거쳐 사찰 납골당으로 귀의하는 평생 신도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지난해 11월부터 각분야별 포교전문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차례 연구세미나를 갖고 '21세기를 향한 포교종합청사진'을 마련했다.

포교원 10대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종합청사진에 따르면 1차로 향후 10년을 '신행혁신기간'으로 정하고 신도, 사찰운영, 문화, 사회등 10개부문 1백대 과제를 설정, 분야별로 구체적 포교방안을 제시했다.

포교원은 먼저 신행부문에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승보살'이라는 참다운 불자상을 신행혁신의 기치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교단, 불교인, 신도상을 정립하고 재적사찰 갖기, 신도회 가입하기, 신도오계수지, 경전읽기, 참회하기, 선행하기, 포교하기, 서원갖기 등을 실천덕목으로 정했다.

또한 포교활성화를 위해 포교이벤트 확산, 경전의 한글화,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가사장삼 및 재가신도 의례통일, 불교 의례를 개발하며 포교자료로 월간 〈설법〉, 통일법요집(경전 찬불가), 신도교재를 권찬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사회포교로 (가칭) '한국불교바라밀센터(KBBC)'를 창립, 불교사회봉사활동을 이끌고 전국 사찰을 전산망으로 구축해 포교정보화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어 포교 청사진은 "20세기 한국불교는 근대화에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향후 1백년을 3단계로 나누어 1세대(1995-2030년)에 새로운 한국불교인상 정립, 2세대(2031-2060년)에 불교혁신운동 완료, 3세대(2061-2090년)에 세계인류를 선도하는 불국세계화 추구 등 구상을 제시했다.

포교원장 정락스님은 "새로 마련된 포교 방략을 기초로 전문가들의 조사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교방안이 자칫 머리만 있고 다리가 없는 구호로만 그칠 우려가 있다"며 사부대중이 진정한 주체가 돼야 성공함을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토지처분·佛放대책특위 구성

조계종 116회 종회 월주 총무원장 "8월경 사면조치"

조계종 제116회 임시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가 지난 27일부터 3일간 총무원 청사 1층 회관에서 열려 1994년 결산검사를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29일 폐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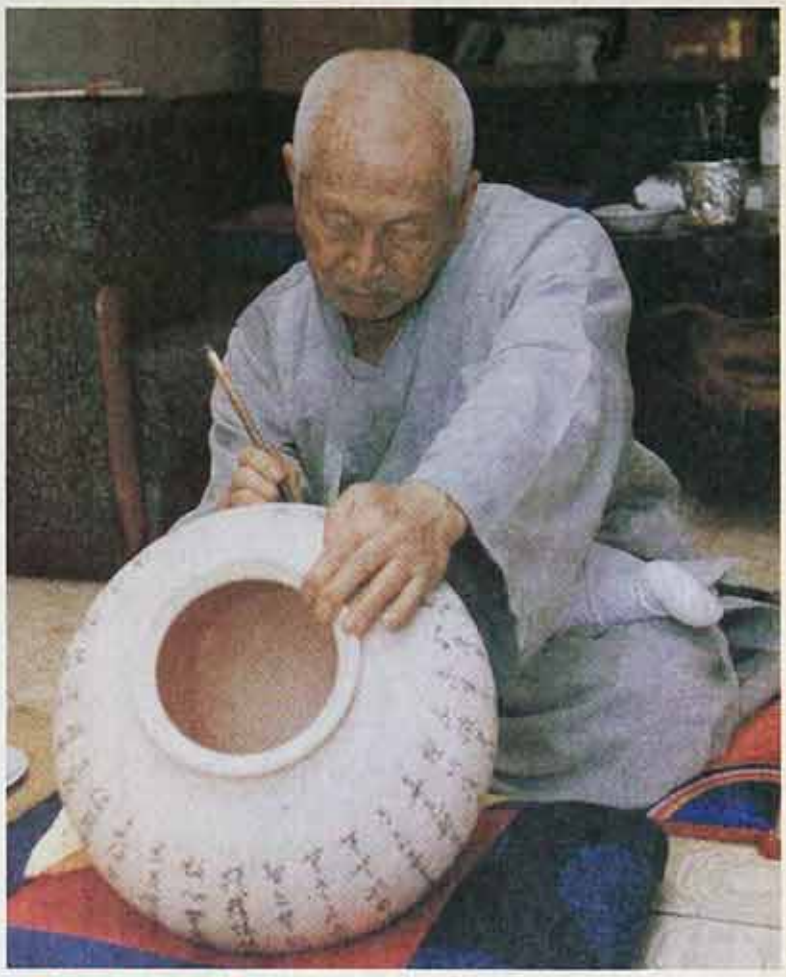
81명의 재적의원중 77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갑사 흥천사 흥룡사 영주암등 꿀의 뜰 빚고있는 사찰의 토지처분 및 임대에 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총무원 무승인 재산처분 및 임대조사 특위(위원장 영배스님)'와 '불교방송·진흥원 불교TV 대책특위(위원장 명진스님)'를 각각 구성,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불교방송·진흥원·불교TV 대책특위'는 4월1일 오후2시, '총무원 무승인 재산처분 및 임대조사 특위'는 4월7일 오후4시 첫 회의를 갖는다.

종회는 1994년 조계종의 예산 36억7백36만원중 세입 35억5천5백73만1천952원(99%), 세출 30억7천5십6만7천85원(85%), 차년도이월 4억8천5백16만4천867원을 통과시켰다.

한편 호법부 종무보고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사면 계획에 대한 깊의를 밝고 "사면은 예민한 문제이고 조사도 만만치 않아 1~2개월 연기해 금년 중반기 중에 사면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학원대책특위 보고에서 위원장 법등스님은 "4월10일까지 선학원 분원장 포교원장 설문조사를 완료해 이를 근거로 다시 선학원에 정관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 밝히고 "거부될시 분원장 대상 공청회와 조계종과 선학원의 원로·중진스님 모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본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가 해체되고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지선 수경 도진 원용 지현 법보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회(장우 현응 권타 수현 부산 종관스님)와 종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됐다.



노스님의 원력 창 밖에는 개나리 움트고 목련 피는 소리가 요란한데 노스님은 붓끝에 온 마음을 쏟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운현궁 갤러리에서 열리는 '온양 복지원 건립을 위한 석주큰스님 서예전'에 내놓을 작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석주스님의 원력은 정토건설을 발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에 '반야심경'을 한자한자 새기고 있다. 〈칠보사에서 박재완 기자〉

목어

어느날 아침에 들은 이야기

"불교가 사회참여쪽으로만 눈을 돌리면 자칫 세속화되거나 다른 종교와 같아질까 염려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님들이 수행의 참모습을 잃고 전문인 또는 기능인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개혁 1년 동안에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각종 제도의 틀을 새로 만들기는 했지만 질적으로 보완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다 함께 힘써야 합니다.

불교도 이제 사람을 아끼고 인력관리를 해야합니다.

대중교화에 자신있고 능력있는 스님들은 포교당 만들어 일선포교에 나서고, 그러다 보니 큰절 살림과 포교를 효과적으로 할 인재가 부족합니다. 적합한 자리에 재가불자를 영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주'같은 소임을 꼭 스님들이 해야 할까요.

교구본사 할일을 지자체 또는 총무원과 연계해서 행정적인 시각으로만 풀어내는 불교계 언론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불교를 '견지동 45번지'에 국한시킬뿐 아니라, 이런 시각 때문에 불교계의 모순이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견지동 45번지'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불교계의 폭넓은 흐름을 볼 수 있어야죠.

교구본사 할일을 지자체 또는 총무원과 연계해서 행정적인 시각으로만 풀어내는 불교계 언론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불교를 '견지동 45번지'에 국한시킬뿐 아니라, 이런 시각 때문에 불교계의 모순이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견지동 45번지'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불교계의 폭넓은 흐름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런 흐름의 물꼬기를 이들어 주고 바로 잡아나가는 역할을 하는곳이 바로 '견지동 45번지'이어야 합니다.

불교가 지역사회·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포교효과도 거두고 정토로 가는 길을 폭 넓게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조계종 개혁에 앞장섰던 한 스님이 상경하여 잠시 차를 나누면서 들려준 이야기다. 흔지만 듣기보다 대중이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번호(4월 5일자)20면 발행
달라이라마·홍선스님 대담 11면
우리는 즐거운 실버세대 15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광고 받습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항상 중생 구제에 여념이 없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지비로 오신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혜방을 이어갈 사부대중의 힘찬정진을 기원하기 위해 특집으로 신문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에 맞추어 사부대중 모두가 동참하는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각 사찰 및 단체
◇ 금 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 크 기 명함크기, 명함 2배 크기
◇ 접 수 95년 4월 15일까지
◇ 연 락 처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95년도에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생명의 신상품 –
어떤것을 선택해도 확실히 만족하십니다



확실히 커진만큼 확실히 만족합니다.
삼성 그린행복연금보험
●지급율이 큰폭으로 개선된 고액의 연금+장수축하금+배당금까지
●업계 최초로 장수우대형(장수할수록 많아지는 연금을 종신지급)과 조기지급형(일정기간동안 고액의 생활자금을 지급) 중 선택 가능
●각종 세제혜택 제공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차익 비과세)
●노후 80세까지 암발병 및 입원치료비 보장(특약)
●개인형 및 부부형 선택 가능



진단에서 입원, 요양, 그리고 생활보장까지–
삼성 흠닥터보험
●배당금 지급으로 저축가능까지 겸비
●암진단급여금+생활자금+입원비+수술비+통원비+요양비+유족보상금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다양한 보험기간(10,20년형/55,60,65,80세형)
●배우자 및 자녀까지 동시가입 가능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열린마당

화주동참 분위기 조성부터

사 설

한국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개혁불사가 한국 불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생산불교와 깨달음의 사회화를 향한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의 당면과제 가운데 시급한 것으로 역경, 포교, 도제양성을 꼽았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은 물적 토대가 견고해야 실현될 수 있다. 아무리 부처님의 무소유 사상을 외친다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 체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불교중흥을 위한 발전기금의 모금운동이 각계 각층에서 전개되고 있음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종립 동국대학교가 총장의 취임과 함께 1천억원의 재원확보에 나섰다. 일산에 제 3캠퍼스와 종합병원 등을 세우고 내실있는 교육을 통하여 불교의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서원인 것이다. 또한 명실상부한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을 위해 김포 캠퍼스 이전을 목전에 두고있는 중앙승가대학도 7백억원의 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더하여 지난 3월1일 첫방송을 시작한 불교텔레비전도 2백억원의 재정확충이 절실하다고 한다. 그 밖에 불교방송국의 지역확대, 양로원, 고아원, 유아원 등 복지시설의 건설과 환경공해, 경제정의, 통일문제 등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각종 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모금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모든 불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부대중의 일치단결된 화합과 보살정신의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여기에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종단에서는 개혁차원에서 현재의 불교재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종헌, 종법의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가 세워지고 경영진단을 통한 과학적 관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사찰의 재산공개와 수입, 지출 등 회계의 공개가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삼보 정재를 지키고 불교중흥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역 및 사찰단위의 신도조직이 잘 정비되면 지역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일이나 불교문화를 가꾸는 데 많은 불자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범불교적 입장에서 우리 모든 불자들이 불교중흥을 위한 각종 발전기금의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님 제자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원시불교 시대부터 보시는 가장 중요한 바라밀이었다. 보시와 희사는 전통적으로 공덕을 쌓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구제받도록 하는 교화의 기능을 갖는다. 기독교 신자들은 십일조의 정신을 잘 실천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복지, 언론 등의 사업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함경에는 수입을 4등분하여 그 중 사분의 일은 빈궁하거나 병든 자에게 보시하도록 하였다. 구사론에서는 수입의 십이분의 일을 자비심에서 보시함으로써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불교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숨쉬면서 살아온 문화주체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구현된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계시는 부처님은 물질적인 보시를 강조하신다. 공정한 분배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각종 발전기금의 모금에는 서민불자들의 정성어린 보시도 필요하지만 재벌 불자나 혜택받은 계층 불자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불사기금

인재양성·포교불사에 전불자 참여를
동참자에게 보람주는 방법 모색해야

보 광 스님



불사를 수복(修福)과 작복(作福) 기복(祈福)의 불사로 나눈다면 그 기준은 시주자들이 어떻게 동참하는가 하는 것이다. 신라, 고려시대에는 불사를 추진할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결사(結社)를 맺었다. 불사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사의 과정을 수행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재물과 노동과 기도를 나누어 맡아서 불사에 동참했던 것인데 이는 수복불사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불사는 불사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경향이 짙다. 세상의 변화에 따른 것일지 모르지만 불사의 중요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사를 통한 불사금조성이나 작업보다는 권선에 의한 모금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불사에 대한 동참의욕의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전국의 사찰 대부분이 크고 작은 불사를 일으키고 있다. 거기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불교TV도 대규모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규모 불사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가지 불사는 한국불교의 불사를 한단계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불사는 인재기르기, 사회봉사, 포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같은 중요 불사는 그 중요성만큼 화주의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동참자가 복을 빌며 일회성동참에 만족하게 하지말고 꾸준한 관심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식이나 학교채의 발행등이 좋은 방법으로 꼽히고 있지만 정신적인 만족의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수복의 불사 작복의 불사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수입 5% 보시…사회복지에도 관심을
목적 뚜렷하고 신뢰감있게 진행돼야

박 광 서 교수



전국적으로 사찰을 비롯 신행단체별로 불사가 한창이다. 사찰은 중창불사, 신행단체는 이웃돕기등의 인간방생 불사가 주류를 차지한다. 불사는 대부분 불자들의 보시금으로 이루어 진다. 때로는 전시회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지만 인연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계는 보시에 있어 타종교의 십일조와 같은 기준이 없다. 때문에 불사나 행사가 계획성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시는 육바라밀 가운데 으뜸가는 보살행이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한가. 정기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보시금으로 설정해 놓은 불자가 얼마나 있는가는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어느때 보다도 보시운동이 새로 일어나야 할 때이다. 보시교육이 다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수입의 반은 생활에 쓰고, 사분의 일은 저축하고, 나머지 사분의 일은 보시하라"고 말씀하셨다. 불자라면 당연히 이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수입의 5%는 보시하자'는 제안을 한다. 재직사찰이나 신행단체에 운영금으로 1%를 내고 불사등 불교행사에 2%를 보시해야 한다. 또한 불자라면 불교이외의 대사회 복지에도 수입의 2%를 보시해야 하겠다. 물론 이러한 보시금은 목적이 뚜렷하고 신뢰감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시하는 이나 보시를 받는 이 그리고 보시물이 깨끗해야 한다.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현대만평



박 구 원

한뜻으로…

시 론

꽃피는 봄이건만…

도심(都心)의 봄은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꽃은 필듯 말듯 머뭇거리고 있다. 공기의 오염 탓만은 아닌 성 싶다. 오탁세간의 너무나 암울한 소식 때문일 것이다. 암울할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하다. 사람이 살인마로 둔갑한 것이다. 교육자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였고 이웃나라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신흥종교의 교주가 자신의 예언을 사실로 굳히기 위해 마구잡이로 많은 인명을 앗았다. 발각되지 않았으면 더 많은 희생자를 낼 뻔 했다. 양자가 공히 사전에 면밀히 계획된 살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한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종교를 빙자하여 사람을 가두고 폭행하여 재산을 강탈한 것도 일본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이런 사건들은 살인강도가 먼데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는 인간 변질에 대한 경종이 아니겠는가. 개발도상국이니 GNP니 하고 부르짖고 있는 옆자리 그늘진 구석에서 사람은 그의 본성을 상실하였으며, 그의 정신은 썩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되다 못해 승두리채 물질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중생들의 아비규환을 들어온지 오래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간다. 이번 S대학 교수의 경우는 그 극치라 하겠다. 배울도 가르침도 허사로 돌아간 교육부재의 현장이다. 교육을 외면한 인간이 설 자리는 이 세상 아무데도 없다. 갈 데까지 간게 아닌가 하는 회의에 사로잡힌다. 부처님은 저만치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고 계심이 분명하다. "너희는 내 가르침에 귀기울이지 않는구나"하고.



신 동 춘

〈시인 · 한양대 영문과교수〉

정신이 썩어가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 범죄의 수는 가속도가 붙은 듯 불어나고 범죄의 양식 또한 점점 더 지능적이며 복잡해진다. 인(因)과 과(果)의 관계를 모르는 무명의 중생이 짓는 악업은 바닥 날 줄 모른다. 국고를 축내는 세리(稅吏)들의 행렬에서 자칭 지존파로 알려진 살인광들의 광기에 이르기까지 허다하게 접해온 범죄로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건에는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만은 다르다. 가해자가 교육자라는 것과 피해자가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이렸다. 그가 받은 고등교육은 지식의 축적에 불과했다. 지(知)와 행(行)의 엄청난 괴리가 화근이 되었다면 그의 석·박사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쯤에서 우리 불자는 불교와 현대교육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교육에 접맥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하는 목소리가 드높아 가고 있는 이 때 인성교육이 다름 아닌 지마다 갖고 있는 불성에의 접근임을 불자는 너 나 없이 자신있게 주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유불성(悉有佛性)의 교리부터 터득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알려야 한다.

인성회복 불교도 앞장

이와 같이 불교를 일반교육의 구심점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교육 그 자체를 위해서나 한국 불교의 성공적인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서나 우리 불자들이 꼭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그 수준에 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해낼만한 자리에 가 있어야 한다.

80년대 초반의 일로 기억한다. 월간지 〈불교사상〉이 주축이 되어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나타난 사상적 종교적 계보를 분야별로 검토하는 작업을 한적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총무원의 위촉을 받아 영어교과서에 드러난 기독교적 내용과 불교적 내용을 비교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두가지 사실로 필자를 놀라게 했다.

첫째는 전자가 직접 간접으로 교과서 전반에 걸쳐 널리 그리고 상당히 깊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후자는 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 자취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한군데라는 것도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친구에게 띄운 편지 내용으로 경주의 풍물을 그리면서 불국사를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둘째 사실은 당시 문교부의 교과서 심의위원중에 불교신도가 한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불교는 이렇게 사회 이모 저모에서 그들의 관심 밖으로 자연스럽게 가차없이 밀려나고 있었다. 서구인 야스퍼스를 그토록 매료시켰던 팔정도(八正道)나 화엄사상의 십지(十地) 보살론의 간략한 해설쯤 고학년 교과서에 포함시킬 만 하지 않은가. 구약성서 시편 23의 상당부분을 게재할 정도라면 영문판 법구경의 몇줄이라도 소개할 만하지 않은가. 등등 필자는 고독한 고민을 했다. 시중 영자신문에 이 사실을 밝혔던 바 당장에 영문학 교수 한사람에게서 다부진 문책(?) 전화가 걸려왔다.

3월29일로 종단 개혁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새 바람의 거센 열풍의 힘을 빌어 우리 불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길을 잠시 점검해 보았다. 사회에 기여하는 바 없이 역사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밝은사회 정토구현을 염원하면서.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창립법회

이제 중앙승가대학은 도제양성을 위해 설립된 종단의 유일한 최고 대학교육기관으로서 제2의 창학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중앙승가대학은 캠퍼스 이전과 정규대 승격을 통하여 종단과 한국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고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원대한 발원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불교중흥에 사명감을 가지는 동시에 지혜와 추진력을 고루 갖추신 분들의 덕화에 의해 원만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는 향후 대학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교육불사가 제불보살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원만히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행 사 식 순

1부 : 개회식
- 삼귀의
- 반야심경
- 경과보고
- 청법가
- 법어(종정스님)
- 대회사(총무원장스님)
- 모시는 말씀(학장스님)

2부 : 발전위원회 출범식
- 축가
- 발전위원회 취지문 낭독
- 발전위원회규정 개요 소개
- 발전계획 개요 설명
- 축사
- 고문, 발전위원 소개
- 승락의 말씀

3부 : 축하연 및 폐회
- 축하공연
- 교가제창
- 사홍서원
- 폐회

■ 일시 : 95. 4. 7.(금) 17:30 ~ 20:30 ■ 장소: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을지로)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 (02) 929-5004, 926-4377, FAX (02) 921-9721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⑩


세계 각국의 사막화 피해 현상

◇무분별한 신림벌채와 과다한 방목으로 사막화하는 땅이 전세계적으로 늘고있다. 이는 생태계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된다.

사막주변 초원지대 불모지 확산

자원수탈 탓…阿대륙은 최악의 생태환경

토양의 사막화

부처님께서 알라비마을 악갈라바 탑묘에 계실 때 한 수행승이 탑묘에서 영사하면서 스스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하길 "사문 석가의 아들이 스스로 땅을 파려하거나 남을 시켜 땅을 파려한다. 사문 석가의 아들이 유일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모든 수행승들은 이러한 비난을 들었는데, 그 때에 한 욕심없는 수행승이 '왜 알라비마을의 수행승들이 스스로 땅을 파려 하고 남을 시켜 땅을 파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안 부처님은 사실인가를 수행승들에게 물은 뒤에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왜 너희들은 스스로 땅을 파려하고 남을 시켜 땅을 파려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이여, 사람들은 땅속의 생명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 … 어떠한 수행승이라도 스스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땅을 파게하면 참회죄(按逸罪)에 해당한다"

율장에서는 땅을 생지(生地)와 불생지(不生地)로 구분한다. 생지는 토양의 흙을 말하고 불생지는 모래, 자갈, 바위가 많고 토양이 거의 없는 땅을 말한다. 생지라 할지라도 율장에 의하면 4개월이상 그 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불생지가 된다고 한다.

현재 지구의 불생지인 건조, 반건조지대는 육지가운데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매년 6백만 헥타르의 비율로 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사막은 년간 1백5십만 헥타르씩 남하하고 있다. 바로 이 사하라 지역의 사막화는 68년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토양의 사막화는 주로 사막의 주변에 존재하는 반건조지역에서 행해진다. 반건조지대는 관목이 드문드문자라는 초원지대이다. 이런 곳에 땅을 자주파는 과경작이나 풀을 너무뜯는 과방목이 행해지면 그곳의 미시적 토양생태계가 파괴되고 물의 보존능력을 상실시켜 바람에 의해 건조화되면서 사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관목이나 풀이 죽으면, 표토가 침식되어 사막화된다.

과거의 인류의 4대문명의 발상지도 대부분 이초에는 원시림에 가까운 비옥한 곳이었으나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거주하면서 인근의 숲을 베어내거나 화전화시켜, 땅을 파고 과경작이나 과방목을 행함으로서, 땅의 수분보존능력을 감퇴시켜 강수량의 감소, 지하수면의 하강, 기후변화등을 유발시키면서 사막화되었던 것이다. 한번 사막화되면 토양의 잔뿌리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기상조건이 달라지므로 완전히 불모지화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오늘날 진행되는 아프리카 토양의 사막화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탐욕스런 제1세계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아프리카인의 자급자족적 경제공동체를 파괴하고 유럽경제의 종속시킴으로 심화된 것이다. 아프리카는 제1세계의 필요한 커피등의 기호품을 위한 돈벌이되는 작물만을 재배 수출하면서,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한 나머지 건조지대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여 불모지화된 것이다.

제3세계의 아프리카 토착민들은 더이상 불모지화된 땅에서 기호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에 차질이 생기자 수입에 의존하게된 식량마저 조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아프리카는 사막화와 기아에 허덕이는 최악의 생태환경으로 전락한 것이다.

'95 신 행 캠 페 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교계 '자비의 전화'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희섭보살은 요즘들어 부쩍 청소년문제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다는데 충격을 받은 탓이다.

얼마전 ㅅ고에 다닌다는 한 남학생은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으면서 "건전하게 사귀는데도 부모가 자신을 불량학생으로 취급하면서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어 죽고 싶다"는 말로 상담을 신청해 왔다.

금주의 주제

청소년 선도

각 사찰 학생법회 지도법사들도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상담을 신청받고 있다. 특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특히 불자들은 가정신행생활을 통해 자녀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청소년 문제의 발단은 우선 가정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만한 부모의 역할은 물론 마땅한 대화창구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부모·지도법사 적극 나서야

주입식 교육보다 마음의 대화 갖도록

또 ㅈ고의 한 여학생은 "눈만 뜨면 공부만 하라는 부모님 역성에 가출하고 싶다"며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어왔다.

청소년 상담문의는 전체상담의 20%지만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안고있는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천편일률적이고 억압적인 청소년 지도방법과 그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해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희섭보살은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들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특히 불자들은 가정신행생활을 통해 자녀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청소년 문제의 발단은 우선 가정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만한 부모의 역할은 물론 마땅한 대화창구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신행수첩

진리 · 광명 찾는길

불교발전연 대구법회

이 시대는 올바른 가치관의 상실과 인간존재의 뿌리를 망각한 도덕성의 결여, 물질만능이 강조되는 정신세계의 황폐함등으로 인해 참된 자기 구현이 어려운 때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대구 황제예식장에서 '21세기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전국순회 대구대법회를 연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찾는 길을 올바르게 알아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자기의 설 곳을 분명히 관찰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할 이번 법회는 시대를 앞서가는 한국불교의 앞날을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법회는 제1부 월탄스님의 설법에 이어 제2부에 공옥진씨의 소리와 춤이 곁들여진다. (02)736-6202.

오대산서 심신을 맑게

광명선원 거사림 산행

버드나무 푸르르고 꽃이 붉은 자연의 본래 모습과 고찰의 정취가 어우러진 비로봉 산자락.

광명선원 거사림회에서는 오는 16일 06시 광명선원앞에서 오대산 적멸보궁으로 산행을 떠난다.

간단한 개인 준비물과 공양미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가는 산행은 법을 찾고 심신을 닦는 수행의 방편이다.

적멸보궁은 한국불교사원중에 제 1의 순례지이니, 자장율사가 맨먼저 이곳에다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봉안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새가 길을 인도하여 보궁자리를 일러주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02)584-1108.

신심다지는 예불강좌

불교전통의식 강의

부처님 음성을 전하는 법구를 다루며 예불하여 부처님 앞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다면….

부처님의 자비 ·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대중을 위한 포교 · 실천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지선스님)은 오는 14일부터 6월30일까지 '제1회 불교 전통의식 강좌'를 개설, 염불 · 독경을 생활화하고 신행의 깊이를 더해준다.

또한 11일부터 6월27일까지 중생구제의 간절한 서원이 담겨진 지장보살본원경을 배우는 '지장경강좌'도 개설한다.

불교의식 강좌를 통해 하루출가를 해 신심을 다지고 지장보살의 대서원을 배워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길을 찾아보자. (062)228-9098.


◇선덕여왕 12년(636)에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봉안한 오대산 적멸보궁.

선재들의 한마당 잔치

16일 동대부고서

으싸~으싸~.

푸른 잔디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아지랑이 아른아른, 만물이 소생하는 4월, 하고도 16일. 청교련 서울지부와 선재들을 위한 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의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와 일본제자로서의 자부심과 화합을 고양시키기 위해 「'95 선재들의 한마당 큰잔치」를 동대부고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기마전, 길거리농구, 제기차기, 레크게임, 육바라밀놀이 등의 전통놀이 및 현대 인기 운동경기 종목에 이르기까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한다.

행사 접수기간 4월10일까지. (02)927-7766.

조상의 얼이 숨쉬는 곳

단석산 마애불 탐방

완연한 봄기운이 파릇한 새싹에 새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탄생의 계절 4월. 강이나 들로 유원지를 찾아 계절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조상의 얼이 숨쉬는 유적지를 찾아보는 것도 계절의 의미를 한껏 맛볼 수 있는 좋은 인연이리라.

부산지역 불교문화발전과 불교인의 의식 고양을 위해 부산불교교육원이 5일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이번 문화기행에서는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선도산 마애삼존불, 굴불사터 사면석불 등을 지도법사의 설명을 통해 둘러보며 마애불상군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산행의 묘미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느낌도 자유롭다. 그러나 우리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는 모두 함께 때닫는 선업의 마당이 될 것이다.

(051)466-4080.

배움의 열기 환영합니다

길음청소년학교생 모집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은 여기에 오십시오.

배움에 열의를 가지신 분은 여기에 오십시오.

생활에 쫓기고 형편이 어려워 미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이 길음근로청소년학교 학생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의 수강생을 4월10일까지 모집하는 길음근로청소년학교는 낮에는 일터에서, 밤엔 교실에서 마음의 텃밭을 일구고,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의 역군을 기다린다.

수업은 월요일, 토요일 오후 7시30분에서 10시20분까지 주 2회 전액무료로 운영되며,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985-0161~4.

신장이식 받을 분 기다립니다

생명공양실천본부 두 스님 장기 제공키로

마음의 소리를 따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연기법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엮어가는 삶은 참으로 빛나는 보주와도 같다.

적극적인 장기기증을 통한 육신보시로 색 · 수 · 상 · 행 · 식 오온이 다 공하고 육신이 나의 것이 아닌 이치를 깨달아 현상세계를 넘어 진리의 세계로 향하고자 참 수행자의 길을 걷는 두 스님이 불법과 생명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생명공양실천본부는 두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신부전증, 만성사구체신염 등의 질환으로 고생하며 신장이식을 받고자 하는 수혜자를 기다린다.

전생의 큰 인연으로 살아있는 보살들을 만나며 광명의 새 삶을 찾기를 기원해 본다. (02)263-8268.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 · 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産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 · 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 · 현직 대통령, 기시 · 사토 · 미키 · 후쿠다 · 스즈키 · 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中央日報社



대구 사원주지연 초대회장
원명 스님



"이제 한국불교는 개혁의 이름으로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 새로운 물꼬를 트고 큰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불교도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새 봄을 맞을 채비를 해야했지요"

10여년간의 갈등끝에 마침내 대구불교 통합의 위업을 일구어 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대구광역시 사암주지연합회 초대 회장에 선출된 원명스님(관음사 주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앞

"지역불교 발전에 견인차 역할 할 터"

장서는 불교의 중심지라는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원명스님은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더욱 차원 높은 교화와 대 사회적, 종교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원명스님은 "이미 추진중인 불교회관 건립을 비롯 불교방송등 교계 대중매체의 지역유치와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깨달음을 사회화하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다. 〈우〉

호국천보사 일주문 불사회향



법타스님(평불협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28일 65사단 호국천보사에서 봉행된 일주문 신축불사 회향법회를 주관했다.

어린이집 2개소 개원



동광스님(도선사 주지)은 지난달 10일 도선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혜명불교복지원 산하 노량진2동 어린이집과 신당6동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중앙종회의원 취임







철우스님(용담사 주지, 사진상) 명관스님(화엄사 총무, 사진중) 법일스님(기림사 주지 사진하)이 지난달 23일 16교구 고운사, 19교구 화엄사, 10교구 은해사 종회의원으로 확정됐다. 세 스님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조계종 제116회 중앙종회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의원활동을 시작했다.

베를린 필에서 공연

병오스님(독일 보문사 주지)은 14일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열리는



베를린 음악아카데미 정기합창발표회에 합창단원으로 참가한다. 병오스님은 지난 93년부터 음악아카데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대학원장 취임법회



목정배박사(동국대 교수)는 오는 7일 오후6시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동대 신임 불교대학원장 취임법회에서 제4대 원장에 취임한다.

1천일 무료기도 회향



김용직법사(대한불교 신도회장)는 3월29일 뉴월드예식장에서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법회 겸 2천7백명 1천일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김법사는 4월1일부터 2차 1천일 기도를 시작한다.

광주시에 도서관 기증



박성용회장(금호그룹)은 50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 광주시에 기증키로 하고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월산동 무진중학교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인 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개교 1백주년 사업본부장 **보광스님** △경영관리연구소장 **차수련** △농림과학연구소장 **김용욱** △사회과학연구소장 **김진철** △학생생활연구소장 **심익섭** △지역발전 연구소장 **유덕기**

〈경주캠퍼스〉 △사찰조경연구소장 **홍광표** △의학연구소장 **고복현**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시현)는 지난달 28일 한일관에서 총회를 갖고 정식출범했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골수습 및 위령사업 등 과거청산 실천사업을 미련하고 오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박세일 청와대 정책수석 취임 축하법회

대불련 6기 박세일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의 취임 축하법회가 한국 대학생불교연합회 총 동문회(회장 명호근) 주최로 지난 24일 롯데호텔 36층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 축하법회에는 전 고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 김영두씨(고대 명예교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법현스님, 전재성씨 등 대불련 동문 40여명이 참석했다.



혜광맹인불자회 창립 6주년법회

혜광맹인불자회(회장 김부봉) 창립 6주년 기념법회가 지난달 26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5백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점자경전 독송과 불자연예인들의 자선공연이 펼쳐져 불자 한마당의 잔치를 이뤘다.

내일을 여는 불자

"숱한 고민 마음의 대화로 풀어"

자비의 전화 상담원 이석진 씨

"따르르릉 따르르릉"

"여보세요 자비의 전화입니다"

3년전 카운슬러 교육을 수료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자비의 전화 상담원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석진씨.

이씨는 지난해 총 상담시간 764시간(94년 356시간)으로 자비의 전화 최다봉사시간 상담원 부문에 선정되는등 자비의 전화 전문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여고시절부터 지금까지 불교공부를 하고 있고 전국사찰을 찾아 다니며 신심을 다질 정도로 불심 또한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신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천행도 더불어



철야 상담 도맡아…최다봉사원에 뽑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자비의 전화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이러한 실천행을 중요시 했기 때문이라고 귀띔한다.

특히 이석진씨는 지난해 4월1일 자비의 전화 24시간 전화상담이 개통되면서 철야상담을 도맡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담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다.

"잠못 이루고 고민하는 불자들과 함께 간절한 철야기도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철야상담을 자원했지요.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늦은 밤시간에 진지한 상담이 줄을 이어 밤이 새는 줄도 모릅니다"라고, 철야를 맡은 상담원으로서 고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또한 상담자들의 마음을 쉽게 열어 놓을 수 있는 상담원의 자세가 선행되야 한다고 역설하고 " 상담원은 사회의 모든 현상에 누구보다 민첩해야 하며 다방면의 지식을 두루 갖춘 만능이 되어야 한다"며 제대로의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하고 재충전해야함을 강조했다.

타종교에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봉사단체들이 많고,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이씨는 "불교계도 하루빨리 사회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역량있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교계의 나후된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 1일로 철야상담을 시작한지 1주년을 맞은 이석진씨는 "앞으로 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상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주년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김중근 기자〉

탐방 발우회

담백한 사찰음식 문화 계승

천주교·기독교 신자도 참여…고찰 다니며 실습

김부각, 튤깨점, 메밀총떡, 산초짱아찌…

깔끔하고, 담백하면서 맛깔스런 전통사찰음식 만들기를 배우고, 발우공양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알짜배기 불자들이 있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스님) 문화강좌를 듣는 발우회 회원들이 바로 그들.

지나치게 서양식 음식들이 가정의 식단에 관을 치고 있는 '국제화시대'를 전통사찰음식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하려는 발우회 회원들은 전통문화계승의 기수들이다.

40여명 발우회 회원들은 주부 교사 요리사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뿐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등 타종교인들도 들어있다.

회원들은 매월 15일과 30일 두번의 정기 법회중 한번은 전통사찰음식에 대한 기초교리를 이론적으로 공부한다. 또 나머지 한번의 모임은 직접 유서깊은 사찰을 탐방해 음식의 보고(寶庫) 장독대를 찾아 실습한다.

가정에서 우리 농산물 애용을 앞장서 실천하고,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김재희씨는 "채식위주의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사찰음식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며 전통사찰음식이 관광자원으로서도 한몫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발우회는 전통음식문화 계승뿐 아니라 발우공양정신의 생활화에도 역점을 두고 실천하고 있다. 발우공양의 식생활과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무엇보다 쓰레기 종량제에 적극 참여해 환경오염방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은 청정환경의 파수꾼으로서도 일조를 한다.

발우회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오는 4월 30일부터 보름동안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여의도에서의 불교문화축제를 기획, 솜씨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 사찰순례, 세미나 개최, '전통사찰음식문화' 소식지 지속적 발행, 회원들의 전통음식점 운영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발우회가 농민소득증대와 환경오염방지 기여에 앞장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발우회 대표 조명덕현보살은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젊음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필선기자〉



◇ 발우회 회원들이 보문사 법사스님 혜주스님과 함께 전통차와 곁들여 먹기에 좋은 다식을 만들고 있다.

게시판

▲**창립기념법회**=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상대)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코모도호텔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스튜디오 개소**=조계사보 사진부장을 지낸 오재덕씨의 오재덕스튜디오 사진연구소가 지난 1일 오후5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개소했다. (02)511-2001

▲**도움의 전화개설**=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7일 도움의 전화를 개설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학교발전을 위한 모든 제언을 받는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내 3014, 교외 260-3014)

이전 ▲동국불교신문사 편집국이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으로 이전했다.(02)859-2169

3.29 법난, 4.10 승려대회 1주년 기념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증 명 월하, 서옹

고 문 서운, 관응, 월산, 문성, 혜암, 승찬, 원담, 운경, 고송, 비룡, 용담, 도천, 도견, 지종, 석주, 청하, 일타, 도원, 성수, 벽암, 수산, 청화, 월인, 송담, 화산, 진제, 지유 (무순)

지도위원 탄성, 녹원, 월주, 고산, 능가, 광덕, 지관, 이두, 지유, 벽파, 도문, 정일, 혜정, 법정, 보성, 대정, 법홍, 화임, 우룡, 월운, 도원, 혜산, 무문, 원명, 천운, 근일, 무진장, 송산, 보광, 무비, 종진, 원산, 정락, 설정, 정대, 월탄, 설조, 태웅, 오현, 현호, 홍교, 지형, 지하, 월서, 법조, 현성, 법혜, 혜남, 지선, 정현, 지홍, 현해, 월성, 철웅, 범장, 무공, 정관, 지은, 도영, 종열, 현고, 현근, 재곤, 지원, 정명, 무여, 고우, 덕민, 수진, 범하, 지명, 원우, 시현, 설송, 혜창, 중래, 평상 (무순)

상임대표 청화

공동대표 도법, 혜총, 수완, 성웅, 정도, 법천, 각원, 정혜도량, 전불련, 재불련, 우리는 선우

행사 추진위원장 지홍

추진위원 종림, 광복, 세영, 무산, 원행, 부동, 각현, 무상, 덕상, 장곡, 지운, 인행, 법등, 정우, 선붕, 성덕, 현소, 향공, 성타, 진현, 무착, 선용, 원명, 영담, 영환, 석호, 정우, 영배, 혜광, 원행, 성오, 지운, 종원, 진만, 지원, 영조, 보선, 혜관, 종하, 진아, 대원, 동명, 일면, 화범, 성우, 명진, 현봉, 종광, 정인, 법성, 지만, 여연, 효림, 정휴, 장윤, 성문, 현진, 진관, 지환, 일수, 성로, 정호, 성우, 만성, 법진, 종삼, 덕신, 법광, 정만, 정념, 홍관, 향적, 덕운, 정문, 원혜, 성수, 화암, 종석, 종운, 태원, 금정, 선진, 재원, 범민, 보각, 성도, 무상, 진우, 성본, 법산, 도엽, 대각, 현강, 혜권, 상묵, 지운, 대진, 상우, 각문, 동욱, 종림, 성언, 도현, 동광, 현엽, 원타, 도완, 현웅, 수경, 동성, 도각, 장적, 주영, 법안, 오성, 토진, 혜담, 설봉, 해관, 탄공, 칠오, 지암, 도현, 본원, 법일, 진우, 현기, 일문, 자성, 원명, 현담, 무여, 선광, 선법, 정산, 명성, 묘업, 지광, 지형, 일연, 계수, 성총, 성정, 묘순, 대우, 일법, 수현, 재운, 육문, 법용, 지훈, 진성, 본각, 해주, 홍륜, 혜조, 재범, 원담, 유곡, 홍승, 희문, 정야, 종호, 법운, 종선, 용담, 현공, 법상, 일감, 도은, 진목, 우석, 금인, 현민, 정담, 도륜, 대준, 묘준, 혜타, 천지, 월, 길상 (무순) 한상범, 이문옥, 박광서, 안동일, 이순규, 김재일, 남지심, 곽상인

사무처장 각밀

실무 진행위원
- ●총무-지명, 혜경, 각원
- ●기획-법안, 송묵, 정암
- ●홍보-현법, 오성, 금강
- ●섭외-각신, 진웅, 이지
- ●의전-하림, 덕문, 원융

행 사 일 정

■ 3.29 입제선언, 오후 2시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 자료전시회(종단개혁 사진 만평전)
일시 :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및 조계사 경내

■ 종단개혁 비디오상영전
일시 :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및 조계사 경내

■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를 위한 대토론회
일시 : 4월 7일 오후 2시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일시 : 4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 참가단체 : 선우도량,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동문회, 동국대석림동문회,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동문동림회, 중앙승가대학학생회, 동국대석림회,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재가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우리는 선우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행사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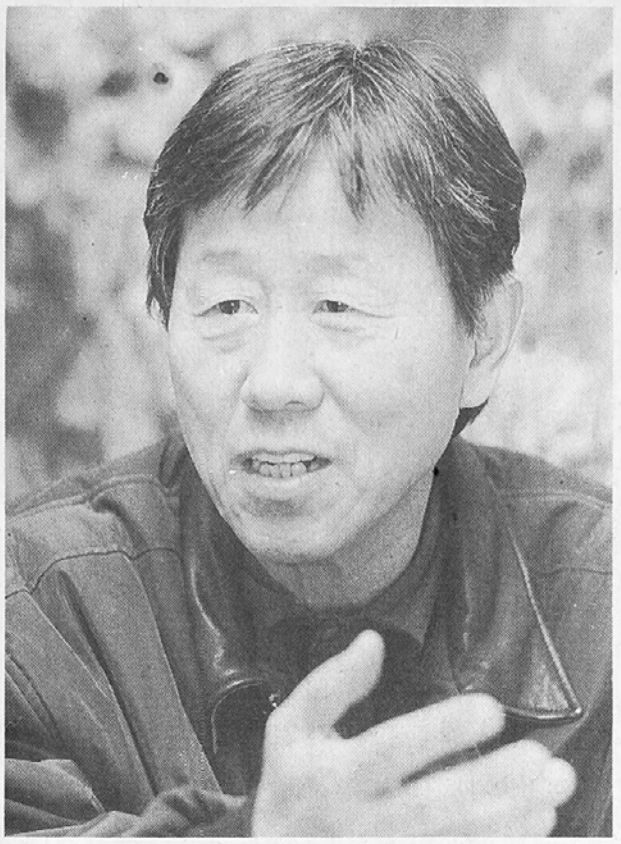
소리·시간 초월 禪의 감동 추구

원통형의 용기와 재료, 그리고 스님들의 잔잔한 독경소리가 어우러져 내는 소리.

그 소리의 힘은 우리들 폐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인간의 '원형질'을 끄집어 내고도 남는다.

오는 6월에 열릴 베니스 비엔날레에 '마르코폴로가 가져오지 못한것'이란 설치 미술을 내놓을 재미작가 곽훈씨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동숭동 인공갤러리에서 작품을 미리 선보이고 있다.

또 그의 회화작품 '겁·소리' 시리즈는 6일부터 22일까지 인사동 선화랑에서 전시된다. 국내 전시는 물론 베니스에까지 비구니스님 10명이참가하는 이번 전시는 곽씨의 변화무쌍한 실험정신과 광범위한 예술적 재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



산문밖의 禪

6월 베니스 비엔날레
'마르코 폴로가…' 출품

설치미술가 곽 훈 씨

옹기·명상음악·비구니등 어우러진 작품
한국불교 예술적 승화시도 세계에 알려

'마르코폴로…'는 국민학생의 키만하고 가운데 두개의 구멍이 뚫린 통형 용기와 김영동씨의 명상음악. 10명의 비구니스님이 어우러진 작품.

미술 작품에 스님이 작품의 일부로 참선의 자세로 앉는다는 것과 김영동씨의 대금연주가 가미된다는 것 만으로도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를 전해준다. 거기에 스님들의 조용한 허밍과 독경이 얹혀지고 대금 소리와 어우러진 스님들의 목소리는 다시 원통형 옹기관을 통해 공명의 소리로 변질되어 감상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쯤되면 곽씨의 작품은 이미 미술의 영역을 초월한다. 그렇다고 음악의 범주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상념의 가닥 붙잡기

"미술과 음악과 불교라는 별개의 관념을 가지고 이작품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술도 아니고 음악도 불교도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날때 차라리 더 큰 의미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소리와 시간이란 화두를 동시에 풀어내고 싶은 곽씨의 열정은 스스로를 예술가 이전의 인간으로 회기시키고 그 벌거벗은 공성(空聲)에서 다시 삶의 현장에 놓인 인간을 발견하게 한다.

"바로 그 텅빈 곳에서 인간과 우주의 진리를 찾는 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108배 후 그림수행

곽씨가 들어선 텅빈 곳, 옹기의 빈 속에서 울리는 공명의 소리, 거기에 멈춰선 순간의 느낌이 진리를 깨우치는 구도자의 법열일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시각화한다는 것, 무정물을 통해 인간내면의 소리를 내게 하는것, 이 모두가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으니까요."

스스로 쉽지않은 일을 택한 순간부터 그는 이미 출가를 단행하는 싯타르타 태자의 결의를 배우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해인사를 찾아 새벽 바람을 호흡하며 108배를 했고 스님들을 과감히 작품속에 앉히는 것이다.

"수행자가 도달하는 곳이 깨달음의 본질을 가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곽씨는 수더분한 웃음을 내보이지만 작가적 열정만은 그 웃음 뒤켠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불교의 기원으로 소급되는 동양의 관념으로서 위대한 시기 한가운데 있는 인간의 유한한 생각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과씨의 작품을 분석한 미국의 미술평론가 수잔 파슨 박사도 이미 그의 예술 세계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무한의 정열을 들여다 본 것임에 트림없다.

인간의 유한한 생각을 인가의 무한한 감동으로 승화시키는 곽씨의 작업은 미술도 음악도 다 뛰어넘은 '언어도단'의 자리에서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원형질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곽씨는 강조했다.

"시간과 소리의 보이지 않는 형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임연태 기자〉



삽화·이기선

지수화풍 살리는 보살됩시다

숨통 좀 티워 주세요. 햇빛이 들어오게 조금 비껴 주세요.

숨막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는 살 수 없으므로 햇볕을 바란다. 막히지 않는 곳, 바람이 드나드는 곳, 이러한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사방 팔달로 훤히 열린 곳이 좋은 곳이다.

질식할 것 같은 환경

어둡고 막힌 곳 이러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트이고, 환한 곳을 찾아 나선다. 양택을 골라서 살려고 한다. 뒤에는 산이 아늑하게 에워싸고 앞에는 들판과 강이 흘러야 한다. 이러한 곳이 살만한 곳이다. 사람들은 역사이래로 이와같은 곳을 찾아 나섰다. 여기에는 이끄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사는데는 옛과 지금이 다를 바 없다. 매한가지다. 왜냐하면 사람은 목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이 사는데는 예나 지금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옛과 다르다. 환경이 파괴되었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버렸다.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면 주거환경에 변화가 온다. 파괴와 변화가 인간의 목숨을 질식시킨다. 지금 어디로 가도 숨을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기가 없다.

아니 목 마를때 마음껏 마실 물도 없다. 오염이라는 말이 범람하고 있다. 더럽다. 썩었다. 썩어 병들었다는 이러한 말들이 온 세상에 범벅이 되어있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가 막혀 버렸다는 뜻이다. 공기가 폐쇄된 곳에는 질식밖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자연과 환경의 문제다. 옛사람들은 자연은 절로 있는 상태로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자연을 짓주물러 썩어가는 환경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지나치게 된 것이다. 어느 정도의 말미를 주어야하는 여유를 주지 아니하여 일체의 물꼬을 막아 버렸다. 바람도 지나가야 만이 운동의 힘이 생기고 물도 흘러가면서 곤두박질하여야만 신선한 물맛이 있는데 바람도 한자리에 숨막히게 자고 있고, 물도 움짝달싹하지 않고 괴여 있으면 놋내가 난다.

지금 우리는 숨통이 트이고, 물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땅을 사랑하고 물을 아끼는 사람 불을 좋게 쓰는 사람, 바람을 옮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지수화풍을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수화풍, 이것은 별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부리고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지수화풍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지구는 앓고 있다. 땅이 병들고 있다. 물이 썩고 있다. 불이 귀신불이 되고 바람을 마음놓고 마실 수 없다. 왜인가. 지수화풍의 온 덩어리인 지구가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구를 누가 병들게 하였는가. 지구와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이 지구를 병들게 하였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㉑
환경파괴

사람과 자연 절대 공생관계

지구가 병들면 지방도 병들고 시도 군도 읍도 면도 모두가 병들게 된다. 면을 살리고, 읍·군·시·도를 살리는 사람이 한물씩 나오면 이 지구가 다시 되살아 나게 된다. 지·수·화·풍을 살리려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옛날 정치는 등 따습게 하고 배불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였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식량경제로 정치한다는것은 착각이다. 지금의 정치는 지구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身土不二라는 말은 우리 농산물에 집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자연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身은 사람, 土는 자연이라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아집이나 편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광활한 우주로 향진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지역을 사랑하면 지구를 사랑하여야 하고 나를 아끼면 남을 섬기는 마음도 낼줄 알아야 한다. 나라와 세계를 생각하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큰 사람이 바로 보살이며 대승적 행동인이다.

우주로 향진하는 마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아집의 협심증 환자가 남을 진단하고 있다. 제 병도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돌 볼 수 있는가.

밤에도 숨쉴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밤에는 강이나 산에 온갖 폐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身과 土를 구별짓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身과 土가 상응연기케하는 환경정화 보살이 나와야 한다.

한국불교 발전연구원

전국 순회 법회

◀1차 영남지역 (상반기)

부 산 4월 10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대 구 4월 11일 오후 2시 대구황제예식장
마 산 4월 13일 오후 2시 마산 올림픽 국민생활관
울 산 4월 14일 오후 2시 울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설법 및 강연

1부 • 월탄 큰스님(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 김용정 교수(한국불교 발전연구원 원장)
2부 • 공옥진 여사의 소리와 춤

◀ 주관 : 한국불교 발전연구원
◀ 주최 : 동국대학교 승가 총동문회
◀ 후원 :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법화종, 관음종, 일붕선교종

문의처: 한국불교 발전연구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전화:736-6202~4 팩스:736-6205

한국불교 발전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95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금번 제1차 전국순회법회는 한국불교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에 대비하고자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먼저 오늘날 한국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조명하고 참다운 신행생활의 요체는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참불자의 자세와 모습을 새롭게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순회법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열고자 하는 본 연구원의 목적 사업들을 사부대중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전국 불자님들의 성원과 동참의 욕을 제고코자 합니다.

신행통일 사원경제 불탑불화

봉축 학술행사 다채

동국대 문화연·불교학회등 7곳 준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한 학술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각 학술단체의 춘계학술행사와 맞물려 열리는 봉축 학술행사들은 예년에 보통 10여건 이상이 열렸으나, 올해는 그간 학술행사의 시기적인 편중에 대한 우려와 내실있는 학술연구를 위해 7건의 학술행사가 차분하게 준비 중에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은 '불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을 주제로 오는 5월4일 학술세미나를 갖고 불교신행을 학술적으로 점검한다. 권기종원장이 발제강연을 하고, 강건기교수(전북대)가 '한국불교의 신행형태', 채인환스님(동국대교수)이 '경전에 나타난 불교신행'을, 정병조교수(동국대)가 '불교신행의 새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5월20일 부산 천태종 삼광사에서 '53존불 조상(彫像)봉안 구층 팔면탑 조성의 사상사적 의의'를 주제로 춘계불교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서는 '53불 신앙과 천태종'(김영태), 법화경과 탑과 신앙'(이영자), '현존 다층탑신 조상 봉불의 사적 조명'(홍윤식), '구층및 다면탑의 한국불교사적 고찰'(최상식)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지난달 10일 창립한 중앙승가대 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영담)는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생산불교를 위해 '사원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4월26일 창립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원시불교의 생산관'(정인), '대승불교의 생산관'(곽만연), '한국불교 사원경제의 현황과 문제점'(김응철), '미래지향적 생산불교의 방향'(영담) 등이 발표된다.

미술의 해를 맞는 불교미술계도 봉축 학술회의를 마련한다. 동국미술인회(회장 허길용)는 4월25일 '불교미술 그 전통과 현대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석정스님의 '불화의 맥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최완수씨의 '한국전통미술의 특질' 등 5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한편 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법하)는 4월21일 조계사 문화관에서 '21세기 인류문명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새시대를 여는 불교의 역할을 조망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희섭 변호사가 '21세기 인류문명의 전망'을, 현응스님(해인사)이 '21세기 한국사회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이밖에 평불협(회장 월주)과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원장 혜남)도 봉축 학술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평불협은 초파일을 전후 북한불교연구소 창립기념행사의 하나로 '남북한의 불교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불전국역연구원은 21세기를 대비한 불전국역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21세기 종교의 역할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강연 송석구 총장

"21세기에 사회의 불교화, 세계의 불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교교리 자체에서 실천적 요소를 추출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집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송석구 동국대총장은 지난 달 28일 오후 5시20분 동국대 동국관에서 열린 불교대학원(원장 목정배) 주최 특별강연회에 참석, '21세기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시대 선도하는 실천신행 절실"

송총장은 "오늘날 사이비집단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기성종교가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는 증거"라며, "불교인이 〈보현행원품〉의 10대 행원등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 자연환경 보존 등에 모범을 보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총장은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교병원 설립, 화장(火葬)운동, 복지재단 양성, 교육사업 확충 등을 들었다.

한국종교협 조찬 강연 윤이흠 교수

"21세기에 종교가 당면한 과제는 도덕적 재건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종교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윤이흠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지난 25일 오전 8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열룸에서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주최 종교인 조찬연구회에 참석, '21세기에 당면할 종교의 과제'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교수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미신과

도덕적 권위회복이 당면과제

종교의 구분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면서 종교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며, "한국사회도 85년을 기점으로 종교인구의 급성장이 둔화되기 시작, 90년도부터는 종교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향후 21세기를 5년 앞두고 종교인이 도덕 재건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의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9월 불회사에서 출토된 석조나한상 머리부.

불회사 나한상 "인위적 훼손"

'미술자료' 54호서 최응천씨 주장

지난해 9월 전남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 불회사에서 발굴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오백나한상이 인위적인 훼손으로 파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한 〈미술자료〉 제54호에 최응천 학예연구관(국립중앙박물관)이 게재한 '불회사 나한상 출토유적 발굴조사 보고'를 통해 제기된 것.

최씨는 보고서를 통해 "석조 나한상편은 응회암(凝灰岩)을 재질로 한 5백나한의 일부였다는 점과 유물에 보이는 인위적인 손상이나 타격흔 등으로 미루어 이들을 한꺼번에 파괴시켜 묻어버렸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확술단신

미륵사상 본질 분석
한국사상사학 6집

한국사상사학회(회장 박성봉)는 '미륵사상의 본질과 전개'를 주제로 김상룡박사 고희기념 특집 〈한국사상사학〉 제6집을 발간했다.

'불교 복지 논총' 창간호
승가대 복지학회 발간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학회(회장 혜용)는 불교복지의 확장과 학문적 정립을 위한 학회지 '불교 복지 논총'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번 논총에는 교수논단으로 혜도스님의 '호스피스에 대해서', 김응철교수의 '사회복지원조의 전문성 제고방향에 관하여', 조성희교수의 '21세기를 대비하는 불교복지의 방향'을 비롯, 정법, 혜용, 혜문스님의 학인논단, 견휴, 일화스님의 졸업생논단이 수록돼 있다.

문화유산개발 심포지엄
전남발전연구원

'광주·전남의 문화유산과 개발방안 심포지엄'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전남발전연구원 주최로 연구원4층 회의실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최협교수(전남대)와 이종인 연구실장(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광주·전남의 문화유산과 잠재력', '광주·전남의 문화산업 육성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보장전〉
七重寶樹圍金界
(칠중보수위금계)
一點閒燈伴白雲
(일편한등반백운)
簇簇法雲生片刹
(족족법운생편찰)
非非花雨散諸峰
(비비화우산제봉)
已無踪跡到人間
(이무종적도인간)

해인사

却指容顔非我相
(각지용안비아상)
香裊金爐花放鉢
(향뇨금로화방발)
海日蟠桃開壽域
(해일반도개수역)

칠겁보수가 극락세계를 에워싸고
일점 한등이 백운과 짝하네
뭉게뭉게 법운은 편찰을 지어내고
부슬부슬 꽃비 산봉우리마다 흩날린다.
인간에 머문 자취가 끊어져서
이제는 이 얼굴도 내 모습이 아니라네
향연기 금로에서 피어오르고 꽃송이 발우에 만발한데
해일 천도복숭아로 수역을 열었다.

해설 좀 어려운 내용의 글이다. 찬찬히 음미하여 그 뜻을 갈무리 해 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보장전의 위엄과 장엄한 분위기를 주련도 갖고 있는 듯하다.

위없는 불법(佛法)의 탐구도 따지고보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조각을 더듬어 보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진리란 읽고 배워서 알기 이전에 이미 내게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원군의 글씨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 귀절들 역시 발우에 만발한 꽃같은 진리의 터득이 주는 기쁨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기쁨 이전의 기쁨을 찾아 우리는 정진해야 할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진리 터득이 주는 기쁨노래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과학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요

문 스님께서는 과학과 종교를 별개의 차원으로 보지 않으시고 대신 심성과학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것은 '과학의 발달이 결국 종교적인 차원에 다다르게 된다'는 뜻인지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박한남)

답 과학이라는 말, 종교라는 말은 다 이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과학이고, 어디서부터는 종교다 라고 구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령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대로 과학이라 한다면 틀린 말일까요?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가르침의 실천이라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요?

생활과 과학이 별개가 아니고 생활과 종교가 따로따로일 수 없듯이 과학과 종교도 둘이 아닙니다. 다만 구태여 구분해서 말한다면 과학은 물질세계의 부분부분을 알아내려는 노력이고 종교는 전체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과거에 인간이 모르던 것을 지금은 꽤나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개구리 알 하나가 깨어 올챙이가 되고 다시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요즘 과학이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서 과학의 힘을 빌어 천리 밖의 것을 보고, 천리 밖의 것을 앉아서 듣게 되었지만, 또 망원경이나 광통신이다 핵과학이다, 나날이 발전한다고 하지만 과학자들의 말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간파하려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도리를 통해야 합니다.

일체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로서 나오기 이전을 알아야 전체를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보이는 세계 50%, 안보이는 세계 50%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전체를 알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보이는 세계 50%를 다 알수 없을 것이고 일체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안보이는 마음의 세계를 간파해야 전체의 비밀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체만법의 진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도리를 아는 것이 곧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요, 그 자체를 이름하여 과학이라 할 수 있으니 심성과학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마음의 도리를 설파하여 믿으라고 한 것이니 과학과 종교를 따로 떼어 놓는다면 과학도 반쪽 과학일 수 밖에 없고 종교도 절름발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인공에 놓는법을 잘 모르는데

문 스님의 지상법문을 열심히 읽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라」하시는데 놓는다는 것이 좀체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이인용)

답 늘 말하지만 일체는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게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체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매사에 착을 두고 욕심을 부리고, '내로다' 하니까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놓고 가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걷고 있다고 할 때 방금 떼어놓은 발자취를 의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요! 또 끊임없이 망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또 꼬리를 잇고 나왔다가는 사라지고 하지요! 그때마다 그 망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따지려 합니까? 따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지요.

또 우리들의 몸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찰나도 쉬지 않고 몸 속의 기관, 세포들이 활동하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을 일일히 다 의식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또 살면서 때로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금새 아들이 되고, 돌아서면 남편이 되고 하지요. 그걸 일일히 다 의식하면서 이 뭐꼬? 하면서 삽니까? 아니지요. 일체 만물은 다 그렇게 잠시도 쉬거나 머이지 않은 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돌고 도는 그 이치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내 육신이 그토록 오묘하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것은 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모르겠거든 숨을 들이쉬고 내 쉬는 것은 누가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나깨나, 이 일하고 저 일하는 동안에도 자동적으로 들이고 내는 그 동작을 내가 일일히 의식하고 있던가요?

억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어 왔고, 지금 이순간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이야 무엇이 되었든, 장본인이라 하든, 주체라 하든, 자성이라 하든, 공이라 하든 다 좋습니다. 주인공, 빌 공(空)자 주인공이라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니까 그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쓴다는 게 그만 또 걸리는 결과가 되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를 놓아라,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믿는 것이 진짜 놓는 것입니다.

1995 삼화불교대학 통신생 모집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 각과 주간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자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 별 전 형
불 교 학 과	2년	• 야간 20명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 출가희망자
	4년	• 통신 2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 통신 20명 • 주간 3명		
중 국 어 과	2년	• 야간 20명 • 주간 5명		
불교미술과	2년	• 주간 3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 통신 20명 • 주간 5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 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 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4월 7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511-2026~8, 511-1080)

주소 : 우편번호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수요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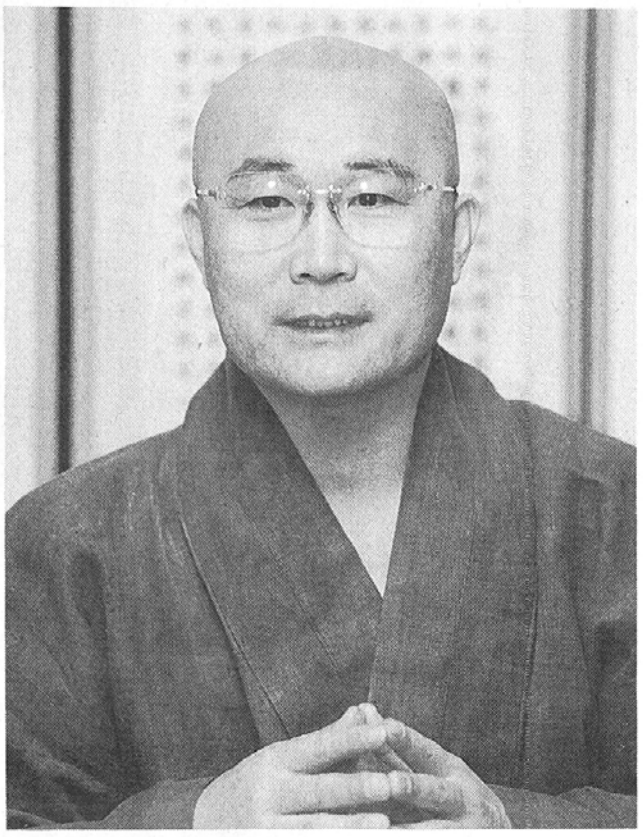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씨앗을…"

평화통일 기원 '천수천안 관음송가' 공연 지원스님

93년 5월 14일 제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첫막을 터뜨린 「민족통일기원 한라에서 백두까지 천수천안 관음송가 대합창제」가 일곱번의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는 8일 대회향의 자리를 마련한다.

제주, 속초, 창원, 부산, 대구, 대전, 백두산천지에 이어 광복50주년을 기념하며 민족통일의 염원을 다시금 새기기 위해 열리는 「천수천안관음송가」는 삼보사 합창단에 의해 공연된다. 「천수천안관음송가」의 가사를 쓰고 공연 전반을 이끌고 있는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을 공연 연습이 한창인 삼보사에서 만났다.

—공연을 앞두고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공연의 의미도 함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보살 가피 염원

▲이미 일곱번의 순회공연을 해 온 경험이 있어서인지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열의도 대단하고요. 무엇보다 「천수천안관음송가」의 공연은 불교음악의 발전과 통일의 염원을 재확인한다는 두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형 합창곡을 지방 순회공연함으로 불교음악의 질적, 양적인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음악포교의 차원 높이기에 대한 가능성 확인이란 중요한 결실도 포함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또하나 중요한 의미로 꼽히는 통일염원의 확인이란 점은 통일을 갈망하는 전국민의 발원을 한데로 어우르게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화평한 음악으로 염원한다는 것. 거기에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염원하는 간절함이 합쳐지는 무대여서 더욱 뜻이 깊은 것입니다.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남누리 북누리에 통일의 염원을 노래로 심는다는 것도 중요한 불사입니다.

—이같은 대형 공연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텐데 그간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재작년(93년) 첫 무대를 올린 이후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더러 사정이 넉넉치 않아 좌절의 분위기까지도 맛보았으나 단원들과 신도들이 합심해 더 좋은 무대 만들기에 힘을 모았습니다. 첫 무대가 막 올린 93년은 삼보사 창건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의 다져진 힘이 이같은 무대불사를 창출해 낸 셈이고 그 원력이 오늘까지 연꽃처럼 거푸거푸 피어나는 것이지요.

—음악을 통한 포교 효과에 대한 스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중과 마음 교감

▲가장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포교는 대중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중 속에서 그들과 흥을 나누며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것이 음악포교밖에 더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통한 불교문화발전과 포교의 마당 넓히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스님께서는 도심포교당을 매우 성공적으로 일구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데요. 우리 불교계의 포교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주하는 포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승가의 의식개혁과 적극성도 필요하고 재가 포교사의 질적인 향상과 활동의 전문화등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감안한 제도적장치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력이 우선 정착돼야 하겠지요. 또한 법요집과 찬불가등도 용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통일돼야 합니다.

—종단이나 포교원과 같은 기관에서도 포교의 방향타를 잘 잡아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선 사찰과 포교당에서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언제나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삶의 현장으로 파고 드는 포교라야 성공할 수 있고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개별 사찰에서도 포교불사에 매진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 기르고 그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겨야 합니다. 승가가 할 일과 재가 포교사의 몫을 잘 나눠야 해요. 주지스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잠시 얘기가 포교쪽으로 기울어 졌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음악포교의 원력을 세우셨고 그 결실도 이런 공연을 통해 보여 주시는데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도 있으실 줄 압니다.

▲거대한 조직을 하나 꾸리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내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가칭 「범민족 평화통일 불교문화교류 연합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교합창단과 해외 교민·불자들의 합창단을 한데 묶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음악의 질적 양적 발전을 이끌어 가고 또 민족 통일의 씨앗을 어우러진 목소리로 피워 보려는 겁니다. 현재 전문가들과 만나며 조직의 결성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입 단체를 모으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같은 단체가 결성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동질성 회복 불사

▲궁극적으로 불교문화발전과 통일의 실현을 위한 행사도 갖게되고 관련 연구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주민들과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함께 깨닫고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음악을 통한 교감이 필요할 것이고요.

현재까지 70% 정도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더 윤곽이 잡히고 알맹이가 생긴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불자들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어려운 여건속에서 큰 일을 꾸려 나가시는 스님께서 문화포교 단체들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충분히 쌓아가고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그 순수성이 필요합니다. 허망한 이권을 염두에 두면 음악이건 미술이건 문학이건 문화포교는 알맹이가 썩게 되니까요.

〈임연태 기자〉

"이권 염두에 두면 문화포교불사 알맹이 썩어"

단원들 열의 대단…'범민족 불교합창단' 추진도

나의 수행일기



정천구 〈인천대 대학원장〉

새벽 4시를 알리는 괘종시계가 울린지도 얼마가 지났다. 이제는 일어나야지 하면서 입속에서 '미륵존여래불'을 얼마간 염송해 본다. 부처님의 호흡법에 따라 깊고 고르게 날숨과 들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일어나 시간을 보니 벌써 4시20분이 되었다.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불보살님이 설법을 하신다는 3시, 4시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요즈음은 방학을 핑계삼아 늦기 일쑤이다. 그래도 오늘은 크게 늦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합장하고 원을 세운다. 우선 다시 잠들지 말고 공부를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금강경 잘 읽어서 부처님 잘 모시기 발원" 해 본다. 공부도 "내가 잘 해야지" 하고 마음이 앞서면 탐심이요, "공부가 왜 안되지" 하고 조바심을 내면 진심(성내는 마음)이며, "이젠 공부가 잘 되는군"하고 자만심을 내면 치심(어리석은 마음)이다. 탐진치를 내지 않는 것이 불교공부이니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잘하겠다 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이 잘하기를 부처님께 발원하는 것이다.

원을 세우고 나니 어느새 잠자리에서 벗어나 양치질과 세면 등으로 몸을 가다듬고 공부방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부처님' 하는 마음에 대고 세번 절을 드린다음 반가부좌로 앉아 금강경을 독송한다. 독송이 끝나면 오늘의 원을 세우고 '미륵존여래불' 염송을 한다음, 잠시 그대로 앉아 얼마간 호흡을 조정한다. 다음에 몸을 풀고 기혈의 유통을 원활히 해주는 몇가지 운동을 하고 목욕을 한다.

"탐진치 내지 말자" 항상 발원

20년전 백성욱 박사 지도받아…매일 금강경 독송



금강경 독송에 의한 이와같은 수행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은 백성욱 선생님이시다. 내가 백선생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2십여년전 고려대 대학원에 재학하던 시절이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총장을 그만두신 다음 경기도 부천의 소사(素沙)에서 백성목장을 운영하시면서 인연있는 중생을 제도하고 계셨다.

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통적 가정처럼 집안에서 일년에 한 두번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불교적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정식으로 불교에 입문한 것은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3학년때 학교에 불교학생회가 생겨 거기에 참여하고 나서였다. 그후 조계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청년회 법회에 참여했고, 법우들과 함께 수계를 하고 법명도 받았다. 이러한 인연속에서 다시 백선생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나날의 생활속에서 체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선생님에 의하면 금강경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도 가장 밝은 최고의 가르침을 갈무리해 놓은 경전으로서 금강경 독송은 불교수행의 기본이 된다. 금강경을 읽으면 부처님의 밝은 기운과 읽는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되고 밝은 지혜가 난다. 따라서 불교를 신행하는데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고, 경소에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이 달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금강경 읽고 경소에는 보고 듣는 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고 '부처님' 하든지, '미륵존여래불' 해서 부처님께 바친다.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넣어 두면 업이 되고 괴로움의 씨앗이 되지만, 부처님께 바치면 업장이 소멸되어 밝고 씩씩해진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마음속에 쌓이기 쉬운 생활의 찌꺼기들이 해소되어 정신이 건강해진다. 뿐만아니라 세포의 신진대사에 좋은 영향을 주어 일주일만 계속 금강경을 독송해도 피부가 고와지고 소화가 촉진되는 등 육체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정신과 육체가 완전하게 건강하신 분이 부처님인데 금강경공부로 그분의 밝은 기운을 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수행이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해서는 온전한 수행이 못된다. 그것은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는 것은 더욱 맞지 않는 말이다. 마음은 원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네 마음, 중생의 마음을 따질 것 없이 모두 부처님께 바쳐 제도를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 공부로 자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주위가 밝아지고, 주위가 밝아지면 온세계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금강경을 읽는다. 아침에 읽는 경이 활기있는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자기전의 금강경 독송은 조용하고 건강한 잠을 예상하는 것이다. 지금 나의 귀에는 선생님께서 우리들을 접견하실 때 합장하시며 발원해 주시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 하다.

'95 대원불교대학 총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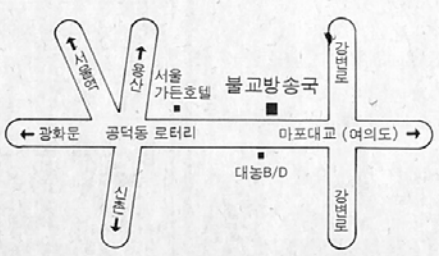
귀위 삼보하옵고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부처님전에 기원하오며
다음과 같이 **'95 대원불교대학 총동문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왕림하시어 오랫동안 잊혀졌던 동문들과 만나 묵혀 두었던
옛추억, 한잔의 차, 그리고 한국 불교의 미래와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1995년 3월

대원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장 안 진 수 합장

일시
1995년 4월 8일 (토) 14:00

장소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불교방송국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 일반버스 3, 30, 30-1, 37, 48, 70, 112, 119, 123, 133-2, 135-1, 145, 302, 522
- 좌석버스 54, 60, 61, 63, 67, 72-1, 703, 704, 718, 720, 753
- 마포 서울가든호텔 앞 정류장 하차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펴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얼과 문화, 페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8〉

永明智覺壽禪師垂誡(영명지각수선사수계) ②

饒彌縑得到此田地 亦未可順女意任
요이련득도차전지 역미가순여의재
直待證無量聖身 始可行世間逆順事
직대증무량성신 시가행세간역순사
古聖施設 豈有他心
고성시설 기유타심
只爲末法僧尼 少持禁戒
지위말법승니 소지금계
恐雖地向善俗子 多退道心
공잡타향선속자 다퇴도심
所以 廣行慫護
소이 광행차호
千經所說 萬論所陳
천경소설 만론소진
若不去婬 斷一切婬淨種
약불거음 단일체청정종
若不去酒 斷一切酒慧種
약불거주 단일체지혜종
若不去盜 斷一切福德種
若不去肉 斷一切慈悲種
약불거육 단일체자비종

자를 끊고
만약 고기를 버리지 않으면 일체의 자비종자를 끊는다고 하였다.

三世諸佛 同口敷宣 天下禪宗 一音演暢
삼세제불 동구부선 천하선종 일음연창
如何後學 略不聽從 自毁正因 反行魔說
여하후학 략불청종 자훼정인 반행마설
只爲疱羹業種 生遇牙師
지위숙훈업종 생우사사
善力 易消 惡根 難拔
선력 이소 악근 난발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널리 밝히시며 천하선종이 한 목소리로 펼치셨거늘
어찌하여 후학들은 귀기울여 따르지 않고 스스로 부처될 종자를 훼손하며 반대로 마구니 소리를 지껄이는가.
다만 숙세에 익힌 업력으로 태어나서는 삿된 스승을 만나면 선업의 힘은 쉽게 소멸되고 악의 뿌리는 배어 버리기 어려울새,

음심 버리지 않으면 청정종자 끊고
술을 버리지않으면 지혜종자 끊고
도둑질 버리지 않으면 복덕종자 끊고
고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비종자 끊는다

豈不見 古聖 道
기불견 고성 도
見一魔事 如萬箭攢心
견일마사 여만전찬심
聞一魔聲 如千錐鑽耳
문일마성 여천추답이
速須遠離 不可見聞
속수원리 불가견문
各自究心 愼莫容易
각자구심 신막용이

그대의 갈고 닦음이 넉넉하여 이러한 경지(오계에 걸림없는 경지)에 이를지라도 또한 가히 너의 뜻에 두지말 것이니
무량성신(천백억 나툼의 경지)을 바로 증득함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세간의 일을 거스르던 따르던 걸림이 없다고 할 수 있느니라.
옛 성인의 가르치심이 어찌 (이것 이외에) 다른 마음자리를 이름이겠는가.
단지 말법시대의 승니가 약간의 금계를 지녀 향하는 것으로써
저 착하게 살려는 속인들을 속여 도심을 뒷걸음치게 하는 바 를까 두려우매
그런 고로 널리 막행을 막아 (계를) 지키고자 하신 것이니
수천 경전에 설해진 바와 수많은 논장에서 개진된 바에는
만약 음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일체의 청정종자를 끊는게 된다 하였고
만약 술을 버리지 않으면 일체의 지혜종자를 끊고
만약 도둑질을 버리지 않으면 일체의 복덕종자를 끊고
만약 고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비종자 끊는다

어찌 보지 못하는가. 옛 성인이 이르되
한번 마구니의 일을 보는 것을 만개의 화살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이하고
한번 마구니의 소리를 듣는 것을 천개의 송곳이 귀를 찌르는 것같이 하라 하였으니
모름지기 속히 멀리 여의어 보지도 듣지도 말 것이며
스스로 각자 마음을 참구하되 삼가 쉽다 하지말라.

龍眼

★ 지상법석

"八正道 생활하면

서암스님 〈前 조계종 종정〉



약력
- 1912. 경북 풍기 生
- 35년 화산스님 은사로 출가
- 일본대 종교학과 졸업
- 해인사 · 김용사등서 40안거 성만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9대 종정 역임

행복은 바깥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은 자기 마음 속에서 찾아야지 바깥 경계에서 찾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디를 가도 괴롭고 우울하고 명랑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바깥에 구름이 끼었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을 깨치라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을 깨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자기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의혹 투성입니다. 우리들의 괴로움은 보통 이 몸을 기준으로해서 사는 토대에서 생깁니다. 몸이 편안하고 몸이 만족하고 몸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 찌뿌둥하고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뿌리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근본도 모르면서 몸이 움직이는 것에 따르다 보니 괴로움이 생기지요. 결국 자신의 문제로 초점이 돌아갑니다. 근본자기를 알아버리면 자기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현상계가 전부 다 자기가 뿌린 씨라는 것을 알게 되요. 자기를 깨치지 못하면 중간에 일어난 자기 형태만 흐리멍텅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같고 쓸데없이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전부 자기가 뿌린 것이라 추호도 어긋남이 없다는 원리를 깨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가 뿌린 씨

깨치기 전에는 항상 회의를 느끼지요. 그런데 깨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누가 던져 주었겠습니까. 자기가 느끼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스스로 어떤 고민을 더하기도 하고 덜기도 합니다. 허공에 구름이 일어나듯이 그것이 금방 없다 있다 있다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흐리멍텅하다 이겁니다. 있으면 영원히 있고 없으면 영원히 없어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초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을 모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내가 받고 있고, 그 고통은 자기가 뿌린 씨앗으로서 추호도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은 팔정도(八正道)를 행함으로써 없어지지요.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精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正定)의 팔정도는 모두 바른 행으로써 자기의 초점을 알아내는 수행이지요.

팔정도의 생활을 하면 자연히 내 마음이 밝아져 고통의 그물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집멸도(苦集滅道)를 말하는 사제법(四諦法)이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씹어 먹듯이 자꾸 부연해 이야기 하면 자기 문제에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그 자기 자리에서 초점이 되어 천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苦)도 사람의 모양처럼 짙은 고, 엷은 고가 있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 고를 느끼는 사람을 중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흐리멍텅한 존재이지요.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고통도 천차만별로 느끼고 자기가 행복되게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불행한 구덩이로 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팔정도를 행해서 바르게 살 때, 삶의 이치가 순응해서 삶도 바르게 다가오는 것이고 자기의 어떠한 고통도 극복할 수 있고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급한데 언제 팔정도를 닦고 있느냐 뒤든지 갖다 쓰자 이겁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모르고 생활을 하다보면 결국은 인생이 부러지고 자기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원리를 이용해서 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고기 덩어리 이 상태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 자리는 불생불멸합니다. 사람이 고기 덩어리인 이 몸은 죽어도 그 생명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그 자리만 떠나버리면 돌덩어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모양없는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모양이 없으니 죽을 수도 없고 또한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우주 법계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없어질 수도 없어요.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없어지고, 이 지구도 몇억년 지나면 마멸하여 없어지지요. 그러나 우리 생명자리는 고양이 없으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모양없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도 그 자리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밤에도 이 육체는 물불 잠을 자도 그 자리는 꿈을

철사와 풀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홍법등

홍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홍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홍법등은 종전의 몸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역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일일히 풀발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홍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야외 장엄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일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 「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용신안:14461호
의장등록:38353호

홍법 장엄등 영 가 등



천도 광명등

연등 초벌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장씩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잎을 붙이던 방식을 연등초벌등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잎을 붙임

영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천도 등으로 걸지에 아미타불 변상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

천도 광명등 선망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걸지에 부모은중경의 그림과 경문을 사경

1분 완성 홍법등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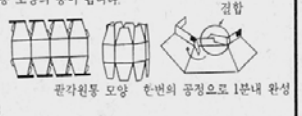
■종래방식



철골 구조 조립 후 낱장으로 된 8장의 걸지를 일일이 풀칠로 붙인 후 건조

■홍법등

이중으로 겹쳐서 공급합니다. 펼치면 팔각원통 모양의 등이 됩니다.



검합

팔각원통 모양 한번의 공정으로 1분내 완성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032)613-4027~8 팩스:(032)665-0965

이 세상에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염되고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활기를 얻고 힘찬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정토원은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자리한 사찰입니다. 특히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공기와 몸에 좋은 생수가 있는 곳입니다. 몸도 쉬어주고 걸어온 인생도 되돌아보며 사색하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양을 위한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장소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불광산 정토원

회비 1인 1실(1개월) — 200,000원

교통 (필요한 사람은 제공함)

■기차: 청량리역출발 ➡ 양동역 하차 (정토원까지 택시로 10분)
오전: 6시 50분 (비둘기호), 낮 12시 (통일호)
오후: 1시 (무궁화호) 3시 (통일호)

■고속버스: 강남 · 동서울 고속터미널 여주행 오전 6시부터 매 30분마다 출발

준비물 침구 및 세면도구 외 개인이 필요한 물품

문의전화 : 02)233-2500, 238-3285(금강정사)

검정고시(4월 · 8월 연 2회실시)

국졸 · 중졸 · 고졸

학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



72세 할머니가 배우지 못한 설움을 딛고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 · 고졸 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 배우고 싶어도 기회와 시간이 없어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해 마련된 절호의 기회!

국교졸업과정	한글반 · 회원 특별 모집
중학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제공
고교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녹음 TAPE」 제공
학위취득과정	• 1:1 개별 지도 「담임관리제」 제공
	• 「합격보장총정리 문제집」 제공

철저한 개인지도! 높은 「합격율」 보장!

★등록자격 : ① 개인사정으로 학습기회를 놓치신 분!
② 짧은 기간 내에 '졸업장'을 갖고 싶은 분!
③ 배우고 싶어도 기초부족 시간이 없는 분!
★졸업예정일 : 매년(4월, 8월) 2번 기회(★정부시험 기준)
★졸업후혜택 : 독학 학위 취득까지 특별관리합니다.
특전 : 기초(영어, 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졸업자 전원 장학 혜택부여

◈ 본원에서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 관리 · 지도합니다 ◈

95년 전원 졸업목표 ⇨「비디오 가정교사」 특별제공 (개인지도용)

축 62세 이정숙 할머니 고교입학자격 취득 영광
막노동하며 검정고시로 서울대합격 김진환 군
50세 씽둥이 자매 못 배운 한 검정고시로 합격의 영광!

신분비밀보장

한글반 특별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02) 766-9222

인간교육의 꿈을 실현하는
대한교육평가원(주)

지상법석

고통그물 벗어 납니다"

마음속 생각만 비우면
희로 애락에 걸리지 않고
자기 본 바탕 볼 수 있습 니다

꾸며 돌아다니지요. 방 안에 누워있는 자기는 완전히 잊어버리지요. 그런데 몸을 방안에 놓고 마음만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꿈에도 분명히 몸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누가 좋은 것 주면 먹고 목마르면 물마시고 미친 개나 누가 칼들고 쫓아오면 도망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 도망갈 필요도 없지요. 모양이 없는데 물릴 것도 없고 찔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도망간다 이겁니다. 깨어보면 속았지요. 몸은 방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모양이 없는 그것이 자기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자기를 망각해 버리고 백년 안쪽으로 살아가는 이 육체를 자기인 줄 알고 온갖 향락을 다하는 오욕락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힙니다.

육체를 근본으로 삼으니까 과거의 전생 다생한 영원한 자기 생명력을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척단구의 몸이 자기 전체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나자빠지며 정신없어 하지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인도에는 갠지스강가에 괴골이 상접한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앉아 청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육체를 떠나 자기 생명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도 남을 해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딱 앉아서 이 몸을 던져 쓰는 빛도 모양도 없는 자기 정신을 놓고 근본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수행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사람들은 육체를 본위로 살지 않고 인간의 진리를 본위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는 장면에도 헤매지 않고 당황하지 않지요. 이 몸이 자기가 아닌 줄을 벌써 알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년 인생을 목표로 사는게 아닙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을 갖고 나고 죽는 고통의 그물을 끊어버리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백년 사는 것도 바른 가르침으로 살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그걸 모르고 욕망에만 빠져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백년 인생도 점점 비참한 인생에 떨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전부 생각의 흐름입니다. 생각,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생각도 없을 때는 없습니다. 보통 중생의 세계에서는 무슨 생각이든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 생각도 안한다 해도 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다 쉬어버리지 못한 것이고 텅 비웠다 해도 비웠다는 생각 역시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자꾸 흐르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경계가 오고 기뻐할 때는 좋은 줄은 알지만 그것은 금방 꿈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또 어떠한 생각이 대신 밀어닥쳐 연신 붉은 생각, 푸른 생각, 흰 생각 온갖 생각이 난다 그 말이지요. 기쁜 생각 덤덤한 생각, 사랑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온갖 생각이 자기의 부처를 가리고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이지요. 그걸 두고 불교에서 똘똘 뭉쳐 말하기를 '염기염멸이 즉 생사다(念起念滅 卽生死).' 즉 생각 일으키고 생각 끊어지고 하는 그것이 나고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에 든다는 말은 무념(無念) 즉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생각이 없으면 돌덩어리나 나무뭉터기 마냥 아무 감각도 없이 허공같이 된다는 말로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생각입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는 생각으로 도저히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무정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 흘러가는 그런 머트러운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머트러운 생각이 없을 때 내 본래 참으로 흐림이 없는 본바탕인 마음의 고향이 있고, 일어나는 생각을 쉴 때는 본바탕의 빛이 비치고 있다 그겁니다. 아주 생각이 없이 무슨 허공처럼 무정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이상의 위대한 빛이 흐르고 아주 밝고 밝은 꺼지지 않는 참으로 불생불멸하는 자기의 본바탕을 본다 그겁니다. 이렇듯 자기 마음만 깨쳐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마음 깨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웃기면 웃을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도 평등해서 어디서나 성불할 수 있습니다. 머리깍고 중이 되어 청정하게 계행을 지키고 절에 있다고 해서 불교를 전매특허해서 무슨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설거사 같은 이를 보십시오. 도반 셋이 가다가 어떤 여인하고 인연을 만나서 마을에 들어앉아 농사짓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아도 먼저 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절에 간다고 꼭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법이 있지요. '이 뭣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울고 웃고 온갖 행동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누가 웃기면 웃고, 누가 부아돋구면 성내고, 추운 줄 알고 온갖 것 판단하는 그 핵심이 도대체 어떻게 된 물건인가? 이 뭣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불교를 뚫어내고 마음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불교지요.

종일 일을 하여 피곤하다 해도 세수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시간 작정해서 그동안 내가 잠은 덜 자지만 내 인생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마음먹고 딱 앉아서 '이 뭣고'를 붙잡고 화두를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망상에 덮여 잠못 이루고 뒤척이다보면 이 놈의 신경이 항상 활동을 하니까 신경이 피로해 질 수밖에요.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자도 항상 찌뿌둥한 게 잠이 맨날 부족하지요.

그런데 화두를 하고 자면 한 시간 두 시간 자다 일어나도 눈이 샛별 같고 아주 총명해진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배를 안하거든요. 자기 전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세수하고 다부지게 앉아서 '이 뭣고'를 하는 겁니다. '이 뭣고'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순전히 내 시간이다 이겁니다.

한 시간이고 얼마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하루 살아가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누가 부아를 질러도 거기에 말려들어가지 않아요. 늘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공부를 안한 사람은 조금만 거슬리는 소리를 해도 파르르하고 성을 내고, 서로 싸우고 친구간에도 의를 바꾸고, 부아가 되게 나면 아들딸 낳고 살아가는 부부간에도 우리 그만 갈라지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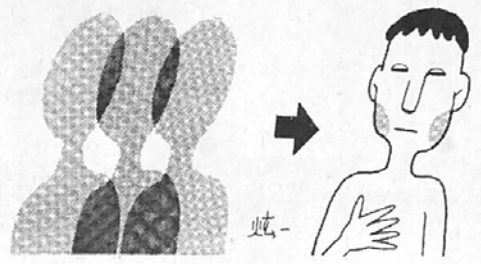
하는 일 마다 최선을

조그만 데 걸려가지고 아귀다툼하고 삽니다. 조금만 이 마음의 근본자리를 공부해 놓으면 누가 욕을 해도 허허 웃고 '아, 저 사람은 살아가는 세계가 저렇게 좁구나, 나도 공부하기 전에는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끄달렸지' 하고 오히려 동정이 가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요. 그만큼 자기 인생관의 폭이 넓어집니다. 내 마음자리가 본시 위대한데 천하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마음을 조그맣게 쓰기 때문에 항상 불행 속에 빠지는 겁니다. 화두를 하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넓게 쓰는 그런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 뭣고'를 하는 거지요.

항상 처음에는 잘 안됩니다. 그런데 안되는 게 되는 겁니다. 아예 공부를 안하면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망상이 일어나서 도무지 안된다' 고 해도 그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첫번에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어떤 때는 핸들도 부러뜨리고, 팔도 다치고, 무릎딱도 깨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집어던지면 평생 그 사람 자전거 못타는 겁니다.

첫번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자꾸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온갖 일을 해 가면서도 화두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부하는 쪽에 비중이 커지게 되면 이 세상 살이에 모두 구애를 받지 않고 공부가 익어가기 마련입니다. 뭐든지 일심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한 가지로 하면 뚫어지는 구멍은 마찬가집니다. 참선하는 이나 염불하는 이나 기도하는 이나 뭘하는 이나 일념으로 들어가면 뚫고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망상이란 구름을 헤치고 일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생은 오욕락 때문에 자기도 남도 괴롭혀
육체본위로 살면 영원한 생명의 빛 못만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㉑

양 형 진

연기로서의 나타남

우리는 지난 두번의 논의에서 연기와 공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모든 것이 인연이 화합하면 생하고 흩어지고 멸한다는 것을 무지개나 짠맛, 촉각 등의 예에서 살펴보았다. 물방울이나 소금물 매끄러운 표면은 그 자체가 스스로의 독립적인 본성 즉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색이 자성을 갖지 않는다는 색성공(色性空)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의 세계 즉 색이 자성이 없으면서도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실재 혹은 실유하는 줄로 알고 쫓아다니게 되며 집착하게 되니 이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한다. 이 무명이 모든 번뇌망상의 근본이 되니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무명을 끊고 일체고액에서 해탈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듯 연기와 공에 있어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오늘은 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보도록 하겠다.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에는 무지개의 자성이 없고 소금물에는 짜다는 자성이 없으며 매끄러운 표면에는 매끄럽다는 자성이 없지만 나에게 그것들이 무지개로 나타나고 짠 맛으로 나타나며 매끄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무지개의 경우 공기중의 물방울, 햇빛, 광학법칙 등의 여러가지 제요소가 연하여 무지개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며, 이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무지개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전의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다. 중아함경에서는 "마치 목재에 연하고 풀에 연하고 벽집에 연하고 피부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 어떤 때는 핸들도 부러뜨리고, 팔도 다치고, 무릎딱도 깨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집어던지면 평생 그 사람 자전거 못타는 겁니다.

첫번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자꾸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온갖 일을 해 가면서도 화두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부하는 쪽에 비중이 커지게 되면 이 세상 살이에 모두 구애를 받지 않고 공부가 익어가기 마련입니다. 뭐든지 일심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한 가지로 하면 뚫어지는 구멍은 마찬가집니다. 참선하는 이나 염불하는 이나 기도하는 이나 뭘하는 이나 일념으로 들어가면 뚫고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망상이란 구름을 헤치고 일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는 오직 인연성일 뿐이니 이를 연기라 하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즉 무자성공이요 색성공을 말함이다. 중론 제9장5게에서 용수보살은 이러한 상의상대(相依相待)의 연기설에 대하여 "원인이 없는 색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색에 국한된 어떤 것을 결코 분별사유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또한 뼈와 근육, 살, 피부, 공간 등의 제요소가 화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인연이 성립함으로써 '나'라는 신체가 나타나고 '나'라는 관념이 생겨나며 '나'라는 명칭이 생겨난다. 따라서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인연에 의해 나타났을 뿐이니 나의 존재 또한 무지개와 같이 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관적 요소인 인(人)이 공이고 무아이며 객관적인 요소인 일체법이 또한 공이고 무아이다. 따라서 인법 모두가 무아이며 무실체이니 이를 인법이무아(人法二無我) 혹은 인법이공(人法二空)이라고 한다. 이상의 논의에 대하여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성이 적정하다(7장16게)" "만일 존재자의 자성을 실유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존재자가 인연없이 존재한다

객관세계는 인연에 의존하는 '空' 일뿐
용수보살 중관설 현대물리학이론 상통

고 보는 것이 된다(24장16게)"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는 존재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24장19게)"

연기란 일체 존재가 원인의 화합에 의한 무상한 존재라는 일차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연기론이 의미하는 바를 이것만으로 한정한다면 연기론은 자연과학의 법칙과 같이 객관적인 원리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연기론은 물론 이 우주적 원리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이 인에 와서 부딪히면서 객관의 경계가 주관에 나타나고 관념과 명칭이 생기는 것까지를 연기론이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은 용수보살이 성립시킨 중관철학에서의 논의를 자연과학과 연관시켜 본 것이다. 용수보살은 부파불교의 실유론적 경향을 논파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중도의 진실한 뜻을 중관사상으로 펼쳐보였다. 이는 그 이후 대승불교 교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물리학의 제이론과 깊이 연관되는 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중관철학을 주로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자연에 대한 이해와 연관시켜 보았다.

다음에는 중관철학의 의미를 현대물리학의 제개념과 연관시켜 칼라멀, 승의제와 세속제, 무기, 진공 등의 의미를 계속하여 살펴보겠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불교성지순례

효도관광

태 국 5日
귀 일정: 방콕(아유타야 불교유적지, 새벽사원, 에메랄드 사원, 황금불사원, 대리석 사원, 왓포, 수상시장, 왕궁, 2박)-파타야(미니시암, 농눅빌리지, 산호섬, 2박)
귀 출발일: 4月 12, 13, 19, 20, 26, 27
5月 3, 4, 10, 11, 17, 18, 24, 25, 31
귀 동참금: ₩ 595,000

미얀마 · 태국 8日
귀 일정: 양곤(1박)-파간(쉬에지곤 탑, 마누하 사원, 1박)-만달레이(백만불사, 보디타타웅, 마하무니 파고다, 만달레이 힐, 2박)-양곤(쉐다곤 대탑, 까바에 파고다, 1박)-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 왓포, 황금 불사원, 대리석 사원, 수상시장, 2박)
귀 출발일: 4月 12, 19, 26 / 5月 3, 10, 17, 24, 31
귀 동참금: ₩ 1,400,000

인도 · 네팔 10日
귀 일정: 델리(붉은성, 간디 기념비, 2박)-아그라(타지마할, 1박)-카쥬라호(카쥬라호 사원, 1박)-바라나시(갠지스 강, 사르나트 박물관, 2박)-카트만두(티벳사원, 쿠마리 사원, 2박)-방콕(1박)
귀 출발일: 4月 14, 21, 28 / 5月 5, 12, 19, 26
귀 동참금: ₩ 1,990,000

대 만 4日, 5日
귀 일정: 일월담(1박)-고웅 · 불광사(1박)-화련(태로각, 장춘사, 1박)-타이페이(고궁 박물관, 충열사, 용산사 1박)
귀 출발일: 4月 11, 14, 18, 21, 25, 28
5月 2, 5, 9, 12, 16, 19, 23, 26, 30
귀 동참금: ₩ 530,000 (4日) ₩ 595,000 (5日)

스리랑카 6日
귀 일정: 콜롬보(강가라마 사원, 1박)-캔디(불치사, 1박)-하바라나(시기리아성, 풀론나루와, 1박)-마힌달레, 아누라다푸라(관광)-콜롬보(1박)-기내(1박)
귀 출발일: 4月 11, 18, 25 / 5月 2, 9, 16, 23, 30
귀 동참금: ₩ 1,070,000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9日
귀 일정: 카트만두(쿠마리 사원, 티벳사원, 2박)-델리(간디 기념비, 1박)-아그라(아그라성, 타지마할묘 1박)-기내(1박)-캔디(불치사, 풀론나루와, 1박)-콜롬보(1박))-방콕(에메랄드 사원)-기내(1박)
귀 출발일: 4月 15, 22, 29 / 5月 6, 13, 20, 27
귀 동참금: ₩ 1,895,000

방콕 · 파타야	5日 ₩ 569,000	방콕(1박)-파타야(2박)-기내(1박) 4月 / 6, 12, 13, 19, 20, 23, 26, 27 5月 / 3, 4, 10, 11, 17, 18, 24, 25, 31
방콕 · 푸켓	5日 ₩ 649,000	방콕(1박)-푸켓(3박)-기내(3박) 4月 / 12, 13, 19, 20, 26, 27 5月 / 3, 4, 10, 11, 17, 18, 24, 25, 31
동남아 3국	5日 ₩ 655,000	싱가폴(4박)-바탐 · 조호바루(관광) 4月 / 8, 10, 12, 14, 15, 17, 19, 21, 22, 24, 26, 28, 29 5月 / 1, 3, 5, 6, 8, 10, 12, 13, 15, 17, 19, 20, 22, 24, 26, 27, 29, 31
대만 · 화련	4日 ₩ 495,000	타이페이(2박)-화련(1박) 4月 / 8, 9, 12, 15, 16, 19, 22, 23, 26, 29, 30 5月 / 3, 6, 7, 10, 13, 14, 17, 20, 21, 24, 27, 28, 31
홍콩 · 마카오	4日 ₩ 529,000	홍콩(3박)-마카오(관광) 4月 / 11, 13, 18, 20, 25, 27 5月 / 2, 4, 9, 11, 16, 18, 23, 25, 30
홍콩 · 방콕 · 싱가폴	8日 ₩ 995,000	홍콩(2박)-마카오(관광)-방콕(1박)-파타야(2박)-싱가폴(2박) 4月 / 9, 16, 23, 30 5月 / 7, 14, 21, 28
방콕 · 푸켓 · 싱가폴	6日 ₩ 795,000	방콕(1박)-푸켓(2박)-싱가폴(1박) 4月 / 11, 18, 25 5月 / 2, 9, 16, 23, 30
화와이	5日 ₩ 699,000	호놀룰루(3박)-기내(1박) 4月 / 9, 12, 13, 15, 16, 19, 20, 22, 23, 26, 27, 29, 30 5月 / 3, 4, 6, 7, 10, 11, 13, 14, 17, 18, 20, 21, 24, 25, 27, 28, 31
지중해 일주	20日 ₩ 4,650,000	파리(1)-카사블랑카(2)-마리케리(관광)-탕기에르(1)-지브랄타(관광)-말라가(1)-그라나다 · 코르도바(관광)-세빌리아(1)-리스본(1)-마드리드(2)-바르셀로나(1)-아테네(1)-이스탄불(2)-예루살렘(2)-카이로(2)-욕소(1)-기내(1) 4月 / 15, 29 5月 / 6, 13, 27
중남미 일주	20日 ₩ 4,980,000	LA(1)-아카풀코(2)-멕시코시티(2)-리마(1)-쿠즈코(2)-리마(1)-상파울로(1)-이과수(2)-부에노스 아이레스(1)-리오데자네이로(2)-마나우스(2)-마에에이(1)-기내(1) 4月 / 16, 30 5月 / 14, 28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21세기를 지향하는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 817 호
☎ 732-3200 (代)

고은 불교 대하소설

무욕도 결사(結社)



22

새벽 축시(丑時)의 어둠은 그 어둠에 비례해서 별들이 힘차게 빛나고 있다.

누군가 이같은 새벽에 밖으로 나와 그런 별빛 아래 서 있게 되면 결코 그 별의 세상과 이 세상이 각각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미 그 별빛이 사람의 눈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 섬의 갈대정사에는 대웅전이 없다. 대웅전의 닷집도 있을 리 없다. 대웅전이 없으므로 수미단 불상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벽잠이 더욱 무섭게 몰려온다. 막대기 얻어맞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바쁘게 들린다.

아니 막대기 경책을 받기 위해서 졸음이 오는 만화가 고개를 내밀어 어깨를 때려달라 자청하기도 한다.

사흘째날의 밤이 가장 힘들었다. 꾸벅이는 사람이 늘어난다. 막대기소리가 밖의 캄캄한 파도소리 사이에 몇번씩 들린다.

이런 밤이 지난 나흘째는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다섯째날 막대기 경책이 바빠졌다.

여섯째날 눈을 뜨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다. 혼침(昏沈)에 빠진 것이다. 어느 쪽이 동쪽인지 드나드는 문 쪽인지 모르게 된다.

그러다가 결가부좌의 견고한 자세로도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고꾸라지기도 한다.

그야말로 인담이 혼자 건너와서 살고 있는 처소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그 뒤로 우녀가 오고 하나둘씩 사람이 오게 되어도 아직까지 불상을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수계식의 계단(戒壇)도 바깥의 너럭바위였던 것이다.

오직 한 사람 합두가 우녀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이곳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지요?"

"부처님이야 내 마음속에 계시니… 잘 때나 깰 때나 내가 곧 부처님이니… 어디 인담스님께 여쭈어보시기로 합시다… 정녕 모셔야 할 일이거든 돌의 어떤 받두렁에 박힌 석불이라도… 오래동안 비어둔 절에 남겨진 부처님 한 분이라도 업어오면 되겠지요"

새벽부터 아침 밥을 먹을 때까지의 좌선과 좌선 사이의 행선(行禪)이 있다. 아침부터 사시 공양까지도 마찬가지이다. 그 뒤로 저녁 약석(藥石)시간까지 내리닫이로 좌선이다.

저녁 예불 뒤 좌선이 이어져 자시(子時)가 되면 한밤중의 죽을 먹는다. 밤에 일하는 노동자가 밤참을 먹는 것처럼 철야 좌선하는 사람들에게도 밤참이 있는 것이다.

밤참 뒤 아주 잠깐동안 쉴 때 자칫하면 잠에 빠지기 쉽다.

다시 앉아있는데 조는 사람이 있으면 죽비(竹篦)대신 막대기를 든 동료로부터 어깨를 얻어맞는다. 그런데 8명의 남자는 2명의 여자 수행자의 좌선이 진지한 것에 따라 가려는 듯이 새삼 분발하였다.

첫날을 보낸 뒤 두번째날의 낮과 밤은 첫날보다 잘 되었다. 바늘을 가지고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했던 옛 선승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 중의 수원이 머리를 벽에 찧어 잠을 쫓았다. 눈꺼풀이 열 근도 넘게 묵직해진다.

그럴 때는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앉은 것이다.

살아있었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없애라(念起卽覺)

아무튼 7일동안의 용맹정진이 망상의 시간이거나 수마(睡魔)의 시간이거나를 막론하고 수행자에게 앉아있는 의지를 길러낸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방바닥 장판 때가 10년쯤 묻어나야 한다는 선방 속담이 있거니와 이 섬의 사람들도 그런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사흘이 지난 뒤 우녀가 함께 정진했던 갈대암자 큰방에 사람들을 모아서 말하였다.

"이제 우리 무욕도 수행자들은 한가지 뜻에 모였습니다. 일러 무욕도 결사(結社)를 이룩한 셈입니다. 이 결사로… 앞으로 3년을 지낸 뒤 우리는 저마다 맡은 일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굳은 결사를 어떤 술취한 코끼리의 힘으로도 흩어 버리지 못합니다"

인담이 그녀의 옆에서 말을 보탰다.

"금강불괴신(金剛不壞身)이 곧 결사의 심신입니다"

비록 우녀의 몇마디나 인담의 한 마디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실로 비장하였다. 특히 남각이라는 새 법명을 받은 남처사는 그가 섬을 몰래 달아나려다가 손목 하나를 잘린 터여서 그의 새삼스러운 결의는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더 처절할 정도였다. 금은 눈물방울을 몇번씩 떨어 뜨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무욕도의 결사는 이루어졌다.

그런데 수계식 때 미루어둔 연비(燃臂)

> *"한오리 거짓도 없이 진심으로 결사의 뜻에 복종하는 연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밤은 어느 세월보다 길고 깁니다" 횃불에 비친 얼굴들이 특별한 감격을 나타내고 있었다.*

말릴 겨를도 없거니와 그것을 모르는척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진리에의 사무치는 마음이 이같은 소중한 몸의 일부를 바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뒤로 중대한 구도(求道)의 결단에는 이러한 팔뚝을 자르는 비장한 행위가 살갗을 태우는 행위로 바뀌어 연비의 절차가 있게 되었다.

한갓 계율에 이 연비를 맞추기보다 결사의 밤 행사에 사용한 것이 극적이기까지 하였다.

어느 정도의 바닷바람이 어둠속에서 일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빽빽한 해송으로 에워쌓인 곳이라 바람이 차단되어 불길을 거의 어지럽히지 않았다.

불의 둘레에 열사람이 울타리가 벗겨진 말뚝처럼 서있었다. 우녀의 말 한마디가 그 불길 가운데 던져졌다.



그림 · 조향숙

"결사는 몸의 한쪽을 바쳐 온세상을 얻는 일"
7일 용맹정진후 열사람은 손가락 한마디씩을 불길속으로 넣으면서 고통을 견디는 동안…

일곱째날의 밤을 지냈다. 새벽 축시 드디어 7일동안의 철야 정진을 끝낸 것이다. 그동안 충혈되었던 만화와 남각의 눈도 어느새 밝아져 있었다.

이 정진 뒤 몇사람은 하루내내 잠 속에 빠져있었다. 합두가 힘들게한 밥도 거의 남아 있었다.

우녀도 한나절을 잠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예성강 갈대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인담에게 말하는 우녀는 어느 때보다 수행자의 아주 밝은 얼굴로 되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니승 합두는 이번의 첫 정진이 여간 어려운 고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떻게 7일이 지나갔는지 그 7일동안의 철야가 아주 먼 과거를 다 채우고 있는 악몽처럼 여겨졌다.

화두를 든 좌선이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일제(臨濟) 이전의 묵조선(默照禪)이었다. 그러나 묵묵히 앉아 있다고 해서 허망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묵조에도 의단(疑團)의 길(獨路)이 절차가 남았다.

그동안의 정진 끝에 결사를 선언한 그날밤 섬의 사람들은 전부 파도소리를 등지고 섬의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미 그 꼭대기 밀의 움막 정사(精舍)에는 무전과 파현 수원들이 가서 산꼭대기 바위 위에 소나무가지를 잘라 둘러놓았고 횃불도 서너개 마련하였다.

흔히 수계식의 참회와 새로운 서원(誓願)을 표상하는 연비를 미루어둔 것은 우녀의 뜻이었다. 그녀는 결사의 밤을 더욱 뜻 깊게 하기 위해서 연비를 늦추었던 것이다.

하지만 초의 심지도막이나 팔뚝의 살갗에 붙여 살잘 한 군데를 태우는 정도의 연비가 아니라 손가락 일부분을 손톱채 산꼭대기 불구덩이에 넣어 지져 없애는 연비였다.

본래 연비의 연원은 우선 달마를 만난 혜가에게서 비롯되는지도 모른다. 달마가 거들떠보지도 않자 해가는 그의 왼쪽 팔뚝을 잘라 스승 앞에 바친 것이다. 실로

"결사는 먼저 몸의 한 쪽을 바쳐 온 세상을 얻는 일입니다. 자아"

다만 이것뿐이었다. 고려 무신란(武臣亂) 시절 보조의 정혜결사문과 같은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런 규모에 해당하는 말을 이어간 것도 아니었다. 아니 천태종의 요세(了世)가 주도했던 백련결사문(白蓮結社文)의 내용도 이어받지 않았다.

다만 무욕도 결사문은 말 한 마디뿐이었다.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어리로 삼켜진 것이다.

우녀에 이어 인담 합두 만화들의 순서로 손가락 한 마디씩을 더욱 힘을 내는 불길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 고통을 지긋이 견디는 한동안을 지나면 손가락 하나는 지글지글 불에 타서 나병환자의 그것처럼 되는 것이었다.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풍겼으나 그 냄새도 불길을 따라 허공의 어둠 속으로 빨려져 나갔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각의 차례가 왔다. 인담이 남각 옆으로 가서 그의 연비를 제지하였다.

"됐오. 남각은 이미 연비를 마친 것이오"

그 말은 만화에 의해서 손목이 잘린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남각은 인담의 제지를 무릎쓰고 성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불길에 집어넣었다. 그 행위가 너무 격렬해서 새끼손가락 이외에도 무명지 끝가지 타버린 것이다.

우녀가 말하였다.

"이제 이 결사의 밤을 마쳤습니다. 내일이라도 이 결사를 없었던 일로 하고 이 섬을 떠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밤 우리에게는 한오리 거짓도 없이 진심으로 결사의 뜻에 복종하는 연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밤은 어느 세월보다 길고 깁니다"

이 말에 수원 수월이 흐득흐득 울었다. 이어서 파현들도 울음을 터뜨렸다. 남자의 그 굵은 울음소리가 좀 약해진 불길에 던져지는 일은 사뭇 비장한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을 참은 자의 열정이기도 하였다.

이상한 일인 것은, 우녀의 말 한마디 한 마디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일찌기 예성강 하류에서 실성한 남자로 머리에 이가 득실거리고 검불이 묻어나는 밑바닥 신세였다가 팔려오는 것을 인담이 사들인 바였다.

그런 여자가 섬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느 공부보다 죽 익은 공부를 한 수행의 농염한 경지를 구사하고 있게 된 것이었다.

아니 그녀의 말 한 마디가 이곳 남자들의 그 누구도 조복(調伏)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신의 고조된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횃불에 비친 얼굴들이 특별한 감격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감격은 연비로 인한 통증을 꿋꿋이 참아내는 힘을 낳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한 가운데의 불길이 가라 앉았다. 합두가 횃불 하나 하나를 불길에 던져 그것들마저 껴져갔다.

"내려갑시다"라고 우녀가 그 합두에게 말하였다. 두 여자가 먼저 어둠 속의 길을 내려갔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조문객 -접대음식- 육개장 · 대구탕 外 종어회 · 전유어 · 묵어뜸 등 이조과방 924-9211 925-4961 소모품 제공 · 봉사요원 파견

연꽃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8-3933 (자택)934-1748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단청 · 불상 · 탱화 · 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7-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 · 병풍 및 액자화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 지방 · 외국 어디나 그림만 보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02)3273-0081 온라인: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 · 소태,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9-2450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 · 변비 · 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30-9372~3 ·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보기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02)556-3076~7 ■팩스:(02)556-3078

윤 조각실(불교미술) ■부처님 조성 ■청동불 조성 ■대불조성 ■천불전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경영간부 특별초빙 당사는 그룹매출 6천억 규모의 중견그룹 계열사로 해외수출 및 내수시장의 급신장으로 인한 96년도 사업확장에 따라 최고의 보수와 대우로 경영일선을 책임질 성실한 간부인력을 특별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단축경영책임자	○○명	• 연령 40~54세 고졸 이상 • 개인사업 3년 이상 경험자 • 자금 및 세무사칭 회사지원
간부사원	○○명	• 연령 37~48세 초대졸 이상 • 기업경영업무 경험자 • 상기업체 7년 이상 경력자 • 보석상품으로 관리 기획분야 경험자 • 영문장교 출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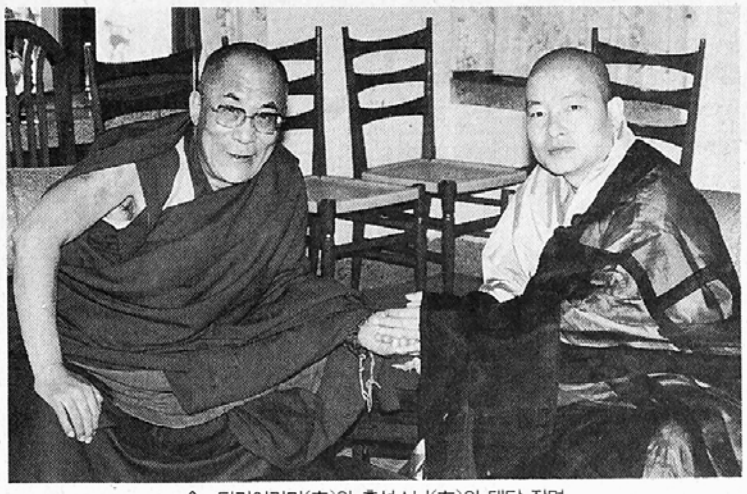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3.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4. 문의 : 서울 554-4449

(주)웅진코웨이 김대원 556-6897

홍선스님이 인도에서 만난 달라이라마

"불살생·비폭력은 인간성회복 지름길"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인권·환경문제 해결해야



◇ 달라이라마(左)와 홍선스님(右)의 대담 장면.

○ …… 한국티벳 불교친선협의회 회장 홍선 스님이 달라이라마의 초청으로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인도·티벳지역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스님은 인도북부 지역 달람살림에 위치한 왕궁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나 대담했다. 〈편집자 주〉 ……○

– 한국의 불교계 지도자들은 '티벳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티벳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인도 중국이란 강대국 사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일 티벳에 평화가 계속 되었더라면 티벳은 아시아의 주변 나라들에게 협력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기지로 변해 주변 나라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의 불교도들이 티벳의 고통스런 현실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티벳의 자유는 불교의 가르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불교의 수 많은 유산들이 상처를 입고 있으며, 내지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의 불교도들이 티벳에 보여주고 있는 관심과 협조는 시의 적절한 것이며 이성적인 자세라 봅니다. 모두가 불국정토를 건설하는데 회향되리라 생각합니다.

– 불교의 불살생·비폭력 주의에 입각한 정신으로 1959년 이래 티벳독립운동을 이끌어 오셨으며, 그 업적을 인정받아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불살생·비폭력 정신이 현대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자비는 인간의 본성

▲ 몇몇 나라에선 비폭력을 단순히 어떤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단순히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비폭력이라 보지 않습니다. 비폭력은 폭력이나 무자비한 행위에 의해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하자면 순수한 자비심에서 우러난 행위와 노력이 바로 아힘사(무저항) 또는 비폭력의 참뜻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비폭력 운동의 실행이야말로 인간성 회복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착함과 자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착함과 자비의 본성이 비폭력이므로 비폭력은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폭력은 이런점에서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살면서 상호의존의 진리를 망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연기적 실존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인식한다면 이념과 제도가 다르다해서 남을 핍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직접 해를 가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어느 한쪽도 있을 수 없습니다.

"독립과 불교유적 보존등 티벳 미래에 대한 한국 불교도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

이렇게 보면 아힘사(무저항)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적합하고 온당한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만일 폭력주의에 따른다면 폭력은 전쟁을 부르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비폭력의 길을 가고자 하고,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아힘사 혹은 비폭력 사상은 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 윤회·열반·성불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 삼사라(윤회)는 단순히 어떤 장소나 육신의 변화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까르마(업)와 미혹의 힘으로 야기된 하나의 생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업과 미혹에 의한 윤회는 뿌리깊은 미혹을 단절시킬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해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가지의 미혹(탐욕·성냄·어리석음)과 궁극의 무명 혹은 무지 내지는 우리의 의식 속에 저장된 일체의 미혹은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여하고 번뇌의 소멸로 인한 청정한 마음을 니르바나(열반) 또는 자유의 상태인 해탈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 오염된 마음이 정화된 상태인 니르바나를 정각이라 하거나 성불이라 합니다.

– 세계의 평화와 인권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도들의 자세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생명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모든 평화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불교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는 만큼 생명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성냄과 질투같은 세속적인 고통과 번뇌를 제거하고 정신적인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내적 비무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한편 외적 비무장을 통해 현실적인 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내적 비무장과 상호연관하여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교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의 관심사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일체의 중생을 위한 사랑과 자비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일체의 만물은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유일무이한 본성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환경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환경은 우리 모두의 가정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그로인한 고통은 우리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이 가정을 보호하듯 우리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 불교지도자나 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 본인은 종교의 제도와 교리가 정치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란 인간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불교에서도 걸고 자고 먹는 것 등의 세속적 습속을 그대로 교육받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 수행을 떠나서 단순히 먹고 자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속적인 삶의 습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종교적 수행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 교육과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결국 정치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는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종교제도의 수장이 정치제도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 봅니다.

–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국방문 기회 오길

▲ 오래전부터 한국방문을 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법우들도 본인의 방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불자들과 법우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 세계적인 불교지도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 본인은 꿈 속에서도 평범한 승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본인 이상도 이하의 존재도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 석가세존의 추종자로서 본인은 진심으로 일체 중생의 안녕을 위해 일하고 싶으며, 그러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욕망도 없습니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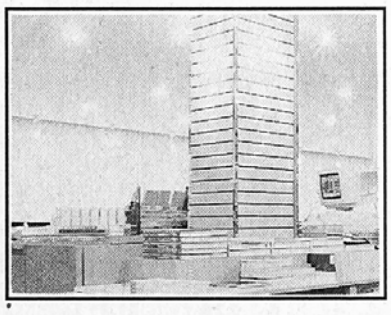
* 어리석음의 장 *

이 향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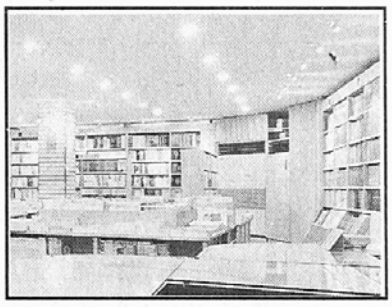


불음가득 ·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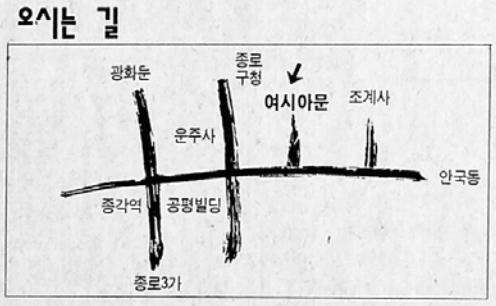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예정)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 32, 59,84,159,331,588-2번

화제의 책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 김교빈외 지음



선교·돈점통해 한국철학 흐름정리

역사이래 한국에서 숱한 철학행위가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정리작업은 물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은 한국의 전통 철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벌여왔던 불교 내부의 이론 논쟁을 비롯해 성리학과 불교 사이의 논쟁 등을 11개 부분으로 정리했다.

'교선(敎禪) 논쟁 – 이론과 실천의 어울림, 그 이중변주'(유흔우·동국대강사)는 대각국가 의천과 보조국사 지눌의 이론을 비교, 두 스님 모두 원효스님의 '합침의 불교'를 계승하면서도 교종 또는 선종 중심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혔다. 또 돈점논쟁에서는 지눌스님과 성철스님의 사상적 차이를 , 유불논쟁에서는 현세적 가치와 출세적 가치의 대립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예문서원, 7천5백원〉

지관의 이론과 실천 — 남악혜사 지음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지관 수행법

자유자재한 절대의 경지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천방법과 이에 따른 수행이 뒤따라야 한다. 불교내에서도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간명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꼽히는 것이 지관법이다.

〈지관의 이론과 실천〉은 남악혜사스님의 〈대승지관법문(大乘止觀法門)〉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원문을 일정한 단락으로 나눠 번역과 해설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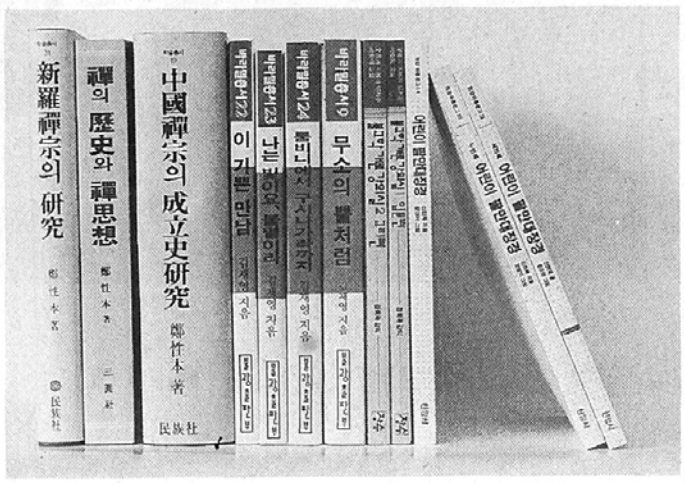
대승지관법은 초기불교의 위빠사나 수행법으로부터 대승지관으로 이어져 묵조선과 조사선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지(止)'란 마음 가운데 정적(靜的)인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이며, '관(觀)'이란 의식이 대상을 향해 관조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동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과정을 말한다.

〈원경 옮김, 삼양, 6천9백원〉

신현득씨 「어린이팔만대장경」 권영한씨 「예불하는 마음에…」 장휘옥씨 「불교학개론 강의실」 김재영씨 「불자수행 교본 시리즈」 성본스님 「신라선종연구」 등 학술서

기획집필가 저술 '활발'



기획집필가들의 활발한 저술활동이 불서출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집필은 특정분야 또는 주제를 놓고 적게는 3권에서 5권까지 이르는 분량의 저작을 생산해내는 저술형태로, 성본스님 김재영 장휘옥 신현득 권영한씨 등이 기획집필가로 꼽힌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기획시리즈는 필자 마다의 독특한 관점과 서술방법으로 다소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닌다면, 개인의 기획집필은 일관된 체계와 구성으로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고생 및 청소년 포교활동을 펼쳐온 김재영씨(동덕여고 교사, 청보리회 상주법사)는 '불자수행교본'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이 시리즈는 입문 및 수계과정에서 기초 중급 고급 보살과정에 이르기까지 8권으로 기획, 집필중이다. 지금까지 〈이 기쁜 만남〉〈나는 빛이요, 불멸이라〉〈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무소의 뿔처럼〉(이상 불광출판부刊)을 펴냈다.

〈이 기쁜 만남〉은 입문·수계과정으로 불자들이 오계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나는 빛이요…〉는 기초과정으로 수계불자들이 '선우불자'의 단계로 나아가는 수행과정을 담고 있다.

김재영씨는 이들 책을 "실천적이며 단계적인 불자들의 수행교본"이라고 소개하고 "각 장마다 한가지씩 제시되어 있는 '실천수행'을 실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장휘옥씨(동국대강사·불교학)의 '불교학개론 강의실' 시리즈(불교시대사)는 교학적 측면이 두드러진 특성을 보여준다. '입문편' '교리편'에 이어 '중국·남방불교편'과 '한국·일본불교편'을 계속 펴낼 예정이다.

장씨는 "불교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불교를 선호하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며 "불교의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불교학개론 강의실' 시리즈"라고 밝혔다.

성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선불교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보이며 최근까지 〈중국선종의 성립사연구〉(민족사) 〈선의 역사와 선사상〉(삼원사) 〈신라선종의 연구〉(민족사) 등의 무게있는 학술서를 펴냈다.

성본스님은 "불교의 정신을 자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각자의 일상생활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종교가 곧 선불교"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는 선의 역사와 사상을 고찰했다면, 앞으로는 선불교의 실천적 측면, 즉 선실천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동화 창작에 전념해온 아동문학가 신현득씨는 〈어린이 팔만대장경〉(현암사, 전3권)을 펴낸 데 이어 팔만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설화를 동화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찰의 각종 건축물과 석물에 대한 안내와 참배방법, 사찰예절 등을 소개한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전원문화사)을 펴낸 권영한씨(안동 경안중고사)는 사찰의 벽화와 편액을 알기 쉽게 설명, 불교와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안내하는 책을 펴낼 예정으로 집필중이다.

〈이러한 기획집필에 대한 민족사대표 윤재승씨는 "개인의 기획집필은 불교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된 가운데 풍부한 불교적 소양이 갖춰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불교학 및 불교출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집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불교학·출판계 질적향상 기여

새로나온 책



40여명 스님들의 삶을 현학적이고 사상적인 고승의 모습으로보다는 할아버지 또는 친구같은 스님들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구성했다.

〈여래, 5천5백원〉

▲불교로 보는 우리역사(서경보 지음)=철학은 물론 문학 예술 정치 풍속과 관습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불교문화가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을 밝혔다. 1권은 삼국시대편으로 '금강산과 불교의 인연' '흥륜사 보현보살' 등 92개 일화를 제시했다. 〈호암출판사, 6천원〉

▲걸망 하나로 넘는 세월은(성목 지음)=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출가와 출가 후의 수행과 도반들과의 관계에서 느낀 것들을 그때그때 글로 엮은 지은이의 수필집.

〈씨와날, 5천8백원〉

▲불교와 기독교 재미있는 퀴즈여행(히로사치아 지음)=불교와 기독교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두 종교는 어떤 견해와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객관적으로 다뤘다. 십자가와 불상, 천국과 극락 등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 물음에 답하는 서술방법을 택했다.

〈하유상 옮김, 민족사, 4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범	시공사
2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3	미라래빠	에반스웬츠	고려원미디어
4	숫타니파타	법정	샘터
5	천수경	무비	불일
6	알기 쉬운 불교	편성부	불교방송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8	어린이 천수경	김호성	불광
9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전원문화사
10	술몽쇄언	김대현	을유문화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김 봉 우 〈반민족문제연구소장〉



미혹 빠질때마다 안정 찾아줘 일본에서 1백80종 판본 나와

내 고등학교 시절은 기존의 풍토에 반항하고 회의하면서 삶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갈등과 방황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나를 덮어 누르는 사회의 낡은 인습과 반인간적 틀안에 가두어 버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억압장치를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인간을 아주 단순한 소도구 내지 소모품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조차 없는 생명의 귀중함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나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어른들의 역사책과 교양서로 밤을 밝히기 일쑤였다.

아버지께서 보시던 〈사상계〉를 밤을 하얗게 밝히며 읽었다. 그럴 때는 제법 무엇을 체계있게 아는 것도 같았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 듯 했다. 중학교에 가서는 벌로 많지도 않던 역사 전문서적을 거의 읽고 체계를 잡으려고 꿈꿔보기도 했으나 문득 그 시기부터 닥친 삶과 죽음의 갈등은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죽음의 고뇌와 공포라는 원초적 요소를 극복하려고 무척이나 발버둥을 쳤다. 그것은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했고 지식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시기에 많은 불경을 읽었다. '凡所有相皆是虛妄若見諸相非卽見如來'라는 금강경 4구게에 흠뻑 젖기도 했고, 법구경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원문을 외면서 낭송하기도 했었다. 그때 읽었던 것 중의 하나가 〈선가귀감〉이었다. 나와 우주의 참모습을 깨우쳐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떠나고도 싶었고 무지와 욕망과 갈등의 사슬을 끊고도 싶었던 소망이 참으로 간절한 때였다.

〈禪家龜鑑〉을 쓴 이는 우리 역사상 무척이나 이름높은 사산대사 휴정이다. 대사는 왜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전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은 참으로 처절한 생지옥이요 아수라장이던 임진왜란에 승병을 이끌고 참전하여 생명의 씨를 이 땅에 보전시킨 분이다. 그의 제자로는 역시 저 유명한 사명당 유정을 비롯해서 처영(處英)과 영규(靈圭)등이 있다. 〈선가귀감〉은 그의 여러저술 중의 하나이지만 사명당이 일본에 전하여 오히려 일본에서 무려 180종의 판본이 나온 책이다. 대사는 책머리에서 "옛날 불법을 배우던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불법을 배우는 이들은 벼슬아치의 글문들을 받아다가 심지어는 붉고 푸른 종이로 받치고 비단으로 꾸미어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게 여기며 이것들을 보배로 삼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대사는 바로 이런 미혹과 욕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불자들을 구하고자 〈선사귀감〉을 집필하였다. 이 귀감을 엄한 스승으로 삼아 갈고 닦아 묘한 진리를 얻는다면 글귀마다 석존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대사는 가르치고 계신다.

나는 당시 참으로 깊은 방황속에서 내 마음의 안정과 진리를 갈구하여 좋다는 많은 책들을 밤을 밝히고 읽었으나 번잡한 말재주나 지엽말절의 사안에 집착한 책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무조건 인간의 탐구와 창조의 식을 내리누르고 자르는 책들 투성이었다. 그런 속에서 나는 이 보배로운 경전을 만나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후 오늘까지 몇 십년간을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한길에 몰두하고 있다. 참으로 고마우신 은혜이다.

7가지 색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두터운 불심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본 감로기획에서는 완벽한 디자인과 최고의 제품을 제작 보급합니다.

불기 2539년 5월 7일 (음) 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조 계 사

■ 크기 및 보급가 / 90cm×6m · 35,000원 / 90cm×8m · 45,000원

봉축 어깨띠
(3색칼라, 고급공단으로 제작)
※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이름 넣어드립니다.
(1매에 2,500원)
※ 색상 : 노랑색, 핑크색, 흰색

봉축 꽃 리본
※ 꽃 리본 100매 가격
수동식 리본은 20,000원
기계식 리본은 30,000원 입니다.
(기본 100매)
※ 색상 : 꽃분홍, 분홍, 빨강, 녹색, 청색, 노랑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

부처님 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 내용
제1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 식순
제2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제3부 등을 밝히며
1. 등을 밝히는 뜻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3. 등의 종류
4. 등을 밝히는 행사들
제4부 관불의식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5부 등불공양의 공덕
1. 등불 공양의 공덕
2. 등불 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3. 윤거사의 등공양

연등공양 이야기


※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부처님의 생애


◎ 200권 이상 주문시 (인사말, 사찰명, 법보시자, 법회 안내 등을) 추가로 할애, 인쇄하여 드립니다.
◎ 초파일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특가 / 1권당 1,000원
크기 / 신국판 × 66페이지
◎ 접수마감 / 5월 1일까지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온 라 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주택은행 679802-93-112523
한일은행 170-105243-12-003
조흥은행 322-04-190572
예금주 선 문 빈

※ "연등공양 이야기" 책자를 법보시 한 사암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법보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



◇ 제2회 불미협전에 출품한 전종무씨 「道僧路」.

불미협 전시회 열린다

회원 50명 신작발표…5일 공평아트센터

한국불교미술인협회(회장 전영화)의 제2회 전시회가 5일부터 공평아트센타에서 열린다.

80명의 회원중 50명이 참가한 이번 전시에는 강행원, 박찬갑, 손연칠, 황남채씨등의 회화, 조각, 조형, 판화작품들이 걸린다. 작년 5월에 가진 창립전 이후의 신작들이 대부분 소개되는 이번 전시는 11일까지 계속된다.



◇ 1311년 제작된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앞부분.

'금강경' '80 화엄변상도' 불자·일반인에 호평

'95 서울 판화 미술제

판화미술진흥회가 주최한 95서울판화미술제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다.

이 전시기간중 특별히 관람객의 눈길을 주목시킨 곳은 고·근대판화 특별전이었다. 이 특별전시장에는 2년전 해인사에서 인출한 '80 화엄변상도' 전판이 소개됐다. 또 고려말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과 조선조대의 '석씨원류' '묘법연화경' 등이 목판본과 함께 전시됐다. 특히 이 전시에서 눈길을 끈 작품은 1311년에 인출된 '금강반야바라밀경'. 이 작품은 일반에 처음 공개된 것으로 종이 길이가 무려 5미터 34Cm나 된다. 7.3Cm의 좁은 폭에 정교하게 새겨진 금강경과 변상도 부적 등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듯해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가 김상구씨가 재연한 '80 화엄변상도'중 한 판본을 현장에서 직접 인출해 판매하기도 했다.

국토순례 비디오 출시

역사탐방연구회, 7편제작

역사탐방연구회가 국토문화순례 비디오테잎 총 12편중 7편을 제작, 보급에 나섰다.

현지의 화면에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진 이 시리즈는 현재까지 해남진도편 오대산, 삼척, 태백편등 7편까지가 나왔으며 정읍, 예산, 경주, 강진, 영주, 김해지역 역사문화유적 순례가 이어질 예정이다. 역사탐방연구회 회장 이세용씨가 해설한 이 시리즈는 가야프로덕션이 촬영과 편집을 맡았다. 국민학생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이 시리즈의 각편가격은 1만9천8백원 〈문의:725-1284〉

창단1주 음악회

수덕사 우담바라 합창단

수덕사 우담바라 합창단(단장 박지혜)창단 1주년 기념 음악회가 지난 29일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박명신 지휘, 이성민 반주의 우담바라합창단 발표에 이어 룸비니합창단, 가릉빈합창단의 찬조출연으로 이어졌다. 또 도신스님과 가수 송춘희도 찬조출연해 관객들에게 찬불가요를 선사했다.

제7회 연꽃 노래잔치

불교청년회, 30일 동국대

대한불청 직할 서울불교청년회(회장 성무경)가 4·8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연꽃노래잔치를 오는 30일 오후 1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어린이들에게 불심을 고취시키고 창작불교동요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년 펼치는 제7회 연꽃노래잔치는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로,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5학년)로 나눠 독창·중창·합창으로 경연된다. 접수마감은 4월25일 〈문의:730-9108〉

판소리 불타전 공연

안성도피안사 5월 8일

안성 '도피안사'가 마련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전야축전 '판소리 불타전'이 5월8일 오후 8시부터 4시간동안 도피안사 경내에서 공연된다.

안숙선명창이 들려 주는 '판소리 불타전'은 누구나 참여해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도피안사는 반야심경사경을 원하는 불자들에게 사경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문의:0334-676-8700)

이호신씨 '다비장 가는 길' 백련암으로 간다

이호신씨의 그림 「다비장가는 길」이 해인사 백련암에 보관된다.

그간 성철스님의 유품을 모아온 백련암은 성철스님의 다비행렬을 그린 이호신씨의 작품을 이달말부터 보관키로 했다.

제8회 청소년 예술경연

5월 14일 청교련주최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은 '제8회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을 오는 5월14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3일부터 29일까지 참가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펼쳐질 이 행사에서는 국악연주, 사물, 탈춤등 전통예술 부분으로 나눠져 경연된다. 〈문의:735-8165〉

화제의 작가 장편 '챠크라 바르틴' 펴낸 **성 낙 주** 씨

"부처님 가르침 현실구제 큰 힘이죠"

대학때 구상 15년만에 탈고…해직교사시절 작업 왕성



"15년간 붙들고 있던 화두를 놓고 나니 공허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절대절명의 답을 깨우치고 화두를 놓은 것이 아니라 두권의 소설로 그간의 작업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최근 장편소설 〈챠크라 바르틴〉(전륜성왕의 뜻 살림출판사 펴냄)을 내놓은 성낙주씨의 소감이다. 성씨는 5천3백매 분량으로 15년간 썼던 이 소설을 3천4백매로 재정리해서 두권으로 펴냈다. "부처님 당시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묘사된 전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성씨는 이 소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사회를 구제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역설했다.

〈챠크라 바르틴〉의 이야기는 부처님 입멸 8년전부터 시작된다. 대장장이 춘다는 카필라국의 마하난왕으로부터 부처님께 선물할 큰 종을 만드라는 주문을 받게된다. 춘다는 종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의 아들 나무크샤는 자신의 신분이 낮은 것에 불만을 품게 된다. 나무크샤는 우연한 기회에 코살라국의 비유리왕자와 인연을 맺게 되고 비유리가 왕이 되어 카필라국을 정복하는데 선봉장이 된다. 결국 카필라국은 멸망하고 부처님은 앙상한 나무밑에서 두차례에 걸쳐 비유리왕과 담판을 벌이지만 세번째는 비유리왕이 카필라국을 정복하고 만다.

소설〈챠크라 바르틴〉은 전륜성왕이 되기를 꿈꾸는 비유리왕과 신분상승을 위해 그에게 충성하는 나무크샤 그리고 진리라는 무기로 정복자와 맞서는 부처님의 갈등구조로 이뤄진다. 즉 이 세상을 제도하는 전륜성왕은 권력이나 무력, 정치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긍정하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용해시켜낸 대작이 없어 기분이 나빴던 대학생활에서 시작된 성씨의 작업은 전교조 해직교사로 5년간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됐고 복직이 된 후에도 2년간 더 이어져 작품구상 15년만에 이룬것이다. 때문에 성씨의 소설은 작가가 가진 힘의 구조에 대한 세계관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에서 발산되는 정의가 소설 속에 진하게 배어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 헤맸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종장 김철호 선생님 도움이 매우 컸고 부처님의 가피력이 시종 저를 지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임연태 기자〉

홍주스님 유작소설 '하산' 28년만에 햇빛

불지사, 4월중순 출간



◇ 홍주스님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다 불의의 사고로 입적한 한 스님의 유일한 유작이 28년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

4월중에 출간될 홍주(洪舟)스님의 장편〈하산(下山)〉은 불교문학사에서 거의 잊혀졌던 소설. 67년에 간행된 이 소설은 당시 저자 홍주스님이 2백부 한정판으로 펴냈으며 이후 출판이 중단됐었다. 1937년생의 스님이 20세에 출가해 10년만인 67년에 소설 〈하산〉을 발표하고 2년뒤에 비무장지대에서 만행을 하던 중 지뢰를 밟아 입적했기 때문. 그러나 이 소설은 문학계에 무명일 수 밖에 없었던 한 스님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단 현실과 불교의 사회참여등 첨예한 문제들을 신랄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진보적인 작품으로 주목 받았었다.

〈하산〉을 재출간하는 불지사(대표 김현균)는 이 잊혀진 소설의 복사본을 동국대 도서관에서 발견, 새로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동의 화제작 〈만다라〉보다 10여년 앞서 발표된 이 소설은 현대불교소설의 효시라하도 과언이 아닐 것이란게 문단의 평가다. 소설이 갖는 구조적 완벽성과 유려한 문체는 물론 내용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신문광고에 의하면 소설〈하산〉을 조지훈씨는 "수행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작자가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신앙과 관능, 교단과 사회와의 모순, 갈등이… 작자가 젊은 수도승 석파의 이행(異行)을 긍정하여 한국불교에 경종을 울린…"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김동리씨도 "젊은 세대가 겪는 한국불교의 고민상이 절절히 묘파되었다"고 했다. 이는 소설〈하산〉이 당시문학계와 불교계에 큰 문제의식을 던져주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전소설의 형식으로 엮어진 〈하산〉의 줄거리는 주인공 홍주스님과 석파스님이 불교의 대사회성, 종단과 계율의 문제 부패한 권승들의 권력다툼등에 대해 고민하며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몸부림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석파 자신이 타락한 승려로 오해를 받게 되고 끝내 자살을 하고 만다. 그의 자살에 충격을 받은 홍주스님은 하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하산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결단력임을 은유하며 대미를 가름한다.

재출간되는 소설〈하산〉에 대해 임헌영(문학평론가)씨는 "현장감 있는 생생한 묘사력, 산사에서의 유장한 정서, 이루지 못할 전제를 안고 있는 여인들과의 사랑등 삶에 대한 긴 사색의 진주알 같은 대화들이 이 소설의 재미를 배가시킨다"고 평했다. 〈태〉

불심시심 〈17〉

허공을 봐도 허공 아니지

靜坐南臺上 (정좌남대상)	조용히 남대 위에 앉아
觀空不是空 (관공불시공)	허공을 보아도 허공이 아니지
勿拘聲色外 (물구성색외)	소리 빛 밖에라도 구애되지 말면
寧墮見聞中 (영추견문중)	어찌 보고 들음에 떨어지랴
湛湛秋潭月 (담담추담월)	맑고 맑은 가을 못 달
亭亭冬嶺松 (정정동령송)	꼿꼿한 겨울 고개마루 소나무
玄關追墾碎: (현관추격쇄)	오묘한 문도 때려 부수어야
方得靈禪風: (방득진선풍)	선풍을 드날릴 수 있는 것을

이 시는 정관대사의 시이다. 관선자(觀禪子)라는 선객에게 준 시이기에 그 이름 풀이이듯이 선을 참구하는 마음가짐을 풀이한 것 같다.

여기서 말한 남대가 오대산의 남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대에 조용히 앉아 허공을 보아도 허공이 아니라 하였으니 여기서부터 보고 들음이나 소리 빛에 구애되지 않는 마음가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달은 달이요 소나무는 어디까지나 소나무이다. 이것들이 바로 진리의 터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 이 문을 부수어야 선풍을 드날릴 수가 있다. 출가와 출출가의 수선적 방편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물이 물이 아니요 산이 산이 아닌 자리에서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자리로 되돌아온 것이다. 가을 못에 비친 달, 겨울 고개의 소나무 각기 맑고 고고하면서 바로 그대로 존재하는 소리 빛의 실상이다. 오묘한 진리의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열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부술 수 있는 문은 더더구나 없다. 그렇지만 없다고 의식되는 이 오묘한 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부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문이 사물의 빛과 소리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 없다면,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문일 수가 있다. 내 마음의 문이라면 나만이 열 수 있으니 주인은 바로 나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기에 이 문은 내가 열어야 하고 그러자니 대상의 사물로 인식되는 어느 곳에도 집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집착을 여의면 문은 저절로 부숴지는 것이다. 마치 저 허공을 보아도 허공이 아니듯이, 이 시는 이렇듯 선미와 선기(禪機)로 가득 차 있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 지난달 23일 공개된 〈문수최상승 무생계첩〉

국보급 '고려사경' 일반공개

지공선사 수결 선명…1326년에 제작

지공선사의 수결이 찍혀 있는 국보급문화재인 고려 사경(寫經) 〈감지금은니 문수최상승무생계첩(紺紙金銀泥 文殊最上乘無生戒牒)〉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개인소장가 여조연씨(대구 중구 계산동 63)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이 사경은 인도의 지공(指空)선사가 중국을 거쳐 고려에서 조교활동을 하던 중 여성신도인 묘덕(妙德)에게 써준 것으로, 국보 235호인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보다 14년이나 빠른 1326년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를 닦아서 최고의 경지인 깨침에 이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불경은 가로 8.9Cm, 세로 76.5Cm 크기로 감물을 입힌 닥나무종이를 12쪽으로 만든 것으로 표지는 금가루로 되어 있고, 내용이 담겨 있는 글귀는 모두 은가루로 쓰여 있다.



불교성지순례

파 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 출발 : 5월 13일(단1회)
· 동참금 : 140만원
· 일정 : 서울－이슬라마바드－탁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카라, 타킷바이)－탁티바히－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협찬: 대한항공

스리랑카 6일
· 출발 : 4월 21일
· 동참금 : 118만원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 4월 16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발 : 4월 21일
·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 : 5월 30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발 : 6월 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10일
· 출발 : 4월 22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 도·네팔·태국 10일
· 출발 : 4월 21일
· 동참금 : 150만원
· 일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엠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한국음식 제공■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인터뷰

원융종 4대종정 한혜붕 스님



"종단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전종도들의 눈과 발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각종단스님 및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원융종 제4대 종정에 취임한 한혜붕스님(71, 상주 연화사)의 소감이다.

종단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스님은 "이제는 종단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종단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우선 사업으로 교육불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불사 추진 종단 질적향상을"

종정취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교육불사는 우선 승가교육을 시작으로 재가신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전개하게 된다.

스님은 또 종단의 내실을 다지며 외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원력을 밝히고 인재양성과 포교에 종단의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근〉

세계불교유물 한자리에 모인다

자연농원서 국내외 500여점 전시…25일~내년 1월

불교방송과 중앙개발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불교문화전'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0개월간 용인 자연농원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세계불교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세계불교문화전은 세계 13개국의 문화유물 4백여점과 우리유물 1백여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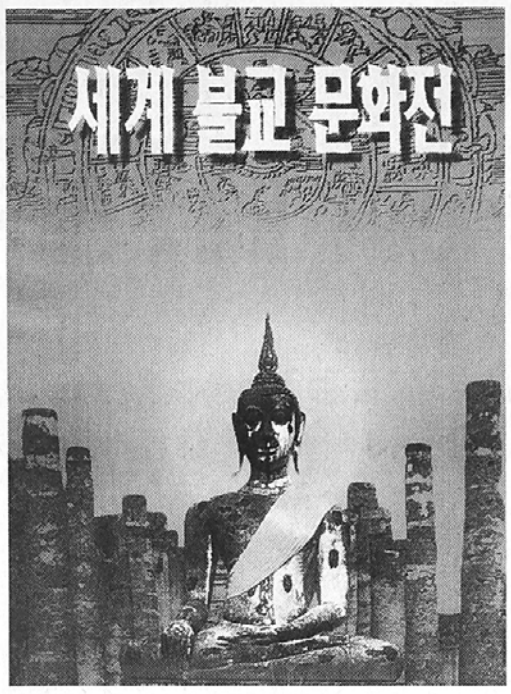
전시관은 4백여평에 1백70미터의 길이로 연예산 14억원의 대규모 이벤트 행사로 석가모니 진신사리 5과와 시대별 불상류등 40여점이 인도에서, 탱화 불교관련의식용구 등 40여점이 태국에서, 상아불상 패엽경 등 46점이 미얀마에서, 황동제용품과 벽화 등 35점이 스리랑카에서, 목조보살상 달마조사상 등 13점이 대만에서, 만다라 미륵불상 부처님 부조상 등 25점이 네팔에서 들여와 전시한다.

이밖에도 돈황유물 파키스탄 간다라 불상 7점, 라오스 10점, 티벳·부탄·일본의 유물과 용품이 전시된다.

한국의 불교전시품은 패엽경, 혈경, 옥발우, 변상도 목관, 귀면와, 대방광불화엄경, 금동여래입상, 무구정광다라니경 등 1백여점과 만해, 성철스님 유품과 불교관련사진 8백여점이 전시된다.

불교방송은 이와함께 유네스코 지정 세계 13개국의 불교유적과 각국의 대표적 사원이나 불교 유적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여주며 각국의 생활문화용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영산재, 사찰음식 시식 등의 각종 이벤트도 마련한다.

한편 인도델리박물관에 소장중인 부처님 진신사리가 들어오는 23일 김포공항에서 시내까지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을 시작으로 25일 개막식에는 2백여명의 각국 불교지도자와 내외귀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세계불교문화전이 오는 25일부터 용인자연농원 특별전시관에서 열린다.

대호·운경스님 총무원장 후보

법화종 3~10일까지 선거실시

대한불교 법화종 제15대 총무원장후보에 김대호스님(현 총무원장), 주운경스님(홍은동 보흥사주지)이 최종 확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금파)는 차기 총무원장으로 두 후보를 확정하고 4월3일부터 10일까지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현총무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선거에 관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 지난달 24일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보현도량 수련결사

태고종 정법사서 지난28일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재홍스님)은 지난달 28일 안산 정법사에서 3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정기수련결사를 개최했다.

이날 결사에서는 △오는 25일 중동부ㅇㅇ사단 오피점등식 및 위령제 봉행 △소년소녀 가장 결연불사 적극추진(1회원1가정 책임제로 전환) △인재불사의 일환으로 장학기금 모금 등 상반기 불사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수련결사에 동참한 회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조계·태고 분규해결을 위한 양종단의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천태예술제 개최

22일 세종문화회관

천태종 종립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오는 22일 오후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4회 천태예술제'를 거행한다.

불교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음악대서사시 '아제 아제' '아리아리'와 찬불가 고전무용이 공연되며 특별출연으로 화산스님 김국환 김영림 김성애씨와 KBS 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할 예정이다.

신흥종교 3백여 교단 난립

美·日도 증가추세…사회문제로 대두

사이비교단에 의한 신도 살해 암매장, 동경 독가스 테러사건의 유력한 배후단체로 지목되고 있는 오우무신리교(眞理敎),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시한부종말론의 횡행 등으로 신흥종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일제하 67개 교단에 불과하던 한국의 신흥종교는 해방이후 확대된 종교의 자유를 발판으로 삼아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히 굉창, 현재 13개 계통의 303여개 교단에 달하는 난립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신흥종교총감〉(한국신흥종교연구소 편, 1992)에 따르면, 계통별로 가장 많은 교단을 가지고 있는 신흥종교는 증산계(59)이고, 그다음으로 불교계(49) 기독교계(40) 무속신앙계(27) 단군계(27) 동학계(17) 봉남계(奉南系, 16) 각세도계(覺世道系, 10) 유교계(8) 연합계(5) 일관도계(一貫道系, 5) 기타 외래계(16)의 순이고, 계통이 뚜렷하지 않은 종단도 24개나 된다.

백산 신경정신과 최훈동원장은 이러한 신흥종교의 대두가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라며,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 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 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흥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된다"고 말했다. 사이비종교가 성행하는 것은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관의 문제, 현대인의 스트레스, 배금주의의 만연 등 현대문명의 병리현상이 함께 원인이 되고있다는 것.

자비의 전화 5년 상담 분석

총 1만5천건…부부갈등·종교順

지난 90년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불교홍포에 앞장서온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가 4일 개통 5주년을 맞았다.

자비의 전화는 94년말 현재 총 1만4천9백25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90년(1천2백29건) 91년(2천3백24건) 92년(2천7백9건) 93년(3천67건) 94년(4천9백86건)으로 점차 상담건수가 늘어 자비의 전화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부부문제(16.99%)가 가장 많은 상담빈도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종교문제(14.7%) 가정문제(13.98%) 청소년문제(12.58%) 인생문제(6.87%)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문제에서는 교리문의(39.41%) 신앙갈등(15.7%) 종교적갈등(27.18) 순으로 조사돼 교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홍포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별로는 여자(56.3%)가 남자(43.7%)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10.3%) 20대(24.49%) 30대(28.92%) 40대(17.91%) 50대(5.77%) 60대이상(7.3%)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이를 밝힌 상담자 65%중 고졸(15.11) 초대졸(12.16%) 대졸(8.56%)순이며 직업별로는 주부(26.47%) 학생(12.58%)순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30대 여성주부의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비의 전화는 이들 자료를 통해 상담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전화국의 114안내처럼 전화 한통화로 교계전화번호등 불교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최첨단 불교정보서비스 '불교114'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목탁소리

영정 도난, 그 후…

이 경 숙 〈취재1부 차장〉

송광사 16국사 영정은 과연 찾을 수는 있는 걸까.

승보종찰 송광사의 상징인 16국사 영정 13점이 도난당한지 벌써 두달이 넘었다. 그러나 여느 사건처럼 도난당시만 떠들썩 했을뿐 지금은 수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사건자체가 잊혀져 가는 느낌이다. 송광사 성보 도난을 계기로 본사에 성보전시관을 건립, 성보 문화재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구체적인 예산과 시기가 잡히는 등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잃어버린 성보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어디에서도 안보인다는 점이다. 송광사에 설치됐던 수사본부는 철수된지 오래이다. 주무부서인 문화사회부에 수사 진척상황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는 대답외에 속시원한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다.

당해 사찰인 송광사에서도 포상금을 내건 외에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돈이 좀 들더라도 신문이나 TV 등에 광고를 내고, 또 프로그램을 사서라도 문화재 도난 방지에 대한 홍보프로그램을 내야하지 않을까.

종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태인 학살 주범들을 찾아내는 유태인들과 같은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만 성보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통신

'예수는 불교도였다' 독일서 화제

예수가 불교도였다는 주장을 담은 책 〈The Original Jesus〉가 지난달 말 독일에서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엘마 그루버와 홀거 케르스텐은 "성경에 불교철학이 많이 담겼다는 것은 예수가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암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 자신이 불교도였을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성경속의 불교적인 요소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예수 자신이 직접 전파한 것이라면서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도였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He that seeth me seeth Him that sent me"라는 가르침은 불교의 "法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존재의 근원을 보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는 설명.

저자 케르스텐은 종교사 전문가이고 그루버는 과학논문과 책을 여러권 발표한 저술가다.

달라이라마 지난 29일 일본 도착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중국측의 중·일관계악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일본에 도착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에 달라이라마의 일본 방문을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측은 비자를 내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3월29일부터 4월6일까지 예정된 달라이라마의 일본 방문을 위한 비자를 발급했다.

일본의 한 신도(神道)단체 초청으로 방일한 달라이라마는 체류기간중 동경에서 개최되는 한 티베트 전시회에 참석, 연설하는 한편 다른 도시들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불교병원 승려 교류단 내한

한국의 불교와 의료, 복지단체의 시찰과 조계사·해인사·불국사를 방문,참배하게 되는 '한·일 불교병원활동 승려교류단'이 4월17일부터 20일까지 방한한다. 단순한 시찰여행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사찰에서의 참배, 한·일의 승려교류를 목적으로하는 이번 행사는 전일본불교니승법단(全日本佛敎尼僧法團) 이 주체가되여 각종단의 승려이외에 일반재가신도들도 함께 모집중이다.

교류단의 방문목적에 대하여 전일본불교니승법단(全日本佛敎尼僧法團)대표 타미야씨는 "한·일의 전후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질적인 배상이 아니라 한국의 불교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화해는 가능할 것이다. 의료, 복지의 영역에서도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의 비구니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불교계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 시민의 요구와 스님의 요구가 일치되지 않는 일본의 불교계가 한국 승려들의 활동, 특히 의료와 복지단체들과의 연계활동의 모습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베트남 불교지도자 2명 체포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통일불교종단의 지도자인 틱 후옌 쾅 종정과 틱 광 둑 스님을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체포했다.

이들 두 지도자는 베트남 공산정부가 베트남불교종단이라는 단일 불교조직을 만들면서 독자적 불교조직활동을 금지하였을 때 당시 베트남의 가장 큰 종단이었던 베트남통일불교종단이 해산을 거부했기 때문에 1980년대 초부터 정부의 억류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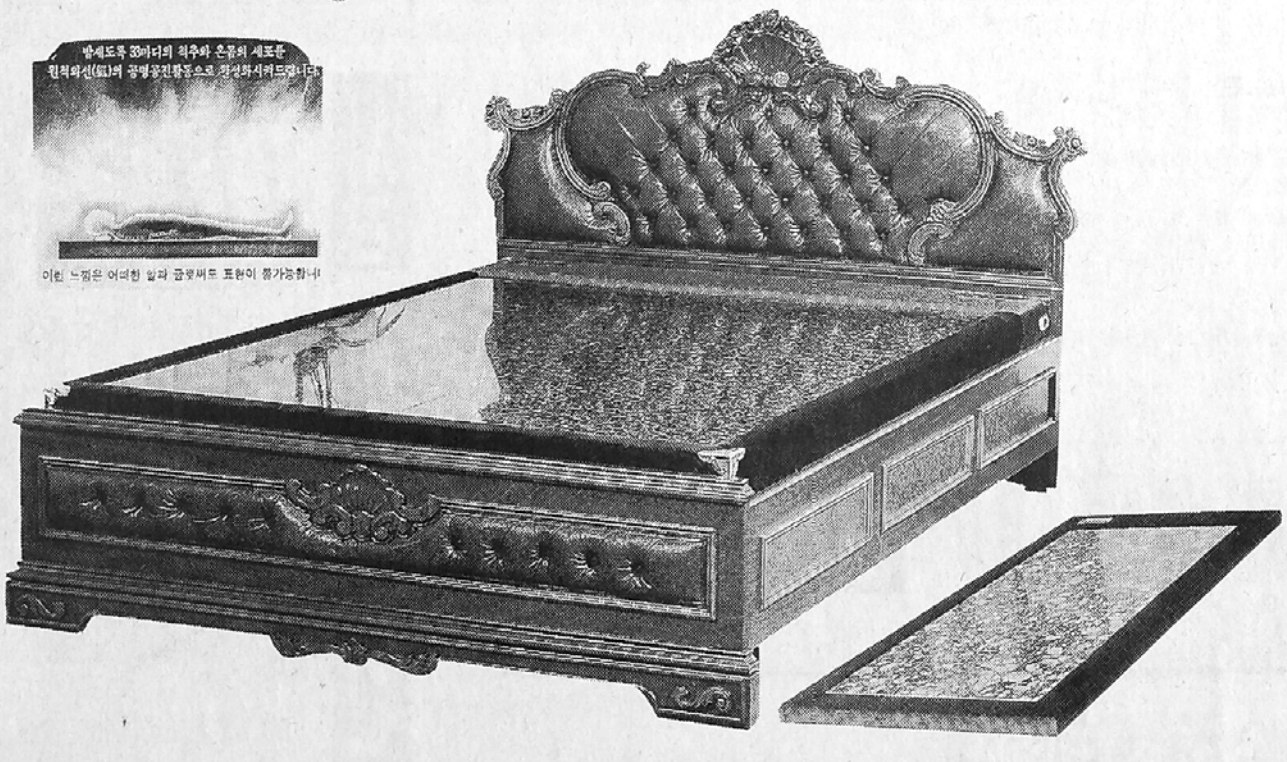
틱 후옌 쾅 종정은 체포당시 작년 11월 연행되었던 베트남통일불교종단 스님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중이었다. 틱 쾅 둑 스님은 1963년 사이공 거리에서 육신공양을 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종교박해를 국제적 이슈화하여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 스님이다. 이번 사건으로 베트남통일불교종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종단재산 반환 및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베트남 통일불교종단측과 관련자 색출 및 구금으로 일관해 오던 베트남 정부 사이의 입장대립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관음손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전기응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본상품은 품질시험검사 전문기관인 당연구원에서 보증함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게르마늄(Ge-32)의 효과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 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불면증·비만 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 상담실 운영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및 팸플릿을 보내드립니다.

불법만나니 "우리는 즐거운 실버세대"

저녁노을이 더 아름답다

전국 불교교양대 학생 20%가 노년층

부처님말씀을 배우며 노후를 스스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설계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자식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고 소외된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속에서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매주 금요일 2시면 1백20여 노인들의 발길로 북적대는 봉은사는 지난 90년부터 1년과정의 노인대학을 열고 도심속에서 마땅히 갈곳이 없는 60세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부처님 품으로 끌어안아 왔다.

봉은사 노인대학은 주 1회 강의시간외에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6개 활동반을 따로 구성해 사군자, 무용 등으로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돕고있다. 또한 등산반과 원예반을 최근 새로이 만들어 수적으로 열세한 할아버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고있기도 하다.

"죽음을 앞에둔 노인들을 마지막까지 바로 인도해 부처님 품에서 회향하도록 이끄는 것이 노인대학의 목적이다"라고 봉은사노인대학 지도법사 선재스님은 밝혔다.

정각여성대학과 경주 고불선원 노인대학도 법문과 건강상식, 생활지도등을 교육하며 노인들을 이끌고 있다.

노인대학은 교육의 진도나 진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노인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반복교육을 주로 하고있어 자칫 시대에 뒤떨어지는 점도 없지않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조계사불교대학을 비롯한 일반 불교교양대학에도 전체 학생의 10%~ 20% 정도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실천하듯 불교를 공부하며 노년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학생들이다.

지난해 대한항공을 정년퇴직하자마자 조계사 불교대학에 입학한 젊은 할아버지 이기정씨(61세)는 "경전공부를 하며 불교교리는 물론 모르는 한문도 많이 배웠다"면서 기회가 닿는다면 공부를 더해 앞으로 포교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노인대학 불교대학 외에도 중리종합복지관과 법동종합복지관 등 교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들도 노인학교를 운영하며 지역노인들의 건강과 취미, 생활상담을 지도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남북 공동 법요식 제의

조계종, 통일원에 공문

조계종(총무원장)은 지난달 25일 오는 5·7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평화통일기원 남북공동법요식'을 개최하고 이에 따른 실무자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갖자고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에 공식 제의했다.

조계종은 또 이를 위해 통일원에 공문을 띄워 북한주민 접촉신청에 따른 승인을 요청했다.

21세기 불교연합 창립

20일경…사회문제 대응모색

불교의 세계화를 앞당기고 지방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가칭)21세기불교연합이 창립된다.

지난달 25일 오후6시 스님, 재가불자 40여명이 발기 준비모임을 가진 21세기불교연합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미 공동대표와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이 모임은 종파를 초월해 사회의 각종 문제점을 불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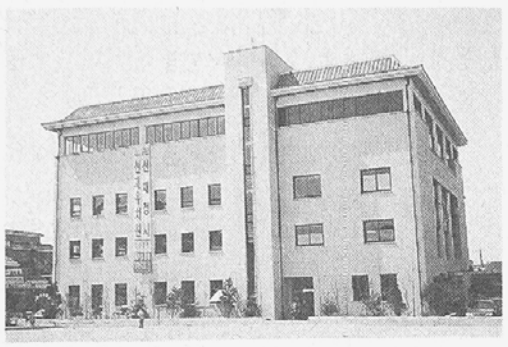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발전위 출범

김대중씨등 각계인사 2백여명 구성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은 오는 7일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출범식에 따른 위원들을 선외, 지난 29일 발표했다.

△증명 월하스님(조계종 종정) 석주스님 △고문 혜암스님(해인총림방장), 석주스님(중앙승가대 명예학장),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 김대중(아·태재단 이사장)등 15명 △위원장 월주스님(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송산스님(중앙승가대 학장) △위원 설정스님(중앙종회의장), 김동근(국회의원 민자당), 박민선(선웨이보일러대표), 엄종일(건영건설사장)등 교계 지도급인사 및 종교를 막론한 정계, 기업인 200여명이 발표됐다.

한편 승가대는 오는 20일 교계 내외인사 350여명을 초청, 승가대 발전계획에 대한 방안 및 현황, 종단에 있어서의 역할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안산지역 포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선재정사가 지난달 26일 정식 개원했다.

안산 선재정사 개원

1천2백평 규모… 유치원도 운영

신도시 지역포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포교당 「선재정사」(주지 현진스님)가 지난달 26일 부처님 점안 및 개원식 법회를 봉행했다.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선재정사는 연건평 1천2백평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3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이번에 개원됐다.

현진스님은 포교당 개원과 아울러 10학급 규모의 선재유치원을 개설 운영한다.

대구 사원 주지연 창립

초대 회장에 원명 스님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스님)는 지난 달 28일 프린스호텔에서 창립총회와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대구광역시와 인근지역 회원주지스님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그동안 창립추진위원장으로 애써온 원명스님(대구 관음사 주지)이 만장일치로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인터뷰 4면〉

이날 5백여 불자들은 대구불교 통합한마당을 축하하며 지역발전과 불교중흥에 힘을 합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유출 문화재 환수운동

강원청년회의소 실천결의대회 가두서명 전개

최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허와 및 타지방에 유출되어 있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문화재환수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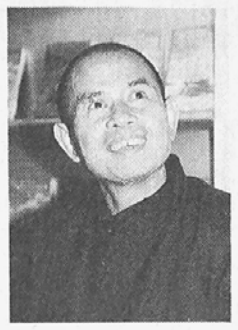
광복 50돌을 맞아 해외에 유출돼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운동이 강원지구청년회의소(JC·지구회장 이선명)와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에 의해 지난달 25일부터 공동으로 펼쳐지고 있다.

강원JC는 도내 26개 지역청년회의소회원 및 부인회원등 3천여명과 함께 도내 전역에 78개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8만여장의 전단을 배포하는 등 사전 캠페인에 이어 오는 15일 지역별 동시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가두서명 및 방문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강원JC가 잠정 집계한 해외 유출문화재는 일본의 2만9천6백37점을 비롯, 미국 1만4천5백62점, 영국 7천1백89점등 모두 6만4천여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주문화원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원주지역 문화재등 외지에 유출된 지역문화재 환수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원주문화원은 지난달 19일 중앙박물관 정원에 있는 구기보 제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등 국보 2점과 보물 5점등 모두 7점의 원주지역 문화재의 현장답사와 사진촬영을 마치고 외지유출 문화재를 담은 소책자 6천여부를 제작, 지역기관 단체 및 가정에 배포, 동참을 권유키로 했다.



◇틱낙한 스님

20세기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는 틱낙한 스님이 오는 17일~2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틱낙한 스님의 한국방문은 (주)불지사와 백련불교문화재단의 초청과 현대불교신문,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틱낙한 스님은 한국에 머무르는 12일 동안 네차례의 설법 및 강연, 行禪수련지도, 조계종정 월하스님과 원론회의의장 혜암스님을 예방한다.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불교지도자 틱낙한스님 방한

17~28일 평화주제 설법·강연…行禪지도 本社 후원…19일 고은씨 대담

△4/18 오후 7시: '21세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제의 강연회, 대전시민회관 △19일 오후 2시: 고승초청법회 설법, 동국대 정각원 △20일 오후 2시: 서울 강연회, 조계사 대웅전 △21일 오후 3시: 크리스찬아카데미 주최 '종교인의 대화' 주제발표 '종교인의 평화운동과 지구환경에 관하여' △22~23일: 行禪 수련회 지도, 장소 미정 △26일 오후 7시: 부산강연회, 국제신문사 강당.

이밖에도 틱낙한 스님은 고은씨(시인. 본지 논설고문)와의 대담(19일 오전 9:30. 아카데미하우스), 〈삶에서 깨어나기〉(장경각) 출판기념회(20일 오후 6시 녹수청산)등을 갖는다.

1926년 베트남에서 출생, 16세에 출가한 틱낙한 스님은 현재 프랑스 남서부 플럼빌리지에 종교공동체마을을 설립하고 순회강연과 정신수련회등을 통해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1967년에는 마틴 루터 킹에 의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방문은 처음이나 〈평화로움〉 〈미망을 꿰뚫는 금강〉 〈정신집중의 기적〉 〈소설 붓다〉등의 책을 통해 평화사상가와 행선수행자로 널리 알려졌다.

장기기증·헌혈 2천여명

생명공양 실천본부 1주년 법회…8일 조계사

부처님의 자비보살행을 실현해오고 있는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가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총회를 오는 8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봉행한다.

생명공양실천본부는 지난해 4월 처음 문을 연 이후 3월 30일 현재까지 단순 장기기증자 9백70여명과 헌혈기증자 1천25명 등 총 2천여명에 이르는 기증을 접수했으며 2명의 안구와 시신 3구를 서울대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지난달 3일 재미교포 정근수행 보살의 신장기증으로 첫 신장이식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생명공양실천본부는 헌재 3사람의 신장기증을 확보하고 수혜대상자를 찾고있다.

이와함께 생명공양실천본부는 지난 2월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각 종교단체자 간담회를 열여 종교상호간 장기기증운동을 논의하는 등 생명나눔 운동의 범사회적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무료병원 개원

연꽃마을, 8일 안양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오는 8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노인종합복지회관 2층에 다섯번째 노인무료병원을 개원한다.

이번 안양 노인무료병원 개원은 안양시가 안양노인종합복지관 2층 70여평을 노인무료병원 운영을 전제조건으로 연꽃마을측에 제공하고 익명의 호주교포로부터 1억원 상당의 의료장비일체를 기증받아 개원하게 됐다.

229명 행자교육 수료

비구계까지 '만의' 입어

조계정 제8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이 지난달 29일 오전 7시 30분 봉도사에서 봉행됐다.

남행자 114명, 여행자 115명 등 총 229명의 행자들은 지난 7일부터 23일간 초발심 자경문 사미율의 습의실수등의 학습과정을 이수했다.

한편 이번 사미(니)계 수계자부터 비구(니)계를 받을 때까지 대가사를 수하지 못하고 만의를 수해야 한다. 만의는 보자기 모양의 조(條)가 없는 가사로 비구(니)계를 받을 때 반납하게 된다.

육사 교화사업 추진

우리는 선우 정기총회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지난달 25일 열린 95년도 정기총회에서 육사생도 교화사업·캄보디아 승단교육지원 및 난민돕기·자비의 등 밝히기·대학생회 조직 등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남지심, 박광서, 성태용, 윤정수, 한석훈씨등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한편 95년도 예산 2억4천3백70만원을 통과시켰다.

설법 연수교육 실시

20일까지 통신교육도

설법연구원(원장 시몽스님)은 오는 20일까지 매주 화수목 오후2시~5시) 설법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설법연수교육은 통신으로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마을 개소

경불련(회장 월주스님)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대변을 위해 오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1층 강당에서 '외국인 노동자 마을' 개소식을 갖는다.

외국인 노동자 마을은 이들의 사망, 재해, 체불, 폭행, 노동상담은 물론 한글교육과 함께 정신적 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 봉축준비위 결성 법회

부산시 불교연합회와 불교신도회는 지난달 29일 코모도호텔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준비위' 결성 법회를 가졌다.

각 사찰 주지스님, 신행단체장, 교계지도자등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정관스님(범어사 주지)과 정련스님(내원정사 주지)이 각각 대회장과 추진위원장에 추대됐다.

승려인권문제연 설치

스님들의 권익과 복지를 대변할 연구소가 발족된다.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지난달 28일 진관스님을 비롯한 11명이 모인 가운데 '승려인권문제연구소' 발기인 모임을 갖고 승려권익보호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함에 따라 오는 18일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고양시 불교신도회 창립

고양시 불교 신도회가 창립된다.

관내 15개 사찰의 신도회를 연합하는 고양시불교신도회는 각 사찰신도회 대표자 3인씩으로 구성, 지역사회 불교 발전과 포교사업을 전개하게되며 오는 8일 준비모임을 갖고 다음달 1일경에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개최

대불련 서울지부(지부장 장성원)는 지난 3일부터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개최했다.

△3일 백남석법사-희망차게 시작하는 청년불자에게 다가가는 불교 △4일 법현스님-불교사랑 문화사랑 그리고 불교문화창조의 주인공 청년불자 △법륜 스님-현실 속 실천의 주인공 청년불자등 불교에 대한 새내기들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에 대한 적절한 참여 방향을 제시한다.

호법도서원 신행회원 모집

호법도서원(지도법사 효신)은 '한국전통문화 종합사회복지불사' 봉행을 위한 신행회원을 모집한다.

민요, 장고, 판소리, 국악등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바로 계승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자 전개되는 이 불사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불자등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0523)84-4008

한편 지난해 6월 문을 연 호법도서원은 문서포교를 위한 불서 기증을 받고 있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념 금강경 특별제작

봉 이시대 최고의 성품을 특별 보급합니다. 축

금강경 10폭 병풍



▶ 전면 (불삭공단에 金書)

▲후면 (진품연화도)

※ 참조 : 후면에 석가세존일대기 (팔상록)을 원하시면 꾸며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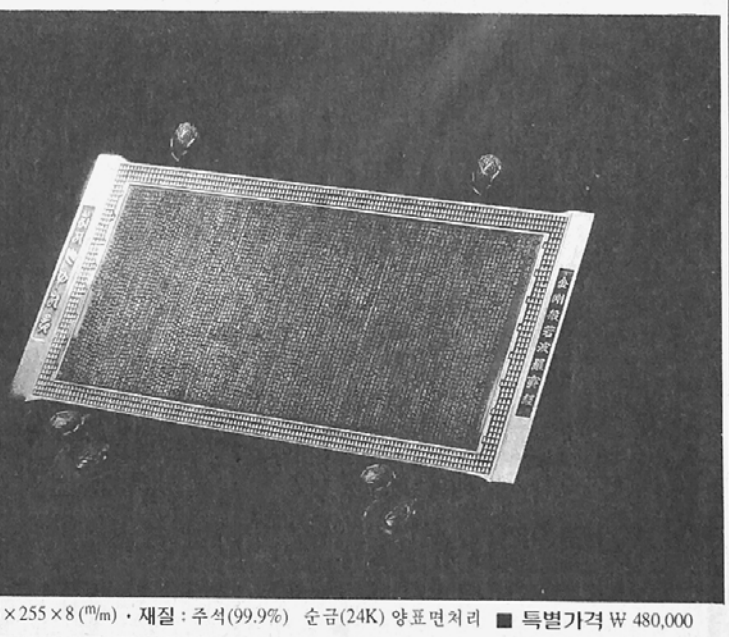
전면 원력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 화백의 연화도 진품

· 높이 : 5자 8치(175.8Cm)
· 폭 : 14자 5치(439.5Cm)
· 재질 : 스기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후지

■ 포교가격 ₩ 490,000

秘經 천불금강경 경판



※ 경판테두리에 부처님 천 분을 입체조각으로 조성하고 가운데 금강경을 양각하였습니다.

· 경판규격 : 505×255×8 (m/m) · 재질 : 주석(99.9%) 순금(24K) 양표면처리 ■ 특별가격 ₩ 480,000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조계사 후문)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및 불사를 위한

수안 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

붓과 선(禪)의 만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는 **수안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안 스님의 붓과 어우러진 탈속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마음의 눈이 맑아져 지옥과 극락이 한생각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기심을 훌훌 벗어던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싱싱한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돕기와 불사를 위한 이번 **선묵전**은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삶 자체를 무거운 짐처럼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독려를, 그 따뜻함을 전하는 여러분에게는 정신적인 충만을 동시에 전해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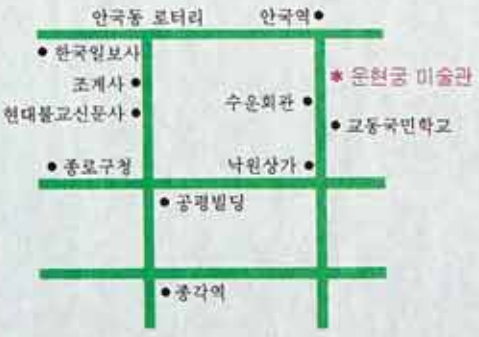


작가 약력

1940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
1957년 출가(불교수행)
1964년 승려됨
1979년 이리 이재민 돕기 선묵전시회를 부산 여성회관에서 갖다
1981년 부산 로타리화랑에서 개인전
한·중·일 고승 선묵전에 출품
1984년 부산 타워호텔, 울산 그랜드호텔, 대구 중앙화랑에서 개인전
부산 선암사 중창 불사 기금마련 전시에 출품
1985년 프랑스 한국문화원 초대전
모나코 몬테칼로 현대미술전 출품
1986년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개인전
서울 중앙승가대학 건립 기금 마련전
불광사 유치원 및 포교사 교육센터 건립 기금 마련전을 디자인 포장센터(서울)에서 함
1987년 수원 봉녕사 도서관 건립 기금 마련전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함
1988년 서울 목동 청소년회관 개관 기념작품 (18m×2m)
대구 중앙화랑에서 개인전
1989년 모나코 몬테칼로 현대미술전 출품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초대전 (프랑스혁명 200주년기념)
모로코 카사블랑카, 라바에서 초대전
독일 서 베를린, 본론에서 초대전
1990년 서울 프랑스문화원 초대전
경인미술관 전시

현재 영축산 통도사 축서암에서 선수행과 작품 활동을 하면서 통도사 자비원장으로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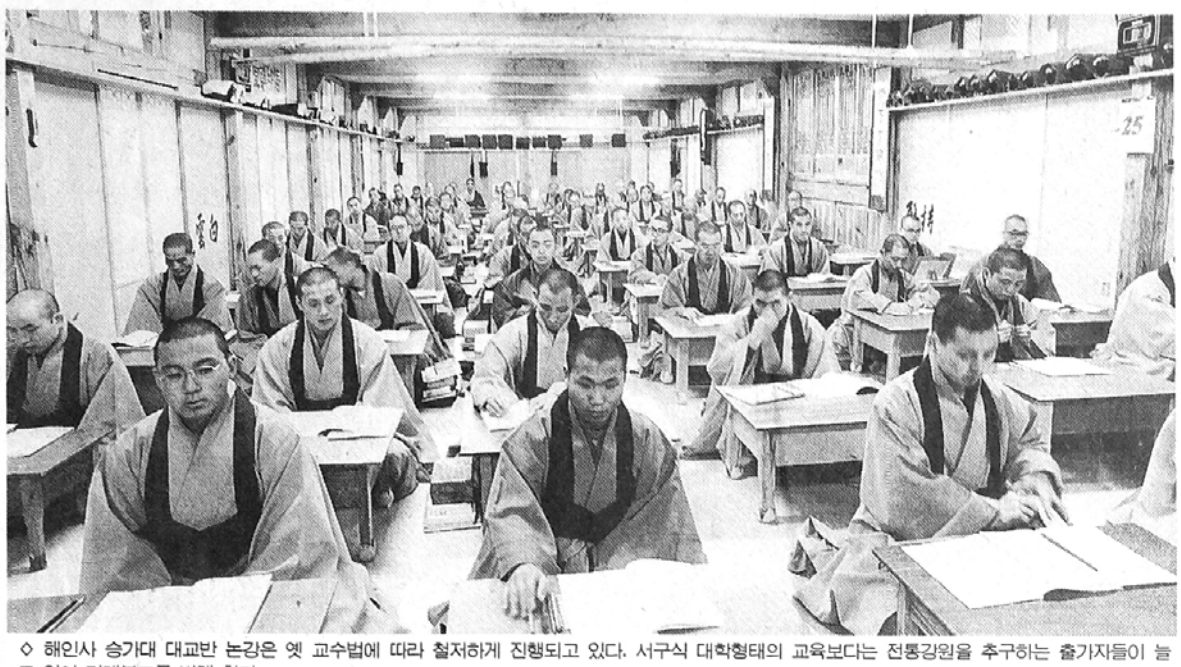
- 전시기간 : 1995년 4월 26일(수요일) ▶ 5월 2일(화요일)
- 전시장소 : 운현궁 미술관
- 주　　최 :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 후　　원 : 현대불교신문사



-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14번지 덕성여자대학교 운현미술관
- 전화 : 02) 766-7967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법공양판 18~19 면
방송·연예 20 면



◇ 해인사 승가대 대교반 논강은 옛 교수법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구식 대학형태의 교육보다는 전통강원을 추구하는 출가자들이 늘고 있어 미래불교를 밝게 한다.

청규 엄격…교학 '최정예' 자부

1900년 개설…해방후 졸업생 655명 배출

법보종찰 해인사의 장경각 뒤편에 자리한 '해인사 승가대학(학장 지관)'은 승가에서도 명성이 높은 '중물 들이는 곳'이다.

갓 염의삭발한 초심자들이 대중생활을 통해 승려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는 것이다.

해인사 승가대학에는 지난주 27명의 신입생이 입방했다. 이달말 행자교육원이 끝나면 10여명의 초발심자가 '중물'을 들이고자 해인사 승가대를 찾을 예정이다.

내일의 아라한들 ②

젊은 학승 탐방 **해인사 승가대학**

1백학인 정진 수학

여기에 2학년(사집반) 34명, 3학년(사교반)23명, 4학년(대교반)16명을 포함 1백여명의 학인이 재학하고 있어 근래 보기 드물게 성황을 이루고 있다.

화엄 십대종찰의 하나인 해인사는 개산되면서 의상의 직계인 순응(順應) 이정(利貞) 결언(決言) 현준(賢俊) 정현(定玄)스님 등이 〈화엄경〉을 교재로 삼아 교육에 임했다.

당시 해인사 〈화엄경〉 강설은 유명했다. 희랑스님이 하안거 때 〈화엄경〉을 강설하자 당시 함양군수였던 최치원이 6수에 걸친 송으로 칭송했다고 하니 승가는 물론 재가까지 해인사 〈화엄경〉 강설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침체되었던 해인사 강원은 다시 근대에 이르러 부흥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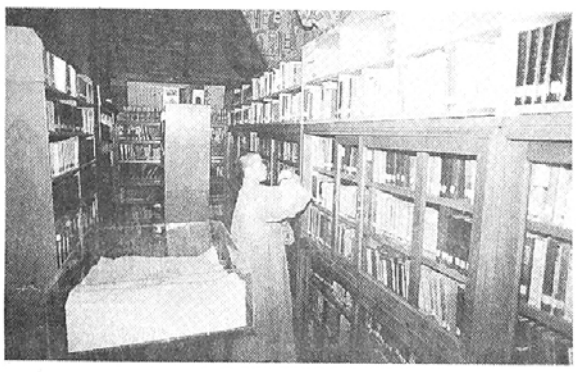
1900년 범운(梵雲)스님이 홍제암에서, 1908년에는 사운당에 각각 강원을 개설했으나 중단 되었다. 1929년 주지 만응(萬應)스님이 궁현당에 강원을 설치했으며 다시 불교정화로 중단되었다가 1955년 주지 자운(慈雲)스님과 대강백 운허(耘虛)스님이 '법보전문강원'으로 복원했다. 이후 1964년 '해인사 강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72년 '해인승가대학'으로 바꾸고 다시 1987년 '해인사 승가대학'으로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의 신입반인 치문반은 '시집살이'라 할 만큼 고되다고 한다.

어느곳이든 대중생활이 그러하듯, 새벽 3시 기상 이후 저녁 9시 취침까지 잠시도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해인사 승가대학의 강의는 아침 7시 강주스님께 예를 올리는 '상강례'로 시작된다. 그렇다고 강의시간이 일반사회에서 처럼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새벽 4시에도 강의가 이루어지고, 차를 마시면서도 이루어진다. 대중생활 그대로가 수업이기에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저학년인 치문, 사집반은 '배운다'고 한다. 강사 스님이 주를 새겨주고 이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고학년인 사교, 대교반에 올라가면 '자기가 본다'고 한다. 이때부터 전통강원 고유의 교수법인 논강이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해인사 논강은 옛 교수법대로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논강은 저녁예불후 대중방에 모여 산통으로 2명의 발기스님을 뽑으면서 시작된다. 발기스님들은 하루종일 공부한 글을 새기고 도반들의 질문에 답한다. 그리고 다음날 강사스님에게 공부한 것을 점검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누가 언제 발기스님으로 뽑힐지 알수 없기때문에 학인 모두가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 불교전문도서관 인가를 받은 해인사 도서관.

해인사 승가대학의 교과목은 전통강원의 이력과목을 따른다. 다만 성철스님이 선종의 종지를 더욱 분명히 하기위해 사집반의 〈도서(都序)〉와 〈절요(節要)〉를 빼고 〈육조단경(六祖壇經)〉 〈대주어록(大珠語錄)〉을 추가했다.

21세기 대비도 '철저'

"예전에는 배운것을 외워 바쳤는데 요즈음은 머리로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가대학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학감 법장스님은 학인스님들의 학습태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임하는 논강의 설전에는 전통강원의 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해인사는 큰 절이다. 1년이면 대형불사만 10여 차례다. 그러다 보니 학인들의 운력은 끊이지 않는다. 불사마다 행사진행은 물론 김장, 메주 담그기에서 이불빨래에 이르기까지 생활하면서 해야할 일들은 운력을 통해 습득한다.

이러한 가운데 주말이면 산행, 다회, 책거리 만행 등 도반과 마음을 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해인사 승가대학의 청규는 유별나다. 치문반은 행자나 다름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승가대의 입학생은 많으나 졸업생은 절반을 넘기기 어렵다고 한다.

다행히 한번도 강의가 끊긴 적이 없어 해인사 승가대의 자랑으로 여겨진다. 36회에 걸쳐 배출한 6백55명의 졸업동문 활동 또한 재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동국대 총장을 지낸 지관, 동국역경원장 월운,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이끄는 법장, 조계종 총회의장 설정, 대한불교신문 발행인 혜총,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응스님등 졸업동문들은 불교계 전반에 거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 동문회(회장 보광)도 그동안 1억여원의 장학금을 모금하는 등 활동이 꾸준하다.

21세기를 맞는 해인사 승가대학은 완벽한 승려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원과정의 수의원 개설, 도서관 신축 그리고 강사충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학은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수행하는 도량이다.

이도량에서의 4년간 대중생활은 고독하게 걸어야 할 구도자로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들의 먹물옷은 어디서나 빛이 난다.

〈해인사=이준엽 기자〉

특별활동

△ **법사단(단장 덕영)**:어린이, 학생회, 일반법회 등 해인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법회를 운영하며 매년 여름 수련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 **다경원(회장 호산)**:매년 삼짇날(3월3일)과 중양절(9월9일)에 가야산 중턱의 마애부처님께 차를 공양하는 헌다례를 주관하며 회보 다로경권(茶爐經卷)을 내고 있다. 매주 토요일 20여 명의 학인스님이 대중방에서 다회를 연다.

△ **향승단(단장 서등)**:30여 명의 스님이 정기적으로 장병위문 수계법회, 강연회, 세미나 등을 열치고 있다. 매년 지역 예비군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 **신행회(회장 관행)**:회보발행, 장학금지급, 소년원법회 지원과 학인스님들의 상조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수다라 편집실(편집장 일혜)**:해인승가대학 교지인 수다라를 86년부터 매년 발행, 금년에 10호를 발간했다. 수다라에는 갖가지 경전에 담긴 사상에 대한 연구논문과 수필 등 학인들의 글이 실려 있다.

△ **도서관(관장 법장)**:경학원(經學院)에 자리한 해인사 도서관은 75년 7월에 개관, 도서로는 고려대장경을 비롯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대장경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총 2만 5천 종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 역대강주

운허등 대강백 '가풍' 이어



◇운허 스님



◇지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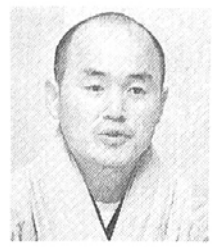
◇종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은 해방후 강원으로서 체계가 잡히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초대강주는 대장경 한글화에 앞장서온 대강백인 운허(耘虛)스님이다.

2대 성능(性能), 3대 명봉(明峰)스님에 이어 4대 지관(智冠)스님이 강주로 취임, 64년 명칭을 해인강원으로 개칭하는 등 현대적 강원으로서의 기반을 세웠다. 지관스님은 6대 강주도 역임했다. 현재 해인사 율원장인 종진(宗眞)스님도 5대, 10대, 12대등 3번에 걸쳐 강주를 역임했다. 7대 관조(觀照), 8대 각성(覺性)스님에 이어 9대 보광(普光)스님이 강주로 취임, 강원의 청규를 확립했다. 또한 11대 무관(無觀), 13대 혜남(慧南)스님에 이어 현 14대 수진(守眞)스님이 해인사 승가대 수장을 맡아 전통강원의 맥을 잇고 있다.

■ 강주 인터뷰

"철저한 수행인 양성"



수진 스님

"승려는 수행을 집분으로 해야 하며 교육 역시 수행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은 학문만을 위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승가대보다는 강원이란 호칭을 선호하는 해인사 강주 수진스님은 '강원은 진정한 수행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수진스님은 "현재 승가에 만연한 비승가적인 것의 근본원인은 교육부재에 기인한다"며 "수행자를 수행자답게 하는 교육, 출가자를 진정한 출가자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님은 또한 "근래들어 전통강원을 찾는 스님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출가자의 기본정서가 서구식 대학형태의 교육보다는 전문적 전통교육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승가대 대학원격인 2년과정의 수의원(隨意院)설립을 원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스님은 "도서관을 신축, 시청각 교육 등 현대에 맞는 교육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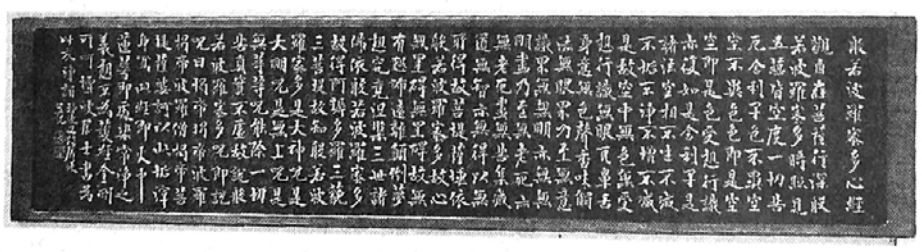
대장경서각연구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서각연구실에서는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대장경 서각 연구실을 아래장소에 마련하고 연구실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십육나한도



▲ 반야심경

금번에 새로운 전시실을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B/D 310호
전화 : 736-0303

대표 지 욱 합장

대장경 서각 연구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413-8, 보타원
문의전화 : (02)355-0883, 9735





○ 불사내역 ○

직지사 향적전, 성좌각 등 다수

○ 취급품목 ○

경판.현판.주련.부처님말씀
십육나한.산신.독성.탱화 등

※서각에 관심이 있고 강습을 원하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진 각 종

법공양 페이지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법공양면은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
*·····면)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회당사상, 21세기 밝히는 등불"

밀교 중흥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



"역사 통찰 불법으로 구국도생"

'心印', 생활속에 수행하는 새 불교운동

이 땅 밀교의 중흥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는 근세기 한국 불교사가 낳은 위대한 종교가요, 사상가이며 철학가이시다. 회당대종사는 몸소 불법의 재건을 위해 실천 궁행하고 끊어진 밀교의 종문을 열어 제도의 방편을 궁구한 밀교의 중흥조라 할수 있다.

회당 대종사께서는 일찌기 시대와 역사적 상황을 통찰하시고 인류의 정신적 빈곤과 불교의 진리가 쇠퇴하여 감을 개탄하시고 구국도생의 대비원을 발하시었다. 그리하여 '과학밖에 없다'하고 심성의 진리를 무시하면 탐·진·치가 치성하여 살·도·음의 법계자가 날로 성해지게 되고 국가사회가 위태하게 된다'고 판단하시고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라는 신념을 세우시고 이를 생활이념으로 삼으셨다. 불법이란 '체험이 곧 법문이요, 사실이 곧 경전이다'는 법계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며, '의사는 육체병을 고치고, 법신불은 정신병을 고친다'는 이 법이 곧 인간이 사는 실천원리라고 천명하셨다. 그래서 우주의 보편적 진리며 인간의 구체적 생활 실천법인 불법에 의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를 체험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인류가 살 길임을 밝히셨다. 그리고 밀교는 정상말의 홍폐가 없으므로, '말법시대 불교는 다라니로서 흥왕한다'는 기치를 내 들으시고 이에 우주 진리의 근원이고 법신불의 본심인 '옴·마·니·반·메·훔(육자진언)의 묘리를 수행하여 인간의 본심은 법신불의 본심과 일여광등함을 자각하는 수행법을 펴시게 된 것이다.

대종사께서는 천품이 자비하시며 융대한 도량과 심륜하신 기상으로 사물에 대한 연구력이 풍부하시고 불퇴전의 용단력을 품유하신 대기이셨다. 어릴때부터 한학에 정진하시어 10세시에는 '심일당천민(心一當千萬) 칠백화단청(筆二墨丹靑)'의 글을 번지 알지니라'라는 대각의 말씀과 함께 '자기의 심인을 믿고 깨쳐가는 것이 시방세계의 일만한 하나 부처님의 정복심장을 믿고 깨닫는 것이니라'는 심법의 정리(正理)를 밝히셨다. 그리하여 축자적이며 고식적으로 이해하여 오던 불법에대한 이해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답습하여 오던 불교의식을 개혁하시고, 현대인의 근원적인 고의 해탈법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새 불교운동을 전개하신 것이다.

대종사께서는 새 불교 운동의 교리와 의식을 정통 밀교에 근거하여, 그 위에 자신이 체험 증득하신 자증교설을 더하여 시대에 맞는 현대적 종단제도와 실천 방편을 펴시다가 불기 2507(1963)년 10월16일 세수 62세, 개종 17년만에 "엿날에는 오대이요, 이제는 七日法"이라는 열반송을 남기시고 열반에 드셨다.

◇대일상은 진각종의 교리와 신행의 상징으로 시방삼세에 하나로 계시며 온 우주에 충만하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지비이덕(智悲二德)을 나타내며, 오불(五佛)의 상체(相體) 및 육자대명왕진언을 상징한다.

대일상

진각종이란

법신 비로자나불의 진리 체현

회당 손규상(海堂 孫圭祥) 대종사님의 진하신 종교를 진각종(眞覺宗) 또는 진각밀교(眞覺密敎)라 한다. 이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옴마니반메훔을 중축(中軸)으로한 삼밀관행(三密觀行)으로 법신부처님의 미묘한 진리를 체현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계시(啓示)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밀교라 하고 또 현밀이교송(顯密二敎頌)에서 설해져 있는 것과 같이 알체 미망(迷妄)을 다여읜 진실한 각(覺)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각종(眞覺宗)이라 하는 것이다.

개종이념

밀교중흥 생활불교 심인 구현

진각종의 개종 이념은 밀교중흥, 생활불교, 현세정화, 심인의 구현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 네가지의 이념은 심인(心印)의 구현이라는 이념 속에 포섭되는데, 이는 진각종이 가지는 내적 진리가 바로 심인진리이기 때문이다.

진각종지

육자진언 받들어 진리를 체득

진각종은 시방삼세에 하나로 계시는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부처와 중조의 정전(正傳) 심인(心印)인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신행의 본존으로 받들어 법신불 진리를 체득하고 현세정화함을 종지로 한다.

종단연혁

90년 美L.A 불광심인당 설립

1947년 6월:진각종 입교 개종(창교)
1949년 12월:심인중고 심인불교로 개명
1953년 8월:대한불교 진각종으로 개명
1954년 1월:유지재단 설립
1963년 10월:회당 대종사 열반
1965년 12월:대구 심인중고 설립
1966년 1월:월곡동 총인원 완공
1974년 12월:탑주 심인당 완공
1974년 4월:회당 장학회 설립
1976년 12월:서울 진선여중고 설립
1982년 4월:중앙교육원 설립
1990년 11월:L.A불광심인당 설립
1992년 4월:회당학회 창립

총인 각해대종사

現世淨化 (현세정화)
卽身成佛 (즉신성불)
當相卽道 (당상즉도)
卽事而眞 (즉사이진)
時時佛供 (시시불공)
處處佛供 (처처불공)

진각종 수행법

진각종의 수행법은 삼밀관행법(三密觀行法)이다. 진각종의 삼밀관행법은 종조님께서 손수 체험으로 증득하시고 전수하신 것이다.

첫째, 신밀(身密)은 법신비로자나불의 갈인인 금강지권 또는 금강권을 결하고, 둘째, 구밀(口密)은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고, 셋째, 의밀(意密)은 육자관념(六字觀念)으로 자신의 몸이 불신(佛身)과 일여광등함을 관하는 것이다.

이 삼밀관행법으로 행자와 부처의 삼밀이 상응하게 되면, 법신의 삼밀과 중생의 삼밀이 서로 광등하게 되어 즉신성불(卽身成佛) 즉 이 몸 이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진각종은 바로 이 신비와 삼밀관행법을 기본수행으로 하고 있다.



◇탑주 심인당 전경

삼밀관행법 닦아 즉신성불 추구
육자진언 염송통해 대안락 얻어

진언이란 부처님의 신실한 경지를 나타낸 말이라는 뜻에서 진언(眞言)이라 한다. 진언을 이것을 염송함으로써 산란한 마음이 통일되고 이 속에 부처님의 무한한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지 또는 다라니라 한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은 법신의 경지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대자비로 설한 경이므로 부처님과 보살, 중생들의 본심이다. 따라서 이 진언을 염송하면 법신의 삼법을 듣게 되어서 번뇌를 소멸하고 본심이 일어나 부처님의 경지에 들게 되어 대안락을 얻게 된다.

염송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진각종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염송법을 주로 하고 있다.

- 항마염송:진언을 크게 소리내어 하는 염송, 소리를 맞추어 같이 염송하는 방법으로 번뇌를 막고 선정에 드는 방법이다.
- 연화염송:진언을 자기 귀에 들리도록 역력 분명하게 소리내어 번뇌와 수마를 없이 하여 선정에 드는 법이다.
- 금강염송: 입을 다물고 혀만 놀리어 진언을 염송하는 방법이다.
- 삼마지염송:혀를 천장에 붙이고 뜻으로 진언자를 관하는 염송법이다.

조직표

총 인 각 해
통리원장 지 광
· 총무부장 일 정
재무부장 성초 재무국장 호 암
홍교부장 석봉 문화국장 회 정
건설부장 우승 공무국장 대 경
중앙교육원장 도 흔
교법부장 휴명 교법국장 덕일
교육국장 관종
종의회의장 경 혜
부의장 법광 대인화 사무처장 덕정
사감원장 소 암
사감부장 진당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 913-0751-3 913-0803-4
FAX 915-6032

컬러판

봉축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불기 2539년 (음)사월초파일 (양) 5월 7일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봉축현수막 크기 및 보급가격 : 90cm×6cm(₩ 35,000), 90cm×8cm(₩ 45,000)
귀의삼보하옵고
불법홍포와 자비원력의 시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스님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 날에 각사암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축제의 장엄물로서 전국민에게 불심을 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두터운 불심으로 불교전통공예 제작과 보급에만 전념하면서
부처님의 성품을 통하여 다년간 우리의 미래—부처님 품안
포교를 펴고 있는 본 삼전불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탄생불과 불자의 근본인 삼귀의를 완벽하게 나타낸 현수막을
제작·보급하오니 스님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三 田 佛 事
圓空 金 相吉 合掌
서울特別市 鍾路區 壽松洞 46-19 (천 당 B/D 202호)
電 話 : (02) 732-6095~6
FAX : (02) 732-6096

웃어야 하는 이유 ③

돈으로 살 수 없는 약

웃음이라는 약은 돈주고 살 수 없지만, 그 효과는 어떤 처방 보다도 높습니다. 때로는 웃지 않는 것 자체가 병이어서, 환자를 웃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 병자치고 잘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꾸로, 잘 웃는 사람치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한 이런 과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면, 동시에 뇌의 신경계에 의해 촉발된 전자파동이 뇌수와 다른 인체부분들의 회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의 내분비선 계통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천연 안정제와 진통제를 분비하도록 뇌에 명령합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물질들 중에는 스트레스 독소가 있는가 하면, 동맥을 수축 이완시켜 피의 흐름을 촉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비물은 고혈압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웃음만이 최상의 치료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웃음이 좋은 약이라고 하는 데에 반대할 의사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웃음은 돈주고도 살 수 없는 명약임에 틀림없습니다.

인산가족이 아니면 돈 주고도 사기 힘든

인산죽염된장

150년을 잇는 신토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웃어야 하는 이유 ④

웃읍시다!

한 이름난 정신의학 교수가 제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강의실이 앞자리는 우등생 전용석이고, 뒷자리는 낙제생 전용석이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관찰해 보니,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누가 딸 안해도 앞자리에 앉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꼭 뒷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앞자리에 앉기 때문이요, 뒷자리에 앉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것 역시 그가 뒷자리에 앉기 때문이다."

환자 치고 웃는 얼굴이 없다고 합니다. 병실에 가보면 대부분 시무룩하거나 잔뜩 찌푸린 얼굴, 혹시 화가 난 표정들입니다.
실제 환자 중에 웃는 얼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침기지로 건강한 사람 중에 우울하거나 짜증스런 얼굴을 짓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얼굴색이 좋지 않기도 하겠지만, 게중에는 늘 찌푸려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난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읍시다!

웃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인산죽염된장

전화로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736-3171

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 ····•
작됩니다. 법공양면은 악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여 개인 ····•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문의 722-4162) ····•

법공양 페이지

진 각 종

환경·교육·복지등 이익중생 앞장

우주법계 법신불의 체상용(體相用)은 육대사만삼밀(六大四曼三密)로서, 육대가 연기하여 이 세계가 사만으로 나타나니, 인간세계와 자연현상은 그대로가 법신불의 당체이며, 세간과 자연을 청정히 하는 보살행은 삼밀 그 자체로서 법신불과 상응(相應)하는 직로(直路)가 된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상응하고자 하는 우리 진언행자들은, 세간과 자연을 청정히 가꾸어 청정국토를 만듦으로써, 성불위(成佛位)를 이루게 된다. 이 육신에 때 없애어 청정한 몸 얻음을 성불이라 하고, 자기성불하기 위해 이땅 정토 만드므로, 성불과 청정국토 성취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物我同時이다.

일찍이 종조 회당 대종사께서는 "물을 지나다 물을 보고 염송하면



○진각종은 맑고 깨끗한 정토를 건설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청정히 해야 한다는 회당사상에 바탕을 두고 청정국토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정국토 가꾸기로 현세정화 실천

기금조성·무공해 비누제작 등 종단차원 전개

들이 성불되고, 산을 오르다 산을 보고 육자진언을 염송하면 산이 성불한다"고 강설하셨다. 우리들의 삼밀수행과 국토성불이 물이 아님을 이르신 것이다.

진언행인들이 심인도량에서 삼밀수행은 자기 혼자 성불하기 위한 법집(法執)의 소산이 아니라, 일체유정과 자연법이의 산천초목과 함께 성불하려는 대아주의(大我主義)의 실천이어야 한다.

오늘날 시대상황은 진언행자들의 대아주의적 실천을 어느때보다 크게 요청하고 있다. 물질이 치성(熾盛)하여 탐진치(貪瞋痴)가 일어나고, 이에 연유하여 성품이 어두워져서 살도음(殺盜淫)의 범죄가 상해지고 있는가 하면 환경은 오염됨에로 되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단제하여 인간의 성품을 바루지 않으면 안된다. 맑고 깨끗한 밀엄정토를 건설하려면, 마땅히 우리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일부터 하여야 한다. 청심정토(淸心淨土)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청정국토가꾸기 운동은 사회일반의 환경보전사업과는 그 차안점을 달리 한다.

우리는 불교사상과 그 심수(心髓)인 밀교사상 및 회당사상에 연원하여, 새로운 차원의 환경보전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청정국토가꾸기 운동은 환경보전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인간심성정화에 기초하고, 나아가 생명 존중사업과 자은보은(慈恩報恩)사업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조리함을 단제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개혁작업도 청정국토가꾸기 운동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는 청정국토가꾸기 운동을 거종적이고도 계속적으로 전개하여, 일찍이 종조 회당대종사께서 정심 전력으로 실천하신 현세정화의 대비서원을 보다 절실하게 받들고자 한다.

청정국토가꾸기 운동 "淸心淨土" 사상을 토대로 환경정화(環境淨化)사업, 생명존중(生命尊重)사업, 세상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자는 자은보은(慈恩報恩)사업의 3대사업을 그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조직은 각 심인단(진각종 사찰명)과 관구청(자역단위 조직)의 종단조직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운동은 수행에 있어서의 지계(持戒) 의미가 들어 있는 청정국토가꾸기 십선계를 지키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며, 이러한 십선계의 생활화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 개괄적인 것을 보면 환경정화사업으로는 각 관구청이 자율적으로 장소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6개 지구 각 심인단에서는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전 신덕심인당의 경우 우유팩을 모아 휴지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고, 트 구미 보광심인당의 경우 무공해비누를 제작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생명존중사업과 자은보은사업은 1차적 단계로서 "은혜를 배울 정기적으로 구좌수(1구좌: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현재 많은 동참으로 나심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모인 금액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신교도와 함께 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향제도를 마련 중이며 향후로는 생명존중사업과 자은보은사업의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청정국토가꾸기 운동 10선계

1.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2.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겠습니다.
3. 합성세제 양을 줄이고, 천연세제를 사용하겠습니다.
4. 음식물은 먹을 만큼만 만들겠습니다.
5.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천연세제를 사용하겠습니다.
6.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겠습니다.
7. 전기와 물을 아끼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8. 금연 및 금주를 실천하겠습니다.
9.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겠습니다.
10.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교육 사업

위덕대학 내년 정식 개교

25개 종립유치원 2개 중고교 운영

진각종의 교육사업은 교역자 양성 및 인재등용을 위하여 4년제 교육과 정인 진각대학이 있고, 중앙교육원 내에 심학과 및 아사리과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직자의 재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의 종립학교로는 학교법인 회담학원 산하에 대구의 삼인중고등학교(1965년 설립), 서울의 진선여자중고등학교(1976년 설립)가 있으며, 15개의 종립유치원 및 각 교당 자체에 어린이 교화를 목적으로 자성학교가 부설되어 있다. 특히 괄목 할 만한 사업은 종립 위덕대학이 정식승인을 얻어 1996년에 이타자리의 교육이념을 근간으로 9개학과 400명 입학생을 받아 개교하게 된다.

법 어

"생활 자체가 수행입니다"

우리 민족은 불교와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하여 살아온 문화민족입니다. 우리의 생활속에는 불교정신이 녹아내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불교와 밸래야 밸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불교가 흥왕할 때는 나라가 발전하였고, 불교가 쇠퇴하였을 때는 국력도 약해져 외세의 침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원래 절대자에게 의뢰하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자력교(自力敎)이므로 이 정신이 사회에 충만 했을때는 국민 스스로가 주인정신이 투철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국민정신도 강해져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주위를 돌이켜 보면 대형사고들이 속출하고 도덕성이 타락하여 반인륜적인 행위와 비인간적인 행위가 예사로 자행되고, 자연환경은 오염되어 마시는 물까지 수입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세태가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심(本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일체 현상이 법신불의 드러남

해방이후 50년 동안 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물질적으로 갑작스럽게 풍요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정신세계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래풍조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주의 문화가 판을 치게 만들었고 더욱이 절대자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외래신앙은 우리의 자주정신을 좀먹어 드디어는 종말론까지 등장하여 온 국민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그저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남의 탐에 이끌리어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본심은 온데간데 없고 환심(幻心)과 가심(假心)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본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본심을 찾는 일" 즉 "심인(心印)을 깨닫는 일"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자 우리 진각종 입교 개종의 근본취지입니다.

본심을 찾는 일은 바로 자성법신(自性法身)을 깨닫는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도 바로 자성법신으로 법계법신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입니다. 자성법신과 법계의 법신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불(成佛)인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리원장 지광 대정사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성불인 것입니다. 우리 진각종에서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모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온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 곧 내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밖의 부처를 찾아서는 안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여 있는 법신불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법신불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생활속에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이 바로 법신불의 당체설법인 것입니다. 본심을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진각종에서는 삼밀관행법(三密觀行法)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삼밀(신·구·의)과 여래의 삼밀이 하나가 되는 수행법입니다. 봉으로 결인(結印)을 하고 입으로는 염송을 하고 마음으로 관(觀)하는 독특한 수행법으로서 여래의 비밀지에 바로 들어가는 문門입니다. 이렇게 하여 본심을 찾아 들어가니 현실적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이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활을 떠나서 따로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본심을 찾는 일은 굳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정진하여야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활이 경전이요 실천이 공덕입니다. 세간을 떠나서 불법을 찾는 것은 토끼뿔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심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본심을 찾는 일입니다.

업의 노예 되지말고 다스리는 주체가 되자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여서는 결코 안됩니다. 업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업을 다스리는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석에 밥을 만들려고 청석을 솥단에 채내어 부수지 말고, 청석위에 좋은 보양을 하면 훌륭한 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을 정화하려면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본심 찾는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데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층화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잘 쓰면 부량의 복과 공덕을 입는 것이요, 마음을 잘못 쓰면 화를 입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본래의 마음, 이것을 찾아 잘 가꾸면 극락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른마음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사회도 자연 밝아져서 정토(淨土)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봉·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축

전국 심인당 주소록

1. 서울지구(지역번호 02)

심인당명	전화번호	주교명
동리원	T. 913-0751~3	동리원장
교육원	F. 915-6032	교육원장
반 주	T. 911-0840	도 훈
법 각	T. 292-3252	혜 강
법 원	T. 738-2969	원 강
능 인	T. 833-7048	원 정
관 음	T. 795-3320	
신 촌	T. 334-1398	혜 명
명 산	T. 989-9740	관 주
부 래	T. 212-3759	일지행
남 부	T. 886-1266	성 호
십 상	T. 862-3624	희 정
행 원	T. 556-8065	혜 원
법 륜	T. 698-7740	호 봉
법 화	T. 032) 773-1773	화지정
유 가	T. 0331) 255-2585	혜 성
대 원	T. 0342) 755-1428	덕 정
광 동	T. 0361) 54-4731	변 상
장 엄	T. 0443) 43-2413	덕 혜

2. 대구지구(지역번호 053)

심인당명	전화번호	주교명
회 락	T. 255-1450 F. 254-1470	소 암
시 경	T. 752-4688 F. 742-4088	지 광
봉 수	T. 425-1093	정 혜
보 현	T. 656-1023	복선정
낙 산	T. 941-1170	우 송
북 정	T. 256-9317	희 성
시 북	T. 425-1408	혜 명
신 정	T. 567-0962	임 각
신 희	T. 554-2391	김 당
희 인	T. 473-8740	지수심
정 위	T. 554-2037	류희정
구 경	T. 474-4084	홍인화
숭 위	T. 425-4951	허 수
지 장	T. 357-3469	심상화
행 대	T. 763-5430	정시행
대 명	T. 625-6626	박 혜
경 전	T. 953-2662	전 산
희 정	T. 581-6174	덕 임
경 산	T. 815-9695	중 광
상 엄	T. 0547) 434-3178	자비화
보 광	T. 0546) 52-5026	효 암
지 위	T. 053) 471-1332	법 정
옥 정	T. 0571) 57-6173	법계정
심 지	T. 0572) 31-3940	인 화
선 혜	T. 0563) 34-3549	원 각
진 불	T. 0563) 34-0264	정심화
보 위	T. 0542) 71-2554	대자심
향 자	T. 0542) 73-1961	효 명
성 진	T. 0544) 933-2606	청담혜
신 어	T. 0576) 861-7051	효명선
입 정	T. 0599) 31-2998	복지원
법 상	T. 0541) 51-2048	명선각

3. 부산지구(지역번호 053)

심인당명	전화번호	주교명
반 석	T. 467-5940 F. 464-0668	경 타
명 륜	T. 555-6663	지희심
정 세	T. 244-0547	정위각
정 정	T. 802-8785	석 동
화 천	T. 555-5245	만학심
복 전	T. 816-2438	수 성
남 도	T. 646-1518	혜 보
선 덕	T. 891-0204	각 암
보 불	T. 301-0204	정광심
지 륜	T. 741-6691	의 현
명 신	T. 0551) 46-7091	보 후
삼 학	T. 0525) 43-2124	재일화
수 계	T. 0527) 354-2256	혜 덕
묘 법	T. 0557) 42-0403	정관혜
보 천	T. 0591) 57-1506	일 허
봉 임	T. 0523) 385-9507	환 명

4. 대전지구(지역번호 042)

심인당명	전화번호	주교명
신 덕	T. 255-6177	대안화
	F. 255-3177	
마 도	T. 533-3987	혜 인
중 화	T. 672-2464	정행화
대 승	T. 282-5918	효 심
혜 정	T. 04611) 735-3408	인선혜
자 애	T. 0431) 56-5035	태 경
도 원	T. 04751) 31-2651	복지화
명 성	T. 062) 263-5272	지 정
향 수	T. 0562) 252-2647	진 상
보 덕	T. 06542) 61-5164	대위심
묘 장	T. 06531) 834-9017	혜정각
관 행	T. 06531) 858-8963	경 당

5. 경주지구(지역번호 0561)

심인당명	전화번호	주교명
후 위	T. 772-2723 F. 771-1355	안인정
신 혜	T. 772-3062	효 공
황 성	T. 746-4843	관 허
신 해	T. 761-2197	수 정
교 선	T. 762-4034	정 후
명 법	T. 44-2042	안심원
심 각	T. 751-0418	혜인정
도 안	T. 751-1146	심안화
상 덕	T. 745-4703	지혜정
청 경	T. 44-1707	안락후
각 상	T. 751-5783	묘승원
향 보	T. 42-2059	정심정
황 성	T. 762-4941	지심혜
감 로	T. 746-4840	승심위
아 촌	T. 0522) 97-4966	덕 암
정 지	T. 0522) 75-8593	상 세

6. 포항지구(지역번호 0562)

심인당명	전화번호	주교명
보 성	T. 47-2649	법 정
	F. 48-5612	
상 류	T. 47-2193	수희주
신 라	T. 92-2456	혜 안
위 덕	T. 76-2479	인 의
중 앙	T. 43-2470	지도원
연 화	T. 43-7222	상묘혜
선 주	T. 43-8283	대심정
운 산	T. 43-3212	심상화
항 사	T. 41-9409	심위지

기타지구

심인당명	전화번호	주교명
인 제	T. 0643) 33-2703	성 광
마 재	T. 05663) 793-2040	조 덕
통 덕	T. 05663) 793-2463	경 위
경 위	T. 05663) 793-4943	변혜정
포 항	T. 0011-213-389-0709 F. 0011-213-389-0809	석 위

종립 유치(아)원

탑 주	T. 021 911-5548	안혜정
은 암	T. 021 912-2546	김선주
상 진	T. 0441) 44-2813	이정자
희 덕	T. 0531) 254-9326	안혜주
사 경	T. 0531) 754-4088	허혜주
보 위	T. 0531) 627-9452	김도라
경 서	T. 0531) 952-0867	손애자
선 안	T. 0531) 625-6627	남정두
신 덕	T. 0531) 557-1994	손순연
성 광	T. 05461) 54-0747	허혜정
안 동	T. 05461) 462-8622	김정희
희 정	T. 0531) 581-3014	정순희
선 각	T. 05721) 32-6830	신은숙
석 대	T. 0421) 282-7018	한 주
홍 위	T. 05611) 42-5188	손영주
위 덕	T. 05621) 76-2479	정현희
정 각	T. 05221) 67-6013	유선호
포 항	T. 05231) 885-9507	이정희
보 정	T. 0562) 46-1385	박현희
백 제	T. 05661) 791-4456	강동우
수 명	T. 0531) 881-5057	이분희
명 천	T. 0561) 54-1549	이상주
산 장	T. 05611) 57-1586	허 위
유 행	T. 06531) 52-6270	김혜주
행 상	T. 0621) 261-1745	조묘상

서울·대구 종립학교

회당학원	T. 02) 553-9647	
진선여중	T. 02) 506-3104	
진선여고	T. 02) 567-4853	
삼인중	T. 0531) 656-2474	
삼인고	T. 0531) 656-2474	
위덕대학	T. 02) 913-0751	

방송 단신

쌍계사 위성생중계

불교텔레비전은 오는 8일 쌍계사에 오픈스튜디오를 마련하고 SNG(이동무선중계기)를 통한 '날마다 좋은날'(10:10~11:10) 프로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한국통신의 위성중계기 설비를 이용한 생방송 중계가 본격화된 불교텔레비전은 해인사 등 산중사찰 주요행사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및 제등행렬 등도 btn이 독점방송하여 중계키로 KBS와 합의했으며 MBC와는 협의중이다.

btn 시청률 2위 차지

불교텔레비전의 시청률이 프로그램 송출 20개 공급사 중 YTN(연합TV뉴스)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수주율도 2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유선협회 비공식 집계결과 밝혀졌다.

BBS 5월1일 프로개편

불교방송은 봄철 프로그램을 5월1일 개편한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은 매년 3·4월에 시행했으나 올봄 프로개편은 광주·부산개국과 개국5주년 등을 고려해 개국일인 5월1일에 개편키로 했다.

한편 새로 기획되는 프로그램은 신행위주의 프로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TV '관음을…' 제작

문화방송(MBC)은 부처님 오신날 기념 특집방송 다큐멘터의 '관음을 찾아서(가칭)'(연출 김성환)를 오는 5월7일 방송한다.

'관음을 찾아서'는 한 학인스님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에 뿌리내린 관음연망의 유래, 의미, 성격등을 짚어본다.

BBS '피안을…' 방송 4돌
4백32명 감동의 얘기 수놓아
'맑고 순수한 신행담' 생활의 경건함 느끼게

숨은불자의 신행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가는 '피안을 향하여'(PD 조은정)가 '이 시대 이런불자가 있구나' 하는 감동속에 방송 4주년을 맞았다.

이제까지 '피안을 향하여'는 출연자만도 4백32명에 이르며 그동안 맑고 순수한 수많은 웃음과 울음을 자아냈다.

이 프로에 출연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곳에서 다른 일들을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몸을 바친 보살행으로 이 세상을 피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취자들은 방송을 들을때마다 새롭게 삶의 가치를 배우며 불자다운 삶을 서원한다.

고아들과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스님들의 얘기, 나의 불행을 이웃의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보살행,미용사,화가,장애인등의 삶들로 엮어지는 '피안을 향하여'는 우리시대 불자들에게 신행의 보람을 주고있다.

더욱 이프로를 값지게 하는 것은 보살행을 소개함으로서 많은 불자를 새로운 보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란게 방송가의 칭찬이다.

불교방송 포교프로의 전위에 서 있는 '피안을 향하여'는 모르고 지내던 이웃을 만나는 듯한 반가움으로 청취자들에게 다가가는 프로이다.




◇ 불교방송의 '피안을 향하여'가 우리시대에 살아있는 보살들의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며 방송 4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노인봉양하며 수행하는 묘희스님과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오선희 보살.

한 출연자의 얘기를 3일씩 나눠 들려주기 때문인지 한번 맛을 들이면 매번 듣게된다는 것이 청취자들의 얘기다.

그동안 연출자만도 김정학, 이선희, 강봉래, 하헌목, 진영조, 조은정 PD로 바뀌며 보다 새로운 인물찾기에 몰두해 왔으며 문정희(시인), 황청원(시인), 박광서(서강대 교수), 강부자(국회의원), 최정희(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씨로 이어진 진행자들도 유달리 애착이 생기는 프로라고 .

PD 조은정씨는 "흐트러진 자세를 갖출 정도로 생활의 경건함을 느낀다"며 누구든 좋은 얘기의 열린마음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btn TV신행상담

고민 상담 대안제시

'결혼할 때 종교가 문제되는가?'

불교텔레비전의 신행상담프로 'TV신행상담'은 오는 6일 방송되는 '종교와 결혼'에서 집안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부부들의 인연과 결혼후 문제를 이야기 한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 시청각을 통한 사례들과 각계각층의 의견도 곁들여 불교적 대안을 제시한다.

'TV 신행상담'은 이영숙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진욕스님(여수 석천사 주지)과 관계진문가가 출연하고 '진리의 전화' 상담원의 자원봉사로 꾸며진다.



슬픔은 함께하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함께하면 두배로 늘어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TV 신행상담은 높은 전화참여와 방청객 내방객이 벌이는 토론으로 열기가 뜨거운 프로.



◇ 위성수신을 통해 산사에서도 불교 TV를 수신할 수 있다. 사진은 수원 용주사에 설치된 위성 안테나.

"산사서도 TV부처님 만난다"
69곳에 위성수신 장치…신청 계속늘어

깊은 산중의 암자로도 TV 부처님은 달려간다.

불교텔레비전이 전국 산사를 위해 각 교구본사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한데 이어 산중사찰의 유선TV 가입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은 3월29일 현재까지 75개 산중사찰의 유선TV 수신 시설 신청을 받아 69곳 사찰에 불교TV 채널을 열어 주었다. 각 본사에 설치된 위성안테나와 같은 기종의 위성안테나를 설치한 산중 사찰로 배달되는 불교TV의 화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2월25일 이전에 각 본사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했으며 통도사 서운암, 경북 문경 김용사, 강원도 정선 정암사 등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했다.

한편 산중사찰에 위성안테나를 설치 불교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는 설치비 1백65만원가량이 든다.

(문의=(02)3270-3300)

"영상사업·지방조직 추진활발"
btn 새사업 밝혀…'한국의 명찰' 등 제작 판매도

불교텔레비전은 지난달 27일 교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차 불자주식공모 계획,케이블TV 사업현황과 시청가구수 전망, 영상사업부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불교텔레비전은 제2차 불자주식공모를 2백억 규모로 3월30일부터 6월29일까지 공모하며 1인 최저 20주(10만원)로 전국 시중은행 본·지점, 농·수·축협에서 청약키로 했다.

케이블TV는 3월13일 현재 28만여 가구가 시청중이며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컨버터가 양산체제에 들어가 어려움이 해소됐다.

또 영상사업부 사업이 활발하여 월1억의 수입을 올려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MBC '일본속의 한국문화' 등 10여개의 제작사업과 한국의 명찰 등을 주문제작 판매하고 있다.

한편 불교텔레비전은 시청자 설명회를 광주는 12일, 대구 4월 중순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후원회 조직과 지사설립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하이라이트

- btn ch32 -

△자비의 천수천안(4일)=강동균(15세), 강동수(14세) 형제는 슈퍼에서 박스를 정리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81세된 할아버지 강장손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5살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은 두 형제의 이야기는 눈물로 이어지고 ….

△김병조의 스타쇼(5일 11:10~12:00)=무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뭐든 해낼 수 있는 연극인 김성녀씨.자연석 부처를 모시고 나와 그녀의 불심과 신행을 이야기하는데, 진통제 맞으며 공연한 갈비뼈 사건, 오디션도 거치지 않았던 데뷔이야기 남편이야기 등 그녀의 삶을 조명한다.

△실크로드(6일 12:30~13:20)=야르간트에서 길은 두갈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카쉬가르로 통하는 옛날길이고 또 하나는 역시 카쉬가르로 향하는 오늘날의 실크로드라 할 수 있는 길인데 부유한 이곳 원주민들의 생활과 민속음악, 무용이 소개되고 앞으로 실크로드의 면모가 그려진다.

△만행승 케인(8일 12:30~13:20)=손은 광부들과 생활하며 금광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지만 애완용 고양이를 사고로 잃는다.

- BBS -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퀴즈대장경(5일 15:05~15:55)='점심'은 원래 선종에서 '배에 점을 찍을 만큼 적게 먹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5일 퀴즈대장경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불교에서 나온 말〉을 주제로 퀴즈대결과 해설을 준비하고 있다.

△백팔가요(8일 12:20~)= 백팔가요가 부산현지에서 직접 생방송한다. 지역불자와 함께 호흡하는 생동감있는 방송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지역 생방송은 12일 광주에서도 선보인다.

- KBS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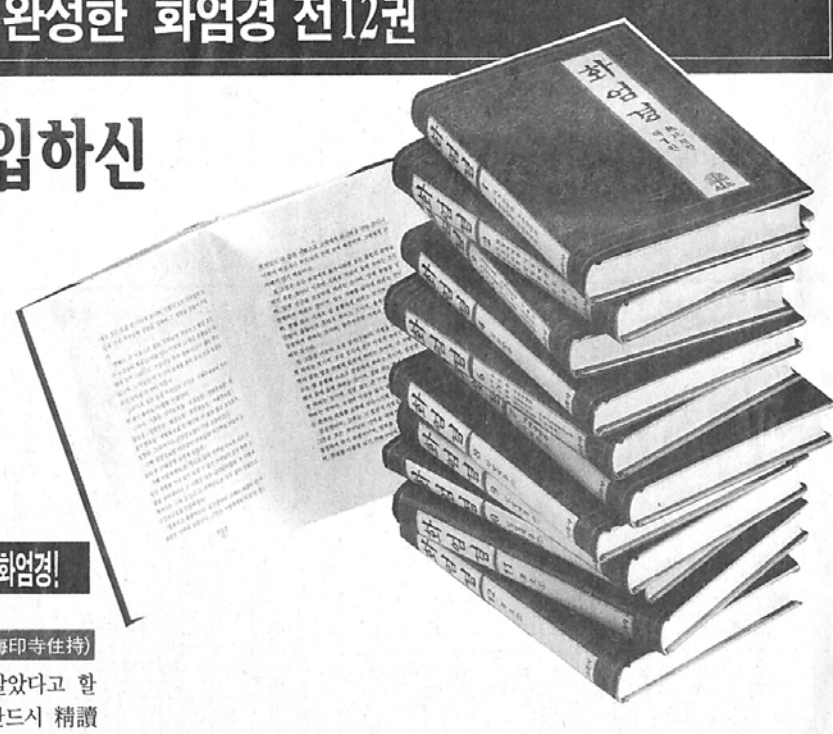
△원효와 의상(1일20:00~21:00)=한국불교의 두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원효와 의상을 재해석.

5천여 불자가 이미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화엄경의 大講主 無比스님이 10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화엄경 전12권

발간 두달만에, 無比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을 구입하신 5천여분의 불자가 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의 세계를 확인하셨습니다.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이제 화엄경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족사판 한글화엄경 전12권은, 80권本 화엄경을 모두 한글로 완역하여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엄경의 전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락을 나누고 상세한 소제목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미려한 편집과 큰 활자, 최상의 고급지 사용, 영구보존판 양장으로 제책되어 있습니다.

또한 中國 天童山판 80화엄경 원문을 두 권에 수록하였고, 화엄경의 주요 어휘를 알기쉽게 풀이한 〈華嚴經小辭典〉을 발간하여 독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無比스님 완역 민족사판 한글화엄경의 특색입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도서출판 민족사가 펴낸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 전12권은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華嚴經 전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

— 이 책은 한국불교의 사상적 원천인 화엄사상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일보 —

—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

대덕스님과 석학들이 한결같이 권하는 무비스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



李智冠 스님(哲學博士, 前東國大 總長, 現 海印寺住持)
누구나 화엄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를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불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精讀하여야할 책이라 생각되어 藏書로는 물론, 특히 젊은 학인스님과 불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金知見 박사(文學博士,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敎授)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가이없는 자양을 이루어 온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불자 여러분에게 無比스님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을 삼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權奇悰 박사(哲學博士,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學長)
화엄경을 바르게 읽고 실천하는 길이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얼을 되살리는 일임을 불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무비스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의 수지독송을 권하는 바입니다.

보다 편리해진 구입방법 및 특전

1. 특가 전 12권 160,000원(2회 분할)(각종 카드로도 구입 가능)
2. 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리며, 화엄경소사전과 화엄변상도(1장), 화엄경 강연테이프(무비스님, 고은선생) 2개를 증정합니다.
3. 송금방법: 아래의 은행구좌나 소액환을 이용하십시오.

(조흥은행) 390-01-033705 민족사 (제일은행) 130-10-080370 윤재승
(농 협) 032-01-088461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우 체 국) 010041-0097045 윤재승 (국민은행) 023-01-0225-854 민족사
(신탁은행) 15504-0475103 윤재승 (상업은행) 113-04-101987 민족사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 화 : (02)732-2403~4, 722-7679
팩 스 : (02)739-7565

지방취급서점 : 부산 : 고려불교예술원(807-6842) 삼장원(464-2696) 불교전시관(647-7393) 영광도서(816-9500) 경공포교사님(부산 334-3035, 휴대폰 011-572-3007 부산불교문화사(466-3884) 광주 : 불일서점(232-7542)